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2021년 8월 31일(화) — 9월 2일(목) August 31st - September 02nd(Thu)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과 한반도 평화·경제·생명공동체

New Vision for Inter-Korean Relations and Community for Peace, Economy and Life of the Korean Peninsula

PROGRAM BOOK

Day. 1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Contents

모시는 글 | Invitation 프로그램 | Program

Opening Ceremony

개회사, 축사

Opening Remarks, Congratulatory Remarks

Special Message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와 유엔의 역할

International Community and UN's Roles for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eynote Speech

남북 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 및 남북관계 비전

30th Anniversary Evaluation of the Framework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and Vision of Inter-Korean Relations

Session 1

1-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도전과 기회-현인 대화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Sage Dialogue

1-2 한반도 평화와 한중일 협력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OK-Japan-China Cooperations

1-3 미중전략 경쟁과 한반도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1-4 아시안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Asian Views on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Session 2

2-1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와 의미

Evaluation and the meaning of 30th anniversary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2-2 평화의 개념들과 한반도 평화 비전

Concepts of Peace and Korea Peace Vision

2-3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2-4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eace in East Asia

Contents

Special Message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교회의 역할

The Role of the Church to Buil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ession 3

- 3-1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위한 인권과 개발의 통합적 접근과 과제 Integrated Approach and Tasks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3-2 바이오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to Respond to Bio Security Threats in the Korean Peninsula
- 3-3 대북외교 재개를 위한 진단과 처방-평양주재 대사들과의 대화 Diagnosis and prescription for the resumption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Conversation with Ambassadors to North Korea
- 기후변화와 한반도 물 재해, 그리고 남북협력 3-4 Inter-Korean cooperation beyond climate change and water disasters in the Korean peninsula

MEMO	

모시는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통일부는 올해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을 8월 31일부터 9월2일까지 3일 간 개최합니다.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혜와 담론을 모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반영하고자 2010년부터 통일부가 개최해 온 1.5트랙 다자 국제회의입니다.

올해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은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과 한반도 평화·경제·생명공동체'를 주제로 세계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과 근원과 배경,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한 해법에 관한 지혜를 모아나갈 예정입니다. 전·현직 정부 관계자, 국내외 평화 활동가들이 모여 한반도 분단체제의 포럼은 새로운 남북관계 비전,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그리고 북한의 변화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함께 논의하고 의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국내외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INVITATION





LEE In-young Minister of Unification

The Unification Minist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host the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KGFP) for three days from August 31 to September 2, 2021. KGFP is a 1.5-track multilateral international forum that has brought togeth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2010 to pool ideas on and insights into peace and co-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which could contribute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ies.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nd South and North Korea's simultaneous admission to

Against this backdrop, this year's KGFP will invite world-renowned academics, former and incumbent government officials, and peace activists from home and how to establish a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theme of "New Vision for Inter-Korean Relations and Peace Economy Biotic Commun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forum will focus on discussing four sub-topics, which are new vision for Inter-Korean relations,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peace-economy-biotic commun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ustainable North Korean policies.

We cordially ask you to register your interest and participate in KGFP 2021 to make this year's event even more significant. Your creative ideas and rich perspectives will contribute greatly to peace on the peninsula and the co-prosperity of humanity.

축사



박병석 국회의장

대한민국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대한민국 통일부가 주최하는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2010년 출범한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은 국내 대표적인 1.5 트랙의 글로벌 컨퍼런스입니다. 국내외 정부 인사와 민간 석학들이 한반도 외교 현안을 진단하고 국제사회와 공조 기반을 다지는 가교역할을 해왔습니다. 포럼을 위해 정성을 다해주신 존경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과 포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한지 올해로 꼭 30년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초석으로 평가되는 뜻 깊은 합의서입니다. 그간 남북은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기 위해 정상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대화와 협력을 해왔습니다. 일정한 성과도 거뒀습니다. 2018년 이후 남북의 정상은 세 차례 만났습니다. 북미 정상은 역사상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두 번 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핵 해결의 새 진로를 탐색했습니다. 북한이 13개월동안 차단했던 남북 통신 연락선 전화선을 다시 열면서 남북 접촉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2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의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남북은 이같은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 남북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한다는 소명의식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이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협력이 긴요합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긴밀하게 합의된 대북정책이 마련됐습니다.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도 평화를 여는 기회의 창을 잡기를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북미회담도 재개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국민의 공감대도 함께 넓혀 가십시다. 국회도 당연히 힘을 보탤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지난 달 제헌절 경축사에서 남북 국회회담을 재차 공개 제안했고 북한 당국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북의 국민 대표기관이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을 비준동의한다면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남북대화의 창을 다시 열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로 인도하는 창의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ory Remarks





PARK Byeong-seug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I am Park Byeong-seug,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2021, host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Launched in 2010, the KGFP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track 1.5 global conferences in Korea. It has bridged public officials and distinguished scholars from home and abroad to identify diplomatic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ave the wa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 appreciate the tireless efforts made by H.E. Lee In-young and the organizers for this forum.

It has been precisely thirty years since the two Koreas simultaneously joined the United Nations and signed the "Inter-Korean Framework Agreement." This meaningful agreement is assessed to be a cornerstone to buil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o date, the two Koreas have engaged in various forms of dialogue and cooperation, including summits, with an aim to open a path towards peace and co-existence. And they have led to notable outcomes. Since 2018,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have met three times.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leaders of North Korea and the US sat face-to-face: not once, but twice. We were able to explore a new path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restoration of cross-border hotline that had been cut off by North Korea for 13 months rekindled contact between the two Koreas. This created an opportunity to turn the peace clock again for the inter-Korean relations that has remained at a standstill for more than two years. The two Koreas must rekindle such momentum for dialogue. With a sense of mission to chart our own destiny, we ought to be consistent and unwavering in pursuing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We have to restore the bilateral trust first in order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join us. Cooper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essential. During the summit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in May, a policy on North Korea was closely agreed upon between the two sides. This opened the door for dialogue to North Korea.

We hope that North Korea would not shy away from this window of opportunity for peace. It is also necessary for Pyongyang and Washington to resume summit talks with sincerity. At the same time, we should make a concerted effort to enhance public consensus. The National Assembly will certainly provide necessary support.

As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I reiterated my proposal to hold an inter-Korean parliamentary meeting during my congratulatory speech on Constitution Day last month. I am waiting for a response from Pyongyang. The ratification and approval of items agreed between our leaders by the two bodies representing the people of our respective nations would lay the foundation for continuous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 hope that this forum will find creative solutions to reopen the door for inter-Korean dialogue and lead the two Koreas to a path of peaceful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Thank you.

프로그램

8월 31일 (화)

09:00-09:20		개회식	
	개회사	이인영 통일부 장관	
	축사	박병석 국회의장	
09:20-09:25	특별 메시지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와 유엔의 역할	통일부
	발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09:25-10:20	기조연설	남북 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 및 남북관계 비전	
03.23-10.20	발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세션 1-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도전과 기회-현인 대화	
	좌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패널	• 문정인 세종재단 이사장 •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극동연구소 북한센터장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 닝쿠푸이 전 외교부 한반도사무부대표 및 전 주한 중국대사 •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통일부
	세션 1-2	한반도 평화와 한중일 협력	
	좌장	이관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발표	•에바 모틸리스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히라이 히사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경남대
10:50-12:20	토론	• 빠벨 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 량미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이병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 극동문제연구소
	세션 1-3	미중전략 경쟁과 한반도	
	좌장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패널	•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앤드류 스코벨 미국평화연구소 중국 석좌위원 •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학교 교수 • 리 팅팅 북경대학교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세션 1-4	아시안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좌장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발표	• 후추평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교수 • 모한 라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아시아재단
	토론	• 티티난 퐁슈디락 태국, 쭐랄롱꼰대학교 교수 • 바나리스 체앙 아시아비전연구소 소장 • 홍 히엡 르 동남아연구소 선임연구원	

프로그램

	세션 2-1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와 의미	
	좌장	김형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간사	
	발표	• 박광호 한라대학교 교수 • 임병철 남북하나재단 상근이사	한국통일협회
	토론	유종열 한국통일협회 운영위원 김웅희 한국통일협회 운영위원 이무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	
	세션 2-2	평화의 개념들과 한반도 평화 비전	
	좌장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	
	<u></u> 발표	• 정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팀장 • 허지영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 주윤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통일연구원
	토론	•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수 • 강혁민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 • 이성용 뉴질랜드 오타고대학교 교수 •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13:30-15:00	세션 2-3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좌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발표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 한희승 통일국민협약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단원	통일비전
	토론	•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 엔자이칸 잘갈사이칸 몽골 블루배너 의장 •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유희재 ORP 연구소 부대표 • 로렌스 필브룩 문화문제연구소 소장 • 김태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	시민회의
	세션 2-4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좌장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패널	황수영 참여연대 팀장 이원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이기호 한신대학교 평화와공공성센터 센터장 이영채 일본, 게센여학원대학교 교수 이동기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원장	평 <u>화공공</u> 외교 협의회
15:20 15:40	특별 메시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교회의 역할	ĘoIH
15:20-15:40	발표	•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	통일부

프로그램

16:00-17:30	세션 3-1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위한 인권과 개발의 통합적 접근과 과제	
	좌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 표	• 이성훈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특임연구원 •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 원재천 한동대학교 국제법교수	통일연구원
	토론	•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문타폰 비팃 태국, 쭐랄롱꼰대학교 교수 • 데이비드 메이즐리시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	
	세션 3-2	바이오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좌장	김범수 서울대학교 교수	
	발표	• 신상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최강석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토론	•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료원 교수 • 김상배 서울대학교 교수	
	세션 3-4	기후변화와 한반도 물 재해, 그리고 남북협력	
	좌장	남궁은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15:30-17:00	발표	• 토마스 쉐퍼 평양주재 독일 대사관 전 평양주재 독일 대사(~2018) • 김경훈 한국수자원공사 부장 • 이창희 명지대학교 교수	한국수자원공사
	토론	• 김태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 김영오 서울대학교 교수 • 휄릭스 글렝크 한스자이델재단 수석연구원	
	세션 3-3	대북외교 재개를 위한 진단과 처방-평양주재 대사들과의 대화	
	좌장	김지영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17:20-19:00	패널	• 콜린 크룩스 주북 영국대사 •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즈 E∪대표부 남북겸임대사 • 토마스 쉐퍼 평양주재 독일 대사관 전 평양주재 독일 대사(~2018)	통일부

PROGRAM

August 31 (Tue)

		Opening Ceremony	
09:00-09:20	Opening Remarks	LEE In-young Minister of Unification	
	Congratulatory Remarks	PARK Byeong-seug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09:20-09:25	Special Messag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UN's Roles for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inistry of Unification
	Presenter	Antonio GUTERRES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09:25-10:20	Keynote Speech	30th Anniversary Evaluation of the Framework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and Vision of Inter-Korean Relations	
	Presenter	JEONG Se Hyun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Executive Vice-chairperson	
	Session 1-1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Sage Dialogue	
	Moderator	KIM Yeon Chul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Panelist	 MOON Chung-in Sejong Institute, Chairman Alexander ZHEBIN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IFES) (Russia), Director LEE Jong suk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NING Fukui Former Deputy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Affairs of China and Former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Joseph DETRANI Former Special Envoy for Six Party Talks with North Korea 	Ministry of Unification
	Session 1-2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OK-Japan-China Cooperations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FES), Kyungnam University
	Moderator	LEE Kwan-Sei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Director	
10:50-12:20	Presenter	• Ewa MOTYLIŃSKA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Visiting Research Fellow • HIRAI Hisashi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Visiting Research Fellow	
	Discussant	Pavel P. EM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Visiting Research Fellow CHO Jin-Goo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LIANG Meihua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Visiting Research Fellow LEE Byong-Ch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Session 1-3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Moderator	SOHN Yul East Asia Institute, President	East Asia Institute
	Panelist	 PARK Won Gon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Andrew SCOBELL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Distinguished Fellow for China KIMIYA Tadashi The University of Tokyo, Professor LI Tingting Peki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Session 1-4	Asian Views on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Moderator	OH Youngju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IFANS), President	
	Presenter	HOO Chiew Ping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 (UKM), Senior Lecturer MOHAN Raja Institute of South Asian Studies at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Director	The Asia Foundation
	Discussant	Thitinan PONGSUDHIRAK Chulalongkorn University, Director Vannarith CHHEANG Asian Vision Institute, President HONG HIEP Le ISEAS – Yusof Ishak Institute, Senior Fellow	

PROGRAM

	Session 2-1	Evaluation and the meaning of 30th anniversary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Moderator	KIM Hyungki Steering Committee of the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Program Officer	Unification Council of Korea
	Presenter	PARK Kwang Ho Halla University, Professor LIM Byeong Cheol Korea Hana Foundation, Director	
	Discussant	RYOO Chongryul Unification Council of Korea, Operating Committee KIM Wunghee Unification Council of Korea, Operating Committee LEE Moo-il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Foundation, Standing Auditor	
	Session 2-2	Concepts of Peace and Korea Peace Vision	
	Moderator	PARK Myoungkyu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ndowded Professor	
	Presenter	 JUNG Hyuk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TRCK), Deputy Director HEO Ji Young Seoul Institute, Visiting Research Fellow JOO Yunjeong ISDPR,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Discussant	SOEYA Yoshihide Keio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LEE SungYong University of Otago, Associate Professor KANG Hyukmin Kangwon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enior Researcher SUH Bo-hyuk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Fellow	
13:30-15:00	Session 2-3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oderator	KIM Kyung-min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General Secretary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PUB of Korea)
	Presenter	LEE Taeho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o-chair of steering committee LIM Hunjo Korea NGO Association, Co-representative HAN Heeseung Social Dialogu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ract', Participant	
	Discussant	JHE Seongho Chung-Ang University Law School, Professor ENKHSAIKHAN Jargalsaikhan Blue Banner NGO, Mongolia, Chairperson YEO Hyesook Women Making Peace, Co-representative YOO Heejae ORP Institute, Vice President Lawrence PHILBROOK The Institute of Cultural Affairs Taiwan, Director	
		• KIM Taehyon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Director	
	Session 2-4	• KIM Taehyon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Director People's solidarity for peace in East Asia	
	Session 2-4 Moderator		The Council
		People's solidarity for peace in East Asia	The Council for Peace and Public Diplomacy
15:20-15:40	Moderator	People's solidarity for peace in East Asia CHO Youngmi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Executive Director • HWANG Soo Young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Manager • LEE Won-young Korea Democracy Foundation, Executive Director • YI Kiho Center for Peace & Public Integrity, Hanshin University, Executive Director • LEE Young chae Keisen University, Japan, Professor	for Peace and Public

PROGRAM

	Session 3-1	Integrated Approach and Tasks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oderator	KIM Sooam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nior Research Fellow	
	Presenter	LEE Anselmo GAFC, Kyunghee University, Senior Research Fellow KIM Taek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WON Jae-Chun Handong Global University,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nd Director of International Law Center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6:00-17:30	Discussant	LEE Keumso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nior Research Fellow MUNTARBHON Vitit Faculty of Law,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Professor David MAIZLISH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Head of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Session 3-2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to Respond to Bio Security Threat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Institute for
	Moderator	KIM Bumsoo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Unification and
	Presenter	• SHIN Sang-Do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rofessor • CHOI Kang-Seuk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Professor	Peac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iscussant	John LINT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rofessor KIM Sang Bae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Session 3-4	Inter-Korean cooperation beyond climate change and water disasters in the Korean peninsula	
	Moderator	NAMKUNG Eu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15:30-17:00	Presenter	Thomas SCHAEFER German Foreign Office (until 2018), Ambassador (Ret.) KIM Kyoung Hun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K-Water), General Manager LEE Chang-Hee Myongji University, Professor	
	Discussant	KIM Tae Kyun Korean Council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KCRC), General Secretary KIM Young-Oh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Felix GLENK Hans Seidel Foundation Korea, DPR Korea Project Manager	(K-water)
	Session 3-3	Diagnosis and prescription for the resumption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Conversation with Ambassadors to North Korea	
17:20-19:00	Moderator	KIM Ji Young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Professor	Ministry of Unification
17.20 15.00	Panelist	Colin CROOKS British Ambassador to DPRK Maria CASTILLO-FERNANDEZ EU Ambassador in Korea Thomas SCHAEFER German Foreign Office (until 2018), Ambassador (Ret.)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PROGRAM BOOK

DAY 1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Opening Ceremony

개회사, 축사, 특별 메시지

개회사 Opening Remarks

이인영 통일부 장관 LEE In-young Minister of Unification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박병석 국회의장 **PARK Byeong-seug**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특별 메시지 Special Message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Antonio GUTERRES**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기조연설 Keynote Speaker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JEONG Se Hyun**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Executive Vice-chairperson

기조연설 Keynote Speaker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JEONG Se Hyun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Executive Vice-chairperson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대북 전문가다. 정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북정책을 자문하면서 각종 방송출연과 언론 기고를 통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1945년 만주국(현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태어난 정 수석부의장은 8·15 광복 후 귀국해 전북 전주시에서 자랐다. 경기고와 서울대 외교학과, 동 대학교 대학원 석사·박사 과정을 마쳤다. 한문에 친숙하고 중국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중국 고대 정치사상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고, 1977년 국토통일원(현 통일부)에서 공산권연구관실 연구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일해연구소(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청와대 비서실 통일비서관, 민족통일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통일부 장차관으로 활약하며 햇볕정책 추진의 핵심역할을 했다. 정 수석부의장이 장관으로 재임한 기간은 남북 대화만 95차례 이어질 정도로 역대 남북 접촉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손꼽힌다. 이 기간 73개의 남북 합의가 이뤄졌다.

Jeong Se Hyun, the Executive Vice-chairperson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is an expert on North Korea. Vice-chairman Jeong has been consulting on North Korea policy in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also supported and promoted it through various broadcasting appearances and media contributions.

Born in Manchuria (now Heilongjiang Province in China) in 1945, he returned to Korea and grew up in Jeonju. He graduated Gyeonggi High School and received his master's and doctorate degre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A Study on the ancient Chinese political thoughts', and began his public career as a researcher at the Office of the Communist Research Institute i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n 1977. He also served as senior researcher at the Sejong Institute and Director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Office.

Dur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he served as the Presidential Secretary for Unification, and the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After that, he took a key role in the 'Sunshine policy' as the Minister of Unification.

Vice-chairman Jeong's tenure as the Minister of Unification is considered as the most active period of inter-Korean contact in history. During this period, 73 inter-Korean agreements were reached.

남북기본합의서(1991.12) 타결 배경과 의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1. 탈냉전과 국제정세 변화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환경은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이 가속화 되고, 소련에서는 글라스노스트(Glasnost)와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가 추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대 공산대국은 대내경제에 주력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형제국가들에 대한 경제·안보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989년 12월 3~4일 지중해 몰타(Malta)섬에서 개최된 미·소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쵸프 서기장이 부시 대통령에게 미·소 간 경쟁·대결을 중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제정치전문가들은 이 회담을 동서냉전의 종식, 탈냉전의 출발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권들이 붕괴되고, 동서독의 통일 기운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 위기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소련의 대외 지원 중단으로 1980년대 북한 경제는 제로(0) 성장을 지속하였고, 1990년대 초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남한 경제가 고속성장을 지속하면서 1980년대에 남북한의 국력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한편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7선언(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북방정책'을 통해 중국, 소련과 국교수립 협상을 추진하였고, 1990년 9월 30일 한·소 수교,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된 국제정세와 남북 간 국력격차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2.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와 유엔 동시 가입

김일성 주석은 1988년 신년사를 통해 "북남사이에 서로 침략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통일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9월 11일 국회연설을 통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이 '화해·협력 단계'를 거쳐 '남북연합'을 이루고, 최종적으로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3단계 접근방식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1989년 여름부터 시작된 남북차관급 실무접촉의 결과로 1991년 9월 4일부터 서울에서 남북총리급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총리급회담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개최되었는데, 남북총리급회담이 3차 까지 진행된 시점인 1991년 1월 1일 북한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에서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말한 연방제는 1980년 10월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는 차이가 큰 것으로서 '느슨한 연방제'라고 성격을 규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북한의 통일방안은 1960년 8월 14일 발표한'남북연방제'에서 '고려연방제('73.3.23)', 그리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80.10.10)'을 거쳐 199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느슨한 연방제'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느슨한 연방제'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통일방안이 1989년 9월 발표된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핵심개념인 '남북연합'에 근접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한편 남한은 1970년대부터 유엔 동시가입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은 일관되게 통일 후 단일 국호로 유엔에 가입할 것을 역제안 하였습니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은'6·23선언(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을 통해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및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를 인정하여 분단을 영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1991년 결국 자진해서 유엔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9월 18일 개최된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유엔 동시가입은 국제법적으로 북한도'투 코리아(Two Koreas)'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북한의 통일관이 획기적으로 변했다는 증거이자 '남북연합'을 핵심 개념으로 한 남한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북한 나름의 호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남북은 유엔 동시가입에 이어 199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총리급회담('91,12,10~13)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화해(제1장)와 남북불가침(제2장), 남북교류·협력(제3장)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남북 간 상호 체제 인정·존중(제1조), 상호 내부 문제 불간섭(제2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제3조),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활동 금지(제4조), 그리고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 준수(제5조) 등 총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편 「남북기본합의서」 1~5조는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는 장치였던 것으로 후일 밝혀졌습니다. 1991년 12월「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당시 북한의 책임연락관(최봉춘)이 남한 책임연락관(김용환)한테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합의서 체결 직후 김일성 주석이 주석궁에 회담대표들을 불러 모아 파티를 열고 김일성 주석이 직접 "이 합의서로 적들의 발목을 잡았다. 이것은 천군만마보다 위력하다"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북한이 얼마나 체제불안 및 흡수통일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서명 주체는 이전과는 달리 남북 쌍방이 정식 국호와 서명자의 국가 공식직함을 사용하였는데. 이 또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상부의 뜻을 받들어 김영주"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대한민국 국무통리 정원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이후 '6·15 공동선언('00.6.15. 평양)」, '10·4 남북정상선언('07.10.4. 평양)」, 「4·27 판문점선언('18.4.27. 판문점)」, 그리고 「9·19 평양공동선언('18.9.19 평양)」 등 모든 남북 합의서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와 서명자의 공식 직함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시 정식 국호와 서명자들의 국가 직책을 명기한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관의 변화를 방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북한의 노동당 당규약 전문 개정의 의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부터 30년이 흐른 뒤인 2021년 1월 개최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당규약 중 '당의 당면목적' 부분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지난 8차 당대회에서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으며 …"로 수정했습니다.

그 동안 북한이 말하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남한 적화' 또는 '공산화 통일'의 개념으로 인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는 남한 관련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표현이 삭제되었고. 대신에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돌발적 현상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흡수통일의 공포를 드러낸 1988년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와 느슨한 연방제를 언급한 1991년 신년사, Two Korea를 수용한 북한의 유엔 가입('91.9.18)과 흡수통일을 방지한 남북기본합의서('91.12.13), 그리고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6·15 공동선언('00.6.15) 2항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개정된 북한 노동당 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을 두고 북한의 대남 위장 평화전술에 불가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한 국력 격차 심화 추세를 감안하면 북한이 아직도 위장평화전술을 쓸 형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김정은 집권 2기로 접어들면서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중대립이 날로 격화되어가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적 체제안정이 더욱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조선 해방'이나 '공산화 통일' 같은 비현실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북한을 고정불변의 집단으로 전제하고 상대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계략을 토대로 나의 계략을 세운다'는 '장계취계(將計就計)'의 원리로 북한을 상대하면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Background and Implication of the Basic Inter-Korean Agreement of December 1991

JEONG Se Hyun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Executive Vice-chairperson

1. The Post-Cold War Era & Changes of International Affairs

Moving into the 1980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dynamic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began to shift radically. In China, the process of reform and opening-up accelerated, and in the Soviet Union, policies of glasnost and perestroika were introduced and implemented. The two major communist countries focused their efforts to boost their domestic economies, and as a result, they stopped providing economic and security assistance to socialist brother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In the meantime, at the Malta summi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held in the Mediterranean island of Malta on December 3 to 4, 1989, Soviet General Secretary Mikhail Gorbachev proposed to US President George Bush that the two countries should put an end to rivalry and confrontation. International political experts see this talk as a starting point to mark the end of the Cold War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Since the mid-1980s, Eastern Europe's socialist regimes had collapsed, and East and West Germany saw a rising spirit of unification in their societies, which inevitably stirred up a sense of crisis in the North Korean regime. In particular, due to China and the Soviet Union's decision to cut off foreign aid, North Korea's economy continued to grow zero percent in the 1980s and has turned negative since the early 1990s. As the South Korean economy has achieved remarkable success in rapid economic growth since the mid-1970s, the gap in national power between the two Koreas continues to widen.

Meanwhile, on July 7, 1988, then-South Korean President Roh Tae Woo announced the "Special Presidential Declaration for National Self-esteem, Unification and Prosperity" and pushed for negotiations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Soviet Union base on his administration's "Nothern Policy." As a result, South Korea established ties with the Soviet Union on September 30, 1990, and with China on August 24, 1992.

With these shifts in international affairs and the widening gap in its national power relative to South Korea, the North likely had little choice but to take extraordinary measures to ensure the security of its regime.

2. Changes in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 Two Koreas' Simultaneous Joining of the UN

In his New Year's Address in 1988, North Korean leader Kim II Sung stated: "The two Koreas should adopt a non-aggression treaty in which each side promise not to invade the other. [...] We should solve the issue of unification on the foundation that the North and the South acknowledge each other's existence."

On the other hand, President Roh Tae Woo proposed "the Unification Plan for One National Community" in his speech to the National Assembly on September 11, 1989. This unification formula represented a three-phase approach: (1) a phase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2) a phase of the Korean Commonwealth, and (3) the final phase of unified Korea of one nation and one state.

Thanks to vice-ministerial and working-level talks between the two Koreas starting in the summer of 1989, the South-North

Prime Minister Talks took place in Seoul from September 4, 1991, which used to be hosted alternately in Seoul and Pyongyang. On January 1, 1991, at a time when three rounds of these high-level talks took place, North Korean President Kim II Sung stated in his New Year's address that "Unification should occur under the principle that no one eats whom or no one is eaten up." He also noted, "We are willing to discuss the gradual approach to complete federal unification by giving more provisional power to the regional autonomous governments of the Federal Republic of Korea and then enhancing the func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is federal system noted by Kim II Sung in his New Year's Address in 1991 is in stark contrast to the Proposal for Founding a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 in October 1980, which can be defined as a loose form of the federal system.

All this demonstrates that North Korea's unification plan has transformed from "the Inter-Korean Federal System" announced on August 14, 1960, and "the Koryo Federal System" (March, 23, '73) to "the Proposal for Founding the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 (October 10, '80) and finally the "loose federal system" as of January 1, 1991. Since then, the loose federal system has been expressed as "the Low-level Federation" in the June 15th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issued during the inter-Korean summit in 2000. This change shows that North Korea's unification plan has been close to the core concepts of the Korean Confederation in the South's Unification Plan for One National Community announced in September 1989.

Starting in the 1970s, South Korea continued to encourage the North to join the United Nations simultaneously. North Korea, however, had consistently made a counteroffer to attain the UN membership under a single country name as one nation following unification. In 1973, President Park Chung Hee announced "the June 23rd Declaration," a special statement for peaceful unification diplomacy policy, expressing that he has no intention to oppose the two Koreas' simultaneous membership in the UN and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vertheless, the North Korean regime continued to insist on joining the UN under a single country name, criticizing the South that the simultaneous joining of the UN means accepting the system of the two Korea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us perpetuating the division.

Eventually, however, North Korea submitted its application to the UN voluntarily in 1991, and that year, the two Koreas finally joined the UN together at the 46th UN General Assembly held on September 18. This move implies that North Korea also accepts the system of the two Korea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it is evidence that radical changes took place in the North's view of unification as well as the North's response to the South's Unification Plan for One National Community based on the concept of "the Korean Confederation" as key.

3. Changes in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 Adoption of the Basic Inter-Korean Agreement

Following the simultaneous UN membership, the two Koreas adopted the Basic Inter-Korean Agreement, short for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t the 5th Inter-Korean Prime Minister Talks held in Seoul in December 1991. (December 10 to 13, '91)

The Basic Inter-Korean Agreement is mainly based on three Chapters as follows: (1) Chapter 1. South-North Reconciliation; (2) Chapter 2. South-North Non-aggression and; (3) Chapter 3. South-North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the main contents consist of 25 Articles, including: (1) Article 1. Recognizing and respecting the system of each other; (2) Article 2. No interference in the internal affairs of each other; (3) Article 3. No slandering or defaming each other; (4) Article 4. Refraining from any acts of sabotage or insurrection against each other and; (5) Article 5. Abiding by the present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until such a state of peace is realized.

Meanwhile, it was later revealed that Articles 1 through 5 of the Basic Inter-Korean Agreement were mechanisms to ensure the North Korean regime's safety from South Korea. According to what North Korea's chief liaison officer (Choi Bong Chun) told South Korea's counterpart (Kim Yong Hwan) upon signing the Agreement in December 1991, North Korean leader Kim II Sung invited the representatives of the talks to the presidential palace for a party that he threw shortly after the signing and expressed his excitement, saying, "This Agreement will help us hold our enemies back. It will give us more power than thousands of troops and horses." This story provides us a glimpse of how much the North Korean regime was terrified at its instability and unification by absorption.

What is also noteworthy was, unlike before, the two Koreas agreed to use official names of the countries and official job titles of the signatories to the Basic Inter-Korean Agreement. Back in 1972, the July 4th North-South Joint Statement ambiguously stated the signatories, such as "Lee Hu Rak and Kim Young Ju, who uphold the will of the leadership." In the Basic Agreement, however, signatories were stipulated as "Chung Won Shik,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Yeon Hyung Mook, Prime Minister of the Cabine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Since then, all inter-Korean agreements, including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of 2000 (Pyongyang), the October 4th Joint Declaration of 2007 (Pyongyang), the April 27th Panmunjom Declaration of 2018, and the September 19th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2018, specify the official names of the ROK and DPRK as well as official titles of the signatories.

Likewise, the two Koreas' simultaneous joining of the UN and decision to specify the official names of the nations and titles of the signatories upon signing the Basic Agreement are another evidence of North Korea's shift in it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and view of unification.

4. Implications of the Revised Party Bylaws of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Thirty years after the two Koreas joined the UN together and adopted the Basic Inter-Korean Agreement, North Korea significantly revised the present purpose of the Workers' Party Rules during the 8th Party Congress in January 2021. Previously, the present purpose was specified as "building a strong and prosperous socialist nation on the Northern Half of the Republic and executing the task of the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on a national scale..." Through the 8th Party Congress, it is amended as "building a prosperous and civilized socialist society on the Northern Half of the Republic and realizing the independent and democratic development of society on a national scale..."

Over time, North Korea's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has been recognized as the concept of "red-colored unification" or "communist unification." At the 8th Party Congress in January this year, North Korea revised its Workers' Party Rules to delete the expression of the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and instead used the phrase "realizing the independent and democratic development of society.

This North Korea's transformation should not be regarded as an unexpected phenomenon. It is a shift that has been gradually taking place in its strategy toward the South over time through many occasions, including Kim II Sung's New Year's Address of 1988 showing fear of unification by absorption; his following New Year's Address of 1991 noting the loose federal system; the joining the UN and accepting the system of the two Koreas (September 18, '91); adopting the Basic Inter-Korean Agreement that prevents unification by absorption (December 13, '91), and; stipulating in the Article 2 of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of 2000 that the South and the North have agreed that there is a common element in South's concept of a confederation and the North's formula for a loose form of the federation and agreed to promote unification in that direction.

Some analyze that the deletion of the phrase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in the Workers' Party Rules revised in January 2021 is nothing but North Korea's disguised peace tactics against South Korea. However, given the changing dynamics in international affairs and the deepening gap in national power between the two Koreas since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it is unlikely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can afford this kind of tactics in disguise. Chairman Kim Jong Eun has entered his second term while there are signs of prolonged tens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over North Korean nuclear issues and when the US-China conflict is intensifying. Given that North Korea is more urgent to stabilize its internal system under such circumstances, Chairman Kim appears to have concluded that it would be a burden to present unrealistic visions such as "liberation of South Korea" or "communist unification" to the people.

Rather than assuming that North Korea is immutable, it will be a better approach to build our strategies inspired by our counterparts in dealing with North Korea and further pursue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도전과 기회-현인 대화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Sage Dialogue

주관기관 통일부

Organized by Ministry of Unification

좌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Moderator KIM Yeon Chul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패널 ⋅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Panelist • MOON Chung-in Sejong Institute, Chairman

•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극동연구소 북한센터장

 Alexander ZHEBIN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IFES) (Russia), Director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 LEE Jong suk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 닝푸쿠이 전 외교부 한반도사무부대표 및 전 주한 중국대사

 NING Fukui Former Deputy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Affairs of China and Former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 Joseph DETRANI Former Special Envoy for Six Party Talks with North Korea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1-1)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도전과 기회 – 현인 대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세의 분수령으로 판단되는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평화 담론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북핵과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대외환경에서 남북관계의 조기 복원 및 대북 대화 관여를 위해 한반도 문제 관련 저명한 국내외 원로 그룹('현인')을 초청하여, 하노이회담 실패 이후 바이든 행정부까지, 한반도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요인을 살펴보고,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함.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Sage Dialogue

At a turning point in crucial political landscape in not only South-North Korea relations and North Korea-U.S. relations, but also in achieving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is a need for close communic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S., and to continuously expand dialogue on peace to build permanent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are various thoughts and ideas regarding the international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round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sanctions. And in such uncertain external environment, the session invites a group of wise leaders ('wise men') on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home and abroad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and to engage in dialogue with North Korea by discussing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failure of the North Korea-U.S. Hanoi Summit to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seeking solutions for the Moon administration's pursuit of the peace process.

좌장 Moderator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KIM Yeon Chul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8)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통일연구원 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2001)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

Pro. Kim Yeon Chul obtained his B.A. from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Foreign Affairs, Sungkyunkwan University, and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same university (Aug, 1996). He served as a former chief researcher at the North Korea Studies Division,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 policy advisor to the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a president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and a Minister of Unification. Currently he i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Foreign Affairs in Inje University and a chairperson at the Korea Peace Forum. His publications include Economic Policy and Institutionalization of North Korea (2001), The Strategy of Negotiation (2016), and Dialogue of the Pre-70 years: Re-evaluating the History of Inter-Korean Relations.

패널 Panelist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MOON Chung-in

Sejong Institute, Chairman

문정인은 한국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다. 그는 연세대 교수, 크라우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글로벌정책전략대학원 박사, 영문 계간지 글로벌이시아 편집국장도 맡고 있다. 그는 APLN(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for Nuclear Demission and Non-Proliferation)의 부회장 겸 전무이사이다.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을 지냈고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담당 대사와 내각급인 대통령 직속 동북아협력구상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연세대 부임 전에는 미국의 켄터키대(University of Kentucky), 윌리엄스대(Williams College) 등에서 10여 년 간 교수로 봉직하였다. 현재까지 60여권의 국/영문 편·저서를 저술하는 동시에 국제 저명 학술지와 각종 논문집에 300여 편의 국, 영문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다.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으로서 참석하였고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의 펠로우, 한국평화학회 회장, 미국 국제정치학회 부회장직 역임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 관장과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하였다.

Moon Chung-in is special advisor to the ROK president for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He is also a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Krause distinguished fellow at School of Global Policy and Strateg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and editor-in-chief of Global Asia, a quarterly journal in English. He is Vice Chairman and Executive Director of APLN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for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He was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 and served as Ambassado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of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a cabinet-level post. Dr. Moon was a special delegate to the first (2000), second (2007), third Korean summit (2018) held in Pyongyang. He has published over 60 books and 300 articles in edited volumes and scholarly journals. His recent publications include The Handbook of Korean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Routledge, 2019), Bridging the Divide: Moon Jae-in's Korean Peace Initiative (Yonsei University Press, 2019), and The Future of East Asia (Palgrave-Macmillan, 2017).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도전과 기회-현인 대화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Sage Dialogue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평가와 전망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1,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 -목표: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공동 번영하는 한반도"

- 3개 원칙: 'No War, 평화 우선주의'/ 'No Nuke, 1991년 12월 31일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 고수/ 'No regime change' -2017년 7월 6일 베를린 선언 / 교류협력, 긴장 완화, 신뢰 구축

2. 문재인 정부의 평화전략:

- 1) Peace-keeping: 군사적 억지력 강화, 한국형 미사일 방어, 한미동맹 공고화
- 2) Peace-making: 긴장 완화, 신뢰구축, 종전선언,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
- 3) Peace-building: 한반도 신경제 지도. 평화 경제. 경제공동체. 한반도 분쟁의 구조적 원인 제거
- 4) Proactive diplomacy: 남북 및 주변 4강과 공조 하에 한국 주도의 평화구축 외교 전개

3. 위기의 2017

- 1) 북한: 탄도미사일 15회 시험 발사, 6차 핵실험 (수소폭탄), 적대적 공세 가시화
- 2) 미국: 예방전쟁, 선제타격, 코피 전략 등 '화염과 분노'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 고조
- 3) 중국: 싸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 미중 갈등 / 한반도와 미중 패권 경쟁 국내: 보수. 진보의 양극화 현상과 국민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

4. 희망의 2018

- 1) 평화 올림픽으로서의 평창 올림픽
- 2) 3월의 반전: 특사 방북, 방미
- 3)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 4)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선언
- 5) 9월 18일 20일 평양정상회담과 9.19. 선언

5. 2019년 2월 하노이 좌절

- 1) 2월 27일 28일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 2) 미국의 입장: Big Deal or No Deal (선 핵, 화생무기, 미사일 해체 후 보상)
- 3)북한의 입장: Small Deal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 대 제재 완화)
- 4) 한국의 입장: Good enough deal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로드맵과 시간표, 선제 조치)

6. 교착의 2019

1) 2019년 6월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한미군사분계선의 허구성과 상징적 의미/북미 간 실무접촉 합의/ 한미군사훈련. 연습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도전과 기회-현인 대화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Sage Dialogue

중단 합의 (북측 주장)/한미연합군사연습 실시와 북미 관계 교착

2) 2019년 10월 5일 스톡홀름 북미 실무 대화 (미측, '선 해체, 후 보상, 제재 완화' 입장 고수/ 북측, '선 적대시 정책 해소, 후 대화 복귀'입장 표명 스웨덴 측 2주 이내 대화 재개 중재 요구했으나 북측 거부/미국의 지속적 대화 재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 거부. 하노이 트라우마에 따른 의전적 보복 성격 강함/ 북의 정면돌파 의지와 미국의 대미 협상 의지 약화)

7. 단절과 대결의 2020년

- 1) 2020년 6월 4일 북 김여정의 담화. 적대적 삐라 살포를 이유로 남북 통신선 차단. 대남 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
- 2) 2020년 6월 16일, 개성 공단 내의 남북연락사무소 일방적 폭파
- 3)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북측 서해상에서 북에 의해 피살
- 4)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단절

8. 무엇이 문제인가?

- 1) 북한- 남과 미국에 대한 불신, 코로나 방역비상, 식량난, 장기 제재에 따른 경제적 난관- 대외 관계 보다는 내부 단속에 역점
- 2) 미국- 세 차례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압박 정책 유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책 기조의 변화 보이나 대북 제재를 유지하며 군사억제와 동맹을 기초로 한 북의 안정적 관리에 치중/ 북이 수용 가능한 구체적 incentive 제공 부재
- 3) 한국 판문점. 평양 선언 불이행. 남북관계 이행의 동력 상실

9.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구상 평가

- 1) Peace-keeping: 과감한 국방비 증액/ F-35, Global Hawk 등 첨단 무기획득/전반적 대북 억지력 증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심화/ 한미동맹 견고. 반면 북한의 대남 불신 증대/ peace-making, peace-building 과의 구조적 모순
- 2) Peace-making: 남북 군사합의 통한 비무장지대의 긴장완화, 신뢰구축 긍정적, 그러나 종전선언,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는 진전 없음/ 가장 큰 원인은 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와 그에 따른 남북 관계 경색에 있음/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병행 추진에 한계 노정
- 3) Peace-building: 평화 경제에 진전 없음. 국제제재가 남북 경제 교류협력에 주요 장애물로 등장하고 북의 실망감 고조.
- 4) Proactive diplomacy: 북미 핵협상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한국정부의 독자적 촉진자 외교 공간 축소. 미국은 100 퍼센트 한미공조 강조, 반면 북은 우리 정부의 자주성 결여를 이유로 대화와 협력 거부, 주도적 외교에 구조적 한계 노정.

10. 문재인 정부의 과제

- 1) 대미 설득 외교의 과제: Sigfried Hecker 교수와 Van Jackson 교수가 주장하듯이 '선 해체. 후 제재해제'라는 비핵화 패러다임에서 보다 유연한 핵 협상 (종전선언을 필두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북의 비핵화와 연계된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 협력적 위협감소 기금, snap-back 제재완화와 연계)으로의 전환 설득.
- 2) 대북 설득: 정상 간 대화 채널 등 남북 대화 채널의 복원/ 방문. 비무장지대 UNESCO 문화유산 등재. 철도 연결사업의 재개/판문점 선언, 평양선언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 재개
- 3) 대 중, 대 러시아 외교 설득 작업: 중러 유엔제재 완화 결의안의 보완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 모색/ 중국과 러시아의 보다 적극적 대북 중재 외교 권유
- 4) 국내적 합의 기반 모색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도전과 기회-현인 대화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Sage Dialogu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Evaluation and Prospects**

MOON Chung-in

Sejong Institute, Chairman

- 1. Moon Jae-in Administration's Korean Peninsula Peace Initiative-Objective: "Korean Peninsula with peace, coprosperity and no nuclear weapons"
 - 3 Principles: 'No War, Peace First' / 'No Nuke, Adherence with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dopted on December 31, 1991' / ' No Regime Change' - Berlin Declaration on July 6, 2017 / exchanges and cooperation, easing tension, and building trust

2. Moon Jae-in Administration's Peace Strategy:

- 1) Peace-keeping: strengthening military deterrence, Korean style missile defence, cementing US-Korea alliance
- 2) Peace-making: easing tension, building trust, end-of-war declaration, transition of truce declaration to peace treaty, building a sustainable peace regime
- 3) Peace-building: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economy, economic community, removing structural causes of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 4) Proactive diplomacy: rolling out Korea-led peace-building diplomacy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s well as the surrounding 4 powers

3. Year of Crisis, 2017

- 1) North Korea: 15 test launches of ballistic missile, 6th nuclear test (H-bomb), increasing visibility of hostile attacks
- 2) US: higher possibility of 'fire and fury' military response such as preventive war, preemptive strike, bloody nose strategy,
- 3) China: Korea-China conflict around THAAD, US-China conflict / US-China competition around Korean Peninsula and hegemony
- 4) Korea: polarization between conservatives and liberals, difficulties in forming national consensus

4. Year of Hope, 2018

- 1) Pyeongchang Olympics as Peace Olympics
- 2) 3Twist in March: special envoy's visit to North Korea and the US
- 3) Panmunjom Summit on April 27 / Panmunjom Declaration
- 4) US-North Korea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 and Singapore Declaration
- 5) Pyongyang Summit on September 18-20 and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n September 19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도전과 기회-현인 대화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Sage Dialogue

5. Hanoi Summit Collapse in February 2019

- 1) 2nd US-North Korea Summit in Hanoi on February 27-28
- 2) US Stance: Big Deal or No Deal (dismantle nuclear/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missiles first, reward later)
- 3) North Korea's Stance: Small Deal (complete dismantlement of Yongbyon nuclear facility VS sanctions relief)
- 4) Korea's Stance: Good Enough Deal (comprehensive agreement, step-by-step implementation, roadmap and timetable, preemptive measures)

6. Year of Stalemate, 2019

- 1) Inter-Korean Summit at Panmuniom in June 2019: [fictionality and symbolic meaning of Military Demarcation Line / US-North Korea working-level agreement / agreement to suspend ROK-US military exercise and drill (North Korea's argument) / launch of ROK-US Combined Forces military exercise and stalemate of US-North Korea relations
- 2) US-North Korea working-level talks in Stockholm on Oct 5, 2019 (US standing by its stance of 'dismantle first, reward and sanctions relief later' / North Korea expressing its stance of 'remove hostile policies first, return to dialogue later'. Sweden requested mediation to resume talks within 2 weeks but North Korea refused / North Korea refused repetitive requests by the US to resume talks, a reaction with strong nature of protocol revenge following the Hanoi trauma / weakening of North Korea's will for head-on breakthrough and the United States' will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7. Year of Severance and Confrontation, 2020

- 1) statement by Yo-jong Kim of North Korea on June 4, 2020, blocks inter-Korean liaison office citing hostile leaflet-scattering as the reason, defines its relations with South Korea as hostile relations
- 2) inter-Korean liaison office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unilaterally blown up on June 16, 2020
- 3) public servant working fo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ROK shot and killed by North Korea in the West Sea near North Korea in September 2020
- 4) inter-Korean relations and US-North Korea relations cut off

8. What is the Problem?

- 1) North Korea- mistrust toward South Korea and the US, COVID-19 pandemic control emergency, food crisis, economic difficulties due to long-term sanctions- focus on internal crackdown rather than external relations
- 2) US maintaining maximum pressure policy despite three summits / the Biden Administration showing some changes in policy direction, but still maintaining sanctions on North Korea while focusing on stable management of North Korea based on military deterrence and alliances / lack of any specific incentives that are acceptable by North Korea
- 3) South Korea- non-adherence with Panmunjom and Pyongyang Declarations, loss of momentum for developing inter-Korean relations

9. Assessment of Moon Jae-in's Korean Peninsula Peace Initiative

- 1) Peace-keeping: bold increase in national defence budget / acquisition of state-of-the-art weapons such as F-35 and Global Hawk / stepping up general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 intensification of Korean style missile defence system / solid Korea-US alliance. On the other hand, increase in North Korea's mistrust of South Korea / structural inconsistency in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 2) Peace-making: relief of tension along DMZ through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positive trust-building, but no progress in transition of truce declaration into peace treaty or building permanent peace regime / the biggest cause is the stalemate of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the following strain in inter-Korean relations / exposure of limitations in double-track strategy for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and denuclearization

한반도 평화와 한중일 협력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OK-Japan-China Cooperations

- 3) Peace-building: No progress in peace economy. International sanctions emerging as the main obstacle in inter-Korea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heightened disappointment felt by North Korea.
- 4) Proactive diplomacy: Stalemate of US-North Korea nuclear negotiations leading to shrinking diplomatic space of the Korean government as an independent catalyst. US emphasizing 100% Korea-US collaboration while North Korea refuses dialogue or cooperation, citing South Korean government's lack of autonomy. Exposure of structural limitations in playing a leading role in diplomacy

10. Tasks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 1) Diplomacy for Persuasion of the US: As Professor Sigfried Hecker and Professor Van Jackson claims, the US should be persuaded to transition from its current denuclearization paradigm of 'dismantle first, sanctions relief later' to a more flexible framework for nuclear negotiations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beginning with truce declaration, step-bystep reduction in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in sync with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progress. Collaborative threat reduction fund. Linkage with snap-back sanctions relief).
- 2) Persuasion of North Korea: Recovery of inter-Korean dialogue channels such as dialogue channels for the two leaders / visiting and registering DMZ as UNESCO cultural heritage, resumption of railway connection project / resumption of working-level negotiations for implementation of Panmunjom Declaration and Pyongyang Declaration
- 3) Diplomacy for Persuasion of China and Russia: Exploration of new breakthroughs through supplementation with China-Russia UN resolution for sanctions relief / suggesting China and Russia to adopt more play more active roles in diplomacy as intermediaries of North Korea
- 4) Seeking Foundation for Domestic Consensus in South Korea

패널 Panelist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극동연구소 북한센터장

Alexander ZHEBIN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IFES) (Russia), Director

학력	- 1975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 졸업
	1000	

-1998극동문제연구소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주요경력 -1978-1979타스통신 평양 특파원

> -1983-1990타스통신 평양사무소 소장 -1992 - 1998극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1993-1994고려대 방문학자 -1997통일연구원 방문학자

- 1998-2001 주북한 러시아 대사관 1등 서기관 및 참사관

- 2004-현재 극동문제연구소 한국학 센터장

- 연구 분야: 북한의 정치, 북-러 관계, 한반도 안보 등 특기사항

- 주요 저서: "국제변화의 영향 하 북한정치체제의 진화」(2006, 노어), "평양, 그리고 모스크바』(1991, 한글)

Academic **Background**

- 1975 Graduated from Moscow National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MGIMO) 1975
- 1998 Got a Ph.D. in Political Science at the Far East Research Institute 1998

Career

- 1978 1978-1979 Pyongyang Correspondent, Tars News Agency
- 1983 1983-1990 Head of the Tars Pyongyang Office
- 1992 1992-1998 Senio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 1993 1993-1994 Korea University Visitor
- Visiting scholar at the Korea Institute for Unification 1997
- 1998 First secretary and diplomat of the Russian Embassy in North Korea, 1998-2001
- 2004 2004-Current Director of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the Far East Research Institute

Specialties

- Research: North Korean politics, North Korea-Russia relations,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etc.
- Major books: "The Evolution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under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Change" (2006, North Korea), "Pyongyang, and Moscow" (1991, Korean)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도전과 기회-현인 대화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Sage Dialogu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lexander ZHEBIN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IFES) (Russia), Director

1. International Aspects of Peace Process

Time and again encountered problems and difficulties we uncounted in the process of the settlement of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makes us to conclude that without solution of a certain key problem, directly related to the region's future security architecture as a whole, we will continue incessantly stumble on minor problems and will not be capable to tackle them.

The fundamental issue which any future peace proces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denuclearization and re-unification of Korea should address to is finding an acceptable for four "big countries" – the U.S., China, Russia and Japan - place for the re-unified Korea in the future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Short of the such vision each and every participant of any future settlement will remain very suspicious about other participants' plans and actions.

It is open secret that many politicians and experts in the US, the ROK and Japan believe that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ill finally bring about emergence of the re-unified Korea as a member of the tripartite alliance of US-Japan-ROK. For such re-unified Korea had been already assigned a mission to retain U.S. military presence on the peninsula and to play a role of a "global partner of the US in world affairs".

But it is highly unlikely that such development to be welcomed in Moscow and Beijing. Both countries are likely to perceive such a triangle as a deterrent against Russia and China. Such an alliance would be tantamount to the emergence on Russia's Far Eastern borders an Asian clone of NATO. The more so that the new block will be protected by THAAD system which is actively deployed by the U.S. and their allies in the region.

Plans to use the re-unified Korea as de-facto a forward base of maritime powers -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against continental - China and Russia can hamper and is already hindering the solution of the nuclear problem,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and sustainable peace system in Northeast Asia, and the re-unification of Korea itself.

Exactly absence of joint, mutually acceptable vision for both Koreas or the re-unified Korea' place in future security architecture in Northeast Asia remains a major reason for drastic lack of coordinated actions by the U.S, China, Russia and Japan in resolving nuclear issue and ensuring a sustainabl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bove mentioned four "big countries" together with both Koreas should launch a second track dialogue for relevant discussion on the issue.

2. Peaceful Coexistence and Economic Cooperation

Lessons of Germany's unification and regime change scenarios imposed by the U.S.A. and its allies on the Balkans, in Iraq and Libya alarmed North Korea's leaders. Unless the North Korean elite would be provided with clear guarantees of their personal safety, adequate social status and a certain level of well-being after unification, it would stay united and remain very reluctant to open the country and abandon nuclear weapons.

Only inviting in honest North Korea to participate in realization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economic projects in NEA, including those proposed by Russia, can convince Pyongyang that international community had taken on a road leading to the DPRK's gradual and peaceful integration in existing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instead of forcing on the country a regime change scenario. Besides, economic cooperation will help to develop the DPRK's economy, to make the North Koreans more prepared to live in a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도전과 기회-현인 대화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Sage Dialogue

modern society. In other words, it will help to lessen the existing gap between two parts of the country and to cut down unification cost. During the process, it will help to enlarge in the North ever growing strata of people interested in stable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outside world.

To ensure a sustainable process of peaceful coexistence and economic cooperation remains a major challenge in inter-Korean relations

3. Sanctions and Pressure: Waste of Time

A major lesson that could be drawn from the history of the Korean settlement is that the priority given by some countries to pressure and sanctions in order to make North Korea to disarm has proved to be wrong. It is impossible to deny that the course has failed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contrary, when faced with such an attitude, North Korea during 2006-2017 periods conducted six nuclear tests and after several unsuccessful attempts finally succeeded in launching two satellites. The country has become de facto a nuclear-missile power. A history of impos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makes one recollect the famous saying on futility of attempts to do the same thing and expect a different result.

Meanwhile experience of dealing with the DPRK testifies that excessive pressure and coercion had led, in majority of cases, to greater suspicion and hostility, while engagement and respect for certain positions shaped by history's legacies, brought about cooperation and compromise. Sure, North Korea is not an easy partner to deal with. We in Russia know it better than anyone else. But, if the military option is excluded, any political solution will not be possible without certain compromises.

The North Korean leader has already sent an encouraging signal to the world by promising that the DPRK is going to be "a responsible nuclear state" and will not proliferate her WMD. In fact, the statement can be interpreted as Pyongyang's promise to abide with non-proliferation regime while formally remaining outside of the NPT.

Calls for the DPRK to take practical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would look more convincing if they were accompanied by definite unilateral or multilateral commitments by the nuclear powers about her security and her right to develop peaceful nuclear program. In the meantime, North Korea is presented with quite a voluminous set of requirements along with very vague promises that are supposed to flesh out only after it completely disarms.

The mutual respect for the legitimate concerns of the parties in the field of security and cessation of the economic blockade of North Korea would make two absolutely essential elements of any future compromise.

4. Task for the Koreans

Time and again suspension of negotiating process on the nuclear problem provide South and North Korea with unique chance through their own combined efforts to size leadership in removing threat of another major conflict, promoting peace and common prosperity. Three inter-Korean summits of 2018 confirmed that the inter-Korean dialogue has all chances to become a major channel for promoting security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ialogue is vitally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uneasy situation on the peninsula.

The best option for the Koreans both in the South and in the North would be to resume working on implementation of the bilateral agreements and understandings reached by their leaders at various summits and talks held during several previous decades, including those agreed upon at the summits held in 2018. It is high time for the Koreans to take their nation's destiny in their own hands.

Russia hopes that the unified Korea will become her good neighbor and a major economic partner. Emergence of such an actor in the region is perceived as favorable for Russia both from security and economic points of view. Russia's Foreign Policy Concept, approved by President Vladimir Putin in 2016 states that "Russia is interested in maintaining traditionally friendly relations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will seek to ease confrontation and de-escalat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achieve reconciliation and facilitate intra-Korean cooperation by promoting political dialogue."

패널 Panelist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LEE Jong suk**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1984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 들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학문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정형화된 북한론을 개혁하여, 북한에 대한 내재적비판적 접근을 강조하며 북한, 남북관계, 북중관계를 연구하였다. 석사학위 논문은 〈북한지도집단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연구〉이며 박사학위 논문은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1989년부터 1996년까지 경희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의 강사를 역임하였다. 1994년에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 연구위원을 맡아(~ 2003년) 한층 전문적으로 북한의 정치와 남북관계를 연구하여, 이때부터 대북 포용정책을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주장하게 된다. 1995년에는 《조선노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와 《현대 북한의 이해》를 저술하였으며 1998년에는 《분단시대의 통일학》, 2000년에는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북한-중국 관계: 1945-2000》를 저술하였다. 1995년에는 통일부의 정책자문위원(2003년까지)을 맡았고, 김대중 정권이 탄생하자 한국정부가 채택한 햇빛정책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대통령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김대중대통령과 동행하여 평양을 방문하였다. 그 후 노무현 정권 때인 2003년 3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차장으로 임명되었다. 2006년 2월에 제32대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었고,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그 해 12월 장관직을 물러나 세종연구소로 복귀하였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동안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방문교수로 한반도와 동이시아 문제를 연구하였다. 현재 세종연구소에서 수석연구위원 겸 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중이다.

In 1984, he graduated from Sungkyunkwan University'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entered the political department of the same school graduate school, where he became interest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y reforming the North Korean theory, he studied North Korea, North-South relations, and North-China relations, emphasizing an implicitly noncommercial approach to North Korea. The master's thesis is "A Study on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Group's Anti-Japan-Based Disputes", and the Doctoral Disso doctoral thesis is "A Study on The Leadership and Structural Change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From 1989to 1996, he served as a lecturer at Kyunghee university, Sogang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ungkyunkwan University.

In 1994, he was a research fellow in the Research Office of North-South Relations at the Sejong Institute (~2003) and studied North Korea's politics and North-South relations more professionally, from which he became a full-time media captain in his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1995, he authored "The Study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Centered on The Guided View and Structural Change" and "Understanding Modern North Korea," and in 1998he authored "The Unification of The Division Era," "ANew Modern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 1945-2000." In 1995, he was a policy member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until 2003) and strongly supported the sunshine policy adopt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en the Kim Tae-china regime was born. At the 2000North-South summit, he accompanied President Kim Tae-jung to Pyongyang as a special presidential officer. He was then appointed deputy secretary general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in March 2003, during the Labor County regime. In February 2006, he was appointed to the 32nd Minister of Unification, and in the aftermath of North Korea's nuclear test, he stepped down from his ministerial position in December of that year and returned to the Sejong Institute. From 2008 to 2009, he studied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n issues as a visiting professor at Stanford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for a year. He is currently a senior researcher and chairman of the Development Committee at the Sejong Institute.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도전과 기회-현인 대화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Sage Dialogue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도전과 기회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의 조건

- 비핵화 협상의 재개와 북핵 문제의 진전
- 북미 간 불신 해소
 - •북미 간 불신이 극도로 깊은 상태
 - 이러한 상황에서는 빅딜이나 선 핵포기 등은 실현 불가능
 - •신뢰 부재 상태에서 진행된 대북 제재의 강화는 역설적으로 그때마다 북한의 반발로 인해 북한의 핵 능력을 강화시켜 왔음
- 북미가 서로 상대에서 원하는 것을 주고받기
 - •미국은 북한의 핵포기 원함
 -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대북 경제제재의 해소

2. 북핵 협상의 방향

- 스냅백(snap back) 조치 전제의 단계적 동시행동
 - •북한의 핵능력, 북미 간의 낮은 신뢰, 비핵화 조치 이행검증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접근이 유일한 해법임
 - •스냅백을 전제로 일련의 핵폐기 조치-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스냅 백 조치가 있는 한, 중도에 북한이 합의 위반을 해서 스냅백 조치가 발동하는 경우 북한이 더 큰 손해. 즉 북한의 비핵화조치는 시설, 설비 폐기 등 비가역적인데 비해 미국이 조치는 제재완화(가약적)
- 비핵화 1단계 : 기존 논의(혹은 미준수 합의) 내용 일괄 교환
 - •기본 방향
 - 북한의 하노이 회담 제안 내용, 9.19 평양남북공동선언 내용,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관심사 반영
 - •북한 측 조치
 - ▲ 북한이 기존에 조건부 포기 의사 밝힌 항목들
 -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 영구 폐기
 - -- 미국 전문가들 입회하에 북미 공동작업으로 영구폐기
 - ※ 영변 핵단지는 5MW원자로, 원심분리기, 핵연료제조 공장, 재처리시설, 신형 경수로 등이 밀집한 북핵 프로그램의 심장
 -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영구 폐기(9.19 평양공동선언)
 - ▲ 미국 민주당 관심항
 - 핵 및 ICBM 개발 동결
 - •미국 측 조치
 - −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내용(2270호 2375호 등) 중 민수경제 분야 제재 항목 해제
 - 북한에 대한 에너지(석유) 지원: 동결에 대한 보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도전과 기회-현인 대화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Sage Dialogue

■ 1단계 이후: 다단계 동시조치

- •북한 조치
- 추가 의심 시설. 기생산된 핵물질과 핵탄두. 장거리 미사일 관련 시설. 장거리 미사일 등에 대한 단계적 폐기
- •미국 상응조치
-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단계적으로 완전해제
- •비핵화 단계 진전에 따라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추진

3. 북한은 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교환할 용의가 있나?

- •북한은 국가전략노선을 기존의 군사력 건설 중심에서 경제건설 총력집중으로 전환한 후 그동안 핵 보유를 절대시했던 입장에서 '경제발전과 안전보장이 실현될 수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식으로 핵보유에 대해 '상대적 입장'으로 변화.
- •북한은 '핵포기를 통한 경제발전'을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나왔음.
-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제재 해제없이 자신이 꿈꾸는 고도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식. 그리고 고도 경제성장은 비핵화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
- 그래서 김정은 사실상 비핵화 조건으로 경제제재 해제와 안전보장 제시(논리적으로 제재 해제 단계는 안전보장 역시 실현 단계)
-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김정은이 진정 핵을 포기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도전과 기회-현인 대화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Sage Dialogu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LEE Jong suk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1. Conditions for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to Work

Resumption of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progress in North Korea's nuclear issues

■ Alleviation of mistrust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 Mistrust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is extremely deep.
- Achieving a Big Deal or denuclearization first is impossible under this circumstance.
- Reinforcing sanctions on North Korea in the absence of trust has paradoxically led to North Korea further boosting its nuclear capability in resistance every time
- US and North Korea Exchanging what the other party wants
 - •The US wants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program
 - · What North Korea wants above anything else is economic sanctions to be lifted

2. Direction of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Step-by-step simultaneous action on the premise of 'snapback clause

- Step-by-step approach is the only solution, considering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low level of trus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complexity of verifying implementation of denuclearization measures.
- Step-by-step implementation of a series of denuclearization measures-corresponding measures on the premise of a snapback clause
- As long as the snapback clause is in place, North Korea breaking its agreement will activate the clause, leading to a greater loss on the North. In other words, denuclearization measures by North Korea such as dismantlement of facilities are irreversible while corresponding measures of sanctions relief by the US is reversible.

1st stage of denuclearization: en-bloc exchange of what was discussed previously (or non-complied agreements)

- · Basic direction
- North Korea's proposals during the Hanoi Summit, Sept 19 Pyongyang Joint Declaration, incorporation of the US Democratic Party's traditional interests
- · Measures by North Korea
- ▲ Items that North Korea expressed its will for conditional implementation
- Permanent dismantlement of all nuclear material production facilities, including for Plutonium and Uranium, at Yongbyon nuclear facility
- Permanent dismantlement through North Korea-US joint work in the presence of US experts
- * Yongbyon Nuclear Scientific Research Center is the hear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ith 5MW nuclear reactor, centrifuge, nuclear fuel manufacturing plant, reprocessing facility, new light-water reactor, etc.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도전과 기회-현인 대화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Sage Dialogue

- Permanent dismantlement of Dongchang-ri engine test and launch site(Sept 19 Pyongyang Joint Declaration)
- ▲ Items of interest for the Democratic Party of the US
- Freezing of nuclear and ICBM development
- · Measures by the US
- Lifting of sanctions related to the civilian economy among the five UN Resolutions concerning sanctions on North Korea adopted in 2016 and 2017 (Resolution 2270, 2375, etc.)
- Energy (oil) assistance for North Korea: reward for freezing nuclear program
- After the 1st stage: multi-step simultaneous measures
 - · Measures by North Korea
 - Step-by-step dismantlement of additional suspicious facilities, nuclear substances and warheads already manufactured, facilities related to long-range missiles, and long-range missiles, etc.
 - · Corresponding measures by the US
 - Step-by-step complete lifting of sanctions in accordance with additional denuclearization measures by North Korea
 - •Driving normalization of US-North Korea relations and signing of a peace treaty in accordance with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stages

3. Is North Korea willing to trade denuclearization for lifting of sanctions?

- · Since North Korea shifted the focus of its national strategy from building military power to building the economy, it has changed its stance toward nuclear ownership from viewing it as a must to a 'relative stance' of thinking 'we can denuclearize if it brings economic development and security assurance.'
- North Korea came to the table for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seeking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sanctions relief' rather than a final decision of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nuclear dismantlement.'
-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recognizes that the high level of economic growth that he envisions is not possible without lifting of the sanctions. He also knows that a high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s possible only through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 This is why Kim Jong-un proposed lifting of economic sanctions and security assurance as the de-facto conditions for denuclearization.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security assurance is one of the stages of sanctions relief)
- We will know if Kim Jong-un will truly give up his nuclear program only after these two conditions are met.

패널 Panelist



닝푸쿠이 전 외교부 한반도사무부대표 및 전 주한 중국대사

NING Fukui

Former Deputy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Affairs of China and Former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닝푸쿠이는 1955년생으로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과를 졸업했다. 1976년 중국 외교부에 입부하여 아시아사 처장, 주북 중국대사관 참사관, 외교부 아시아사 부사장, 주캄보디아 중국대사, 외교부 한반도담당대사(6자회담), 주한 중국대사, 외교부 국경과해양담당 사장, 주태국 대사, 외교부 한반도사무부대표를 역임했다.

He is Former Deputy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Affairs of China. After graduating from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Kim II-sung University, he enter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76, and later served as Director in the Department of Asian Affairs, then Counselor at the Chinese Embassy in the DPRK. He was appointed as Deputy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Asian Affairs (1995), Ambassador to the Kingdom of Cambodia in 2000, Ambassador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or Korean Peninsula Affairs (2003),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2006), Director-General of the Department of Boundary and Ocean Affairs (2009), Ambassador to Thailand (2013), Deputy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Affairs of China (2018).

패널 Panelist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Joseph DETRANI** Former Special Envoy for Six Party Talks with North Korea

디트라니 대사는 대니얼 모건 국가안보대학원 원장으로 역임했으며 그 이전에는 전문 싱크탱크인 정보국가안보동맹(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Alliance) 원장으로 근무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그는 북한과의 6자회담 특사와한국에너지개발기구 (KEDO) 미국 대표였다. 이후 디트라니 대사는 국가정보국 부국장으로 임명됐다. 2010년에는 국가대확산센터장과 국가정보국장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디트라니 대사는 고위 정보국 소속으로 중앙 정보국에서 20년 넘게근무했다. 그는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과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그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외교 관계 위원회의 멤버이다. 그는 북한, 중국, 핵 비확산과 관련된 이슈들을 광범위하게 발표했다.

Ambassador DeTrani was President of the Daniel Morgan Graduate School of National Security and prior to that was the President of the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Alliance, a professional Think Tank. From 2003-2006, he was the Special Envoy for Six Party Talks with North Korea and the U.S. Representative to the 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Ambassador DeTrani was then appointed as an Associat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d Mission Manager for North Korea. In 2010 he was the Director of National Counterproliferation Center and Special Adviser to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mbassador DeTrani served over two decades with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s a member of the Senior Intelligence Service. He was an officer in the Air Force and a distinguished military graduate at New York University (NYU). He attended NYU School of Law an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e's a fluent Mandarin Chinese speaker and a member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e has published extensively on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 China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한반도 평화와 한중일 협력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OK-Japan-China Cooperations

주관기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Organized by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FES), Kyungnam University

좌장

이관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Moderator

Presenter

LEE Kwan-Sei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Director

발표

- •에바 모틸리스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Ewa MOTYLINSKA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Visiting Research Fellow
- 히라이 히사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HIRAI Hisashi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Visiting Research Fellow

토론

Discussant

- 빠벨 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Pavel P. EM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Visiting Research Fellow
-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 CHO Jin-Goo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량미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 LIANG Meihua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Visiting Research Fellow
- 이병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 LEE Byong-Ch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 · Joseph DETRANI Former Special Envoy for Six Party Talks with North Korea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1-2)

▮ 한반도 평화와 한중일 협력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권과 달리 동맹국과 협력하면서 안전보장문제 이외에 환경, 인권 등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중국과 대항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은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세션에서는 동북아시아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안보문제의 현안인 북한의 핵문제와 경제적 상호의존에 수반하여 국경을 초월한 지역의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OK-Japan-China Cooperations

Unlike Trump's, the Biden administration seeks to confront China by giving priority to working with allies while upholding the values of environment issues, human rights and security issues. Both South Korea and Japan, with a high economic dependency on China, are faced with a difficult situation in their strategic foreign policy towards the U.S. and China.

In this session, we aim to examine how ROK-Japan-China should cooperate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which is the Northeast Asian agenda and global security issue, and the environmental problem that is emerging as an important transnational problem in Northeast Asia due to economic interdependence.

<u> 좌장 Moderator</u>



이관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LEE Kwan-Sei**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Director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으로서 각종 연구서 발간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 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있었다. 통일부 대변인, 정보분석국장, 통일정책실장, 남북회담본부장 및 17대 통일부 차관을 역임했다. 18차, 19차, 20차 남북장관급 회담 대표를 역임했으며, 제2차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수석대표 및 남북정상회담 선발대 단장을 맡았다.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 수석대표, 대한적십자 총재 특별보좌역(남북교류담당),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자문위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현지지도를 통해 본 김정일의 리더십』, 『동아시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미래』(공저),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 변화』,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공저) 등이 있다.

Dr. LEE Kwan-Sei is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and Chair Professor of the Graduated School of North Korean Studies at Kyungnam University. He previously studied at the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s a visiting Scholar. He had served in key posts i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ncluding the 17th ROK Vice Minister of Unification, Head of the Office of Inter-Korean Dialogue, Director General for Unification Policy, Head of the Intelligence and Analysis Bureau, and Ministry of Unification spokesperson. He also served as a representative in the 18th, 19th, and 20th Inter-Korean Ministerial Talks, and was the head of the advance team for the Inter-Korean Summit. He is a member of various 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s such as the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Foundation.

발표자 Presenter



에바 모틸리스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Ewa MOTYLIŃSKA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Visiting Research Fellow

에바 모틸리스카는 한국 서강대학교 국제관계학 Ph.D. 후보생이다. 한국외국어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폴란드 포즈난의 아담 미츠키에비츠 대학에서 한국어문학 학사를 받았다.

현재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 초빙연구원으로 있으며 과거 적대국 간 국경을 넘는 협력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것이 분쟁의 양상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평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기존 기억 연구의 서구중심주의에 도전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집단학살, 식민주의, 전쟁 관련 기억에 대한 담론을 탈영토화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Ewa MOTYLI SKA is a Ph.D. candidat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t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She holds a MA in Sociology fro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a bachelor's degree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from Adam Mickiewicz University in Poznan, Poland.

Currently, as a visiting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she focuses on transboundary cooperative projects between former adversary countries and assesses their conflict transformation potential.

Previously she worked as a researcher in the Critical Global Studies Institute at Sogang University, where she has been engaged in research projects aimed to challenge the western-centrism of existing memory studies and deterritorialize the memory discourse surrounding colonialism, war, and genocide since World War .

한반도 평화와 한중일 협력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OK-Japan-China Cooperations

갈등전환도구로서 환경협력 〈유럽 내 국가 간 협업사업 및 한반도의 함의〉

에바 모틸리스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수년 간의 외교적 노력을 비롯해 최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몇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며 형성된 긴장 완화 분위기가 가져온 희망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반도 정세는 다시 암울해 보인다. 본 연구는 한반도 70년 갈등의 변혁에 대한 비전통적 접근, 즉 환경협력이 남북 갈등의 전환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탐구한다.

본 연구는 다방면의 요소를 결합한 IR 접근, 2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중 사례 연구 및 북한 관련 기관 대표들과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정치적 함의가 덜한 분야에서 대북 관여가 가능하고 의미있을 수 있으며, 정책 교류는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물질적 인센티브가 대북 교류를 위한 중요한 동인이기는 하지만 국제적 관여의 유일한 동기는 아님을 보여준다.

한반도 평화와 한중일 협력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OK-Japan-China Cooperations

Environmental Cooperation as a Conflict Transformation Tool <Transboundary Collaboration Projects in Europe and</p>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

Ewa MOTYLIŃSKA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Visiting Research Fellow

Despite years of diplomatic efforts, and most recently the hope related to the détente starting with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 2018 followed by several inter-Korean and North Korean – US summits, in 2021 the politic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looks bleak again. This study explores non-traditional approaches toward a transformation of 70-years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namely whether environmental cooperation could be an instrument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eclectically combined IR approaches and multiple-case studies based on the secondary data as well as on direct interviews with representatives of organizations engaged in North Korea, the study examines that in less politically-laden field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can be possible and meaningful, and the policy exchange can flourish even under difficult political circumstances. It also shows that, while material incentives are an important driver for exchanges with North Korea, they are by far not the only motivation for international engagement.

발표자 Presenter



하|라이| 하|사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방연구위원

HIRAI Hisashi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Visiting Research Fellow

1975년 교도 통신사 입사. 외 신부, 서울 지 국장, 베이징 특파원,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을 거쳤다. 2002년 선양(瀋陽) 사건 보도로 일본신문협회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선양 사건과 북한 경제개혁 등 보도로 본・우에다(ボーン・上田) 상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는 『서울 타령: 반일과 혐한의 틈바구니에서』(德間書店, 1993), 『일한 교육 전쟁: '무지개'와 '별'이 수놓은 다리』(徳間書店, 1995), 『코리아 타령: 상당히 다이내믹한 한국인의 현주소』(ビジネス社, 2005), 『왜 북한은 고집하는가: 김정일, 파국으로 향하는 '선군체제'』(新潮社, 2010), 『김정은 체제: 북한의 권력구조와 후계(원제: 北朝鮮の指導□制と後繼: 金正日から金正恩へ)』(한울, 2012; 岩波書店, 2011) 등이 있다.

HIRAI Hisashi is Visiting Research Fellow,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and a Contributing Editorial Writer of Kyodo News, Japan. He graduated from Waseda University department of law in 1975. He has worked in Kyodo News since 1975 in the foreign news section, also served as the manager of Seoul Branch, and correspondent at Beijing. He became a Senior Feature Writer and an Editorial Writer in 2007, and left Kyodo News in 2012. He was awarded the Japan Newspaper Publishers and Editorials Association Prize in 2002 for the Shenyang Incident (the incident in which defectors from North Korea ran into the Consulate General of Japan in Shenyang, China). Also in 2002, he was awarded the Vaughn-Uyeda Prize for his news reports about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Shenyang Incident and the economic reforms in North Korea.

His selected publications include the Seoul Taryoung —beyond the anti-Japan and hate Korea (Tokuma Shoten Publishing, 1993), the Japan Korea Child Rearing Battle (Tokuma Shoten Publishing, 1995), Korea Taryoung —Too Dynamic Koreans' Addresses (Business-Sha, 2005), Why do North Korea Isolate —Kim Jung-il, the Collapsing Military Priority System (Shinchosha Publishing, 2010), Leadership System and Heir of North Korea —from Kim Jung-il to Kim Jong-un (Iwanami Shoten, 2011).

한반도 평화와 한중일 협력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OK-Japan-China Cooperations

바이든 정권의 대북 정책과 북핵문제, 그리고 일본의 역할

히라이 히사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바이든 미 행정부는 5 월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의 기조에 대해 ① 동맹 중시, ② 북한과의 '외교'(대화) 우선, ③ 과거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 합의 존중, ④ 남북 대화 지지, ⑤ 사전 실무 협의 중시, ⑥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약속을 전제로 한다면 정상회담을 배제하는 일은 없다는 등의 방침을 제시했다. 그런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① 경제 제재의 견지, ② 대화 자체에 대한 대가는 없음, ③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계속 등 북한이 '적대시 정책'으로 인식하는 문제에 관해해서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미 대화 방법과 관련해 예상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북한이 조기에 대화에 응하도록 기다릴 것이나 북한이 비핵화에 쉽게 응할 것이라는 환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대북 정책'의 큰 윤곽이 드러났지만. 북한 측과 '무엇'과 '무엇'을 어떻게 거래할 것인지 등 단계적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불분명하다.

- ◆ 북한은 올해 1월 개최한 제8차 당대회에서 경제 제재의 장기화를 전제로 자력갱생에 의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채택했지만, 첫해의 집행 계획을 2월에 수정, 첫해 경제 계획의 착실한 수행을 인민에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제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북-중 무역 급감, 지난해의 수해와 올해 가뭄의 가능성 등으로 '식량 위기'를 자인할 정도로 북한 국내는 엄중한 상황이다. 북한은 바로 북미 대화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천명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군사적 도발은 삼가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장기전을 각오하고 중국에 접근하고 있지만,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등으로 북-중 무역의 본격적인 재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한국에 있어서의 '변수'는 내년 3월 대선이며, 일본에 있어서의 '변수'는 10월에 임기가 끝나는 중의원 선거의 결과이다.

북한은 납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베 정권의 외교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스가 정권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북일 협상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차기 정권이 보수 정권이 될지 진보 정권이 될 지와 더불어 올해 가을 일본에서의 정권 교체 여부를 북한은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진보 정권 지속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북한의 대남 접근에 전술적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에 대한 자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한반도 정책은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 제일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트럼프 정권조차도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없었다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아베 정권의 움직임과 볼튼 보좌관의 방해가 없었다면, 하노이 회담의 완전한 결렬은 없었을 것이다. '볼튼 회고록'은 아베 총리와 야치 쇼타로 국가 안보 국장의 대미 제의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음을 폭로했다. 동맹 경시를 지향한 트럼프 정권이 이렇게까지 일본 정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예상도 하지 못했다.

한반도 평화와 한중일 협력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OK-Japan-China Cooperations

◆ 올해 1월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권이 등장했다. 바이든 정권의 제 1의 목표는 중국이며 북한이 아니다. 미국의 대중 포위망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원래 일본의 아이디어였다는 배경을 생각하면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 일본의 정책을 중시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3월 한국 대선 결과와 일본의 중의원 선거 결과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스가 내각 지지율 하락세로 선거 후 퇴진할 가능성은 있지만, 자민 ㆍ 공명 연립 정권이 지속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 교체 없이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역사 인식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

한편,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요인을 고려해보면 일본이 한국을 능가한다. 일본은 단독으로 북한의 외교 정책이나 핵·미사일 문제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거의 수행할 수 없으나 미국의 정책은 일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일본은 수면 위에서는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만약 보수 정권이 탄생하면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임에도 한미일의 대북 정책은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을 향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한국에서 진보 정권이 계속된다면 대북정책에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 복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역사 문제와 관련한 갈등은 한국 정부의 보수·진보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대북 정책은 한국의 차기 정권이 보수가 될지 진보가 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 정권이 계속된다면 역사 문제와 북한 문제 등의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에 의한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해질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한중일 협력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OK-Japan-China Cooperations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n Policy, North Korean Nuclear Issues, and Japan's Role

HIRAI Hisashi

Visiting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 On multiple occasions including the U.S.-Korea Summit in May, the Biden Administration proposed the direction of its North Korean policy including focus on alliance, 'diplomacy' (dialogue) with North Korea first, respect for the Singapore Agreement and Panmunjom Declaration, support for inter-Korean dialogue, emphasis on preliminary working-level negotiations, and not ruling out the possibility of a summit on the premise of a concrete commitment toward denuclearization. Meanwhile, it maintains the existing stance regarding policies that North Korea perceives as "hostile" such as continued economic sanctions, no reward for dialogue only, and continued joint R.O.K.-U.S. military drill.

The U.S. is adopting a more flexible attitude than expected concerning its approach to U.S.-North Korea dialogue, waiting for North Korea to engage in the dialogue early on, but considers it necessary to take a long-term and calibrated approach rather than developing a fantasy that North Korea will willingly accept denuclearization. Though the big outline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new North Korean policy' has been identified, the specifics of calibrated negotiations such as 'what' and 'what' to exchange with North Korea in which manner remain unclear.

- ◆ During North Korea's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in January this year, 'the 5-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driven by self-rehabilitation was adopted on the premise of prolonged economic sanctions, but the first year's execution plan was revised in February and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appealing for people to take an active part in fulfilling the economic plan for the first year. However, the domestic circumstances in North Korea are bleak, including a rapid decrease in trade with China following prolonged COVID-19 pandemic as well as last year's damage from flood and the possibility of drought this year, which led to their own acknowledgement of a 'food crisis.' North Korea proclaims that it does not intend to engage in the U.S.-North Korea dialogue while refraining from any military provocation above a certain degree. It is approaching China with the expectation that the confrontation with the U.S. will be prolonged, but resumption of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s not easy due to the pandemic among other reasons.
- ◆ Against this backdrop, the roles of Korea and Japan are limited. The 'variable' for Korea is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March next year while the 'variable' for Japan is the election of members for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whose term ends in October. Meanwhile, any possibility for North Korea-Japan negotiation seems highly unlikely considering North Korea's claims that the abduction issue has been resolved while refusing to deal with the Suga regime that is carrying on the same foreign policy track of the Abe Administration.

North Korea is sure to have its eyes on whether the next administration of Korea will be from the conservative or liberal camp, as well as the outcome of Japan's upcoming election in fall. North Korea may adopt a changed tactic in relation to Korea with its expectation for another liberal regime to take office, but its attitude toward Japan is unlikely to change in general.

The Korean peninsula policy of both Japan and Korea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Biden Administration that values alliances. Even the Trump Administration that put forth 'America First' as its slogan would not have been able to successfully hold its summit

한반도 평화와 한중일 협력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OK-Japan-China Cooperations

with the North in Singapore without active mediation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Likewise, without the movement by the Abe Administration and interference by Bolton, the Hanoi Summit wouldn't have collapsed completely. 'Bolton's memoir' exposed that the proposal by Prime Minister Abe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 Shotaro Yachi far surpassed our imagination. Nobody could have expected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ith its disregard for alliances would have been influenced as such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en, in January this year, the Biden Administration that values alliances was inaugurated. Its first goal was not China nor North Korea. Considering that the 'Indo-Pacific Strategy' aimed at curbing the influence of China was originally Japan's idea,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U.S. will have a heavy concern for Japan's policy in shaping its own North Korean policy. In this context, the outcome of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in March next year and House of Representative election in Japan w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North Korean policy of the U.S. There is a possibility of the Suga cabinet leaving office after the election considering the falling approval rating, but it will not change the fact that the LDP-Komeito coalition government will continue. Without a regime change, it is unlikely for Japan's historical perception toward the Korean peninsula will change.

Meanwhile, in terms of the influence on the North Korean policy of the U.S., Japan surpasses Korea, considering the stronger alliance between the U.S. and Japan. While Japan cannot play much direct role in terms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or nuclear missile issues, it will greatly influence the U.S. policy. Japan may appear lethargic on the surface of the water but underneath, it is exerting influence.

If the next regime in Korea is a conservative one, the North Korean policy of Korea, the U.S. and Japan will head toward more or less the same direction despite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at are more strained now than ever.

On the other hand, if another liberal administration takes office in Korea, any meaningful progress in the North Korean policy must require a recovery in Korea-Japan relations. Nevertheless, conflicts around history will continue regardless of the political affiliation of the next Korean government. The North Korean policy, however, depends significantly on whether the next government in Korea is conversative or liberal. In this context, if the next administration is also liberal, it is important to adopt a two-track policy of separating historical disputes and North Korean issues in order to recover Korea-Japan relations.



빠벨 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Pavel P. EM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Visiting Research Fellow

빠벨 엄 박사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초빙연구원이다. 서울에 오기 전, 러시아 모스크바 과학아카데미 지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모스크바 국립연구대학 고등경제학교에서 동양학을 강의했다. 엄 박사는 극동 연방 대학교를 졸업하고(블라디보스톡, 2010) 로모노소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사회 및 경제지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2013). 또한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2017–2018)과 레이던 대학교(2018–2019)에서 각각 1년씩 박사 후 과정을 거쳤다.

엄 박사는 한국과 북한의 도시개발, 인구통계학 및 사회문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의 연구 프로젝트는 러시아 기초연구재단(2014), 한국국제교류재단(2017), 한국학중앙연구원(2018), 북한 통일학 연구 펠로우십(2021)의 지원을 받았다. 연구결과는 국제 및 러시아 학술지(SSCI와 스코퍼스 등)에 20개 이상의 논문으로 발표되었고 단행본도 집필했다. 또한 여러 연구소(런던대학교 동양 및 아프리카 학부, 빈 대학교, 도시샤 대학교)에서 초빙 연사로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한국학(AKSE) 및 지리학(유럽 정량 및 이론적 지리학 컨퍼런스, 국제지리학연합 도시 위원회 연례회의, 유럽지역과학협회) 관련 다수의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참여했다.

Dr. Pavel P. Em is a Visiting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Before coming to Seoul, Dr. Em used to work as a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of Geography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and taught at the School of Oriental Studies at the 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both located in Moscow.

Dr. Em graduated from the Far Eastern National University (Vladivostok, 2010) and obtained a Ph.D. degree from the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2013) in Social and Economic Geography. He took post-doctoral programs at l'École des hautes études en sciences sociales in Paris (2017-2018) and at the Leiden University (2018-2019), each lasting one year.

Dr. Em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in the fields of urban development, demography, and social issues with a focus on North and South Korea. The research projects of Dr. Em were supported by the Russian Foundation for Basic Research (2014), the Korea Foundation (2017),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8), and the IFES MOU Fellowship Program (2021). The results of his work are published in more than twenty articles in both international and Russian journals (including SSCI and Scopus) and in a book. Dr. Em has presented findings as a guest speaker in a number of institutions (SOAS University of London, Vienna University, Doshisha University), and as a speaker at many conferences both in Korean studies (AKSE) and geography (European conference of Quantitative and Theoretical Geography, Annual Conference of Urban Commission of the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Europ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CHO Jin-Goo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조진구 교수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시즈오카현립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도쿄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귀국 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21 동아시아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과 연구전임강사, 평화연구소연구 조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과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2018년 4월부터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2021년 1월부터 연구실장과 일본센터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국제관계, 특히 한반도와 미국 및 일본 관계로 최근에는 한일 간의 역사 화해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에 있어서의 '사전협의'의 의미와 실제"(「국방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2016년 10월),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 국가안전보장회의, 집단적 자위권, 그리고 헌법 개정 문제"(「동북아역사논총」, 58호,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36호, 2019년 6월) 등이 있다. 최근 한일 간의 역사와 안보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문서들을 모은 「한일관계 기본문헌집」(2020년 2월)과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연구 - 주요 문서 번역과 해제 -』(」(2021년 2월)를 출간했다.

CHO Jin-Goo is assistant professor and Director of the Japan Center at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FES), Kyungnam University. Prior to joining IFES, he was policy assistant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which is a presidenti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He was also research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s Peace & Democracy Institute (PDI). He is a member of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Ministry of Unification, Republic of Korea. As an academic, his research focuses primarily on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comparative studies between the ROK-U. S. alliance and U.S.-Japan alliance, and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and Japan. Recently he had interests i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mong East Asian countries. He received his Ph.D. in international politics from the University of Tokyo, a 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University of Shizuoka, Japan, and a B.A. from Korea University in Sociology, ROK. He is the co-author of New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2019, Korean), and he also wrote many academic articles including "Japan's Postwar Asian Reparation Diplomacy and Historical Perception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Inter-governmental Reconciliation" (2020, Korean)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Japan Policy – Focused on the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 (2019, Korean).



량미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LIANG Meihua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Visiting Research Fellow

량미화는 현재 서울대 외교학 전공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북중관계 관련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초빙연구위원 겸 펠로우이다.

LIANG Meihua is a Ph.D. Candidat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s preparing her doctoral thesis on North Korea-China relations. She is currently one of the Visiting Research fellows of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at Kyungnam University.



이병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LEE Byong-Ch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이병철 교수는 단국대에서 영어영문학과 학사를,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Graduate Institute of Peace Studies)에서 국제정치학 석사를 취득한 후 고려대에서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통해 본 미국의 이중 정책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비서실(외교안보)에서 행정관으로 재직하였으며, 국회의장실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2019년부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한국핵정책학회 이사와 편집위원을 맡고 있으며, 서울대 원자력미래정책기술연구소 객원연구원을 겸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며, 2018년부터 경향신문 '세상읽기'에 한반도 정세 및 국제정치 관련 칼럼을 정기적으로 쓰고 있다. 이외에, New York Times, Project Syndicate, 38North, YaleGlobal, South China Morning Post, 그리고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등에 다수의 글을 기고하기도 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핵 비확산, 핵전략, 북핵, 원자력정책 등이며, 이외 한미관계, 동북아 정치, 국제정치이론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 Phased Approach to the Zone of Possible Agreement"(2020. 12.,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33, No. 2), "한국의 핵 농축 권한에 대한 소고(小考)"(2020. 12.,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6권 2호), "한국 핵무장 담론의 새로운 방향 모색"(2020. 6., "국방 연구』, 63권 2호) 등이 있다.

Dr. LEE Byong-Chul is Assistant Professor at Kyungnam University's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n Seoul, South Korea.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policies on the ROK-US relations. His recent research has focused primarily on "What explains variation in South Korea's commitment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Before joining the IFES, Dr. Lee worked as an aide to the Presidential Senior Secretary for Foreign and National Security Affairs and served as foreign and national security policy planning staff member at the Presidential Office of South Korea from 1993 to 1999. He also served as a special aide and policy planning secretary to the Speaker of National Assembly from 2015 to 2016. In addition, he previously worked as a senior policy researcher at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KINAC). He is currently working as a standing committee member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He received a Ph.D. in North Korean Studies from Korea University. His op-ed pieces and comments have appeared in The New York Times, 38North,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YaleGlobal, Project Syndicate,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among other publications. Dr. Lee has been an Opinion columnist for The Kyunghyang Daily Newspaper since January 2018.

미중전략 경쟁과 한반도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주관기관 동아시아연구원 Organized by East Asia Institute

좌장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Moderator SOHN Yul East Asia Institute, President

패널 •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Panelist • PARK Won Gon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 앤드류 스코벨 미국평화연구소 중국 석좌위원

• Andrew SCOBELL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Distinguished Fellow for China

•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학교 교수

• KIMIYA Tadashi The University of Tokyo, Professor

•리 팅팅 북경대학교 교수

• LI Tingting Peki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1-3)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경합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은 새로운 동북아 지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견국 외교와 민주주의 규범을 강조하며 QUAD 등 양자 및 다자 동맹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며,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목표로 러시아, 아세안 국가들과의 연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 실현을 위해 복합적이면서도 유연한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은 본 세션에서 미중 경쟁 속 한국의 대북전략과 동북아 지역질서의 미래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transition to a Joe Biden presidency foreshadows the emergence of a new Northeast Asian geo-political landscape amidst competition between U.S. Indo-Pacific strategy and China's One Belt One Road policy. The U.S. is strengthen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alliances, including the QUAD, emphasizing middle-power diplomacy and democratic norms. On the other hand, China strives to strengthen its status and is actively seeking to build solidarity with Russia and ASEAN member states to construct new international relations. Within this context, South Korea should seek to employ a complex, yet flexible diplomatic strategy to realize "Denuclearization &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ast Asia Institute (EAI) aims to discuss South Korea's North Korea strategy and the future of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amidst the U.S.-China competition.

좌장 Moderator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SOHN Yul East Asia Institute, President

손열 원장은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이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방문 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2012)을 지냈다. Fulbright,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 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대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외교부 자체평가위원이다. 전공분야는 일본 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 최근 저서로는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019), 32, 6, 『한국의 중견국외교』(2017, 공편) 등이 있다.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Sohn Yul is president of the East Asia Institute and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and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at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He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KAIS) in 2019, served as dean of GSIS from 2012 to 2016, and was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for Contemporary Japan in 2012. Before joining Yonsei University, Sohn taught at Chung-Ang University and was a visiting scholar at institutions in the University of Tokyo, Waseda Universit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and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ohn has served on several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s, including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Trade; the Korean National Diplomatic Academy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d the Korea Foundation. Sohn has written extensively on Japanese and East Asian political economics, East Asian regionalism, and global governance. His recent publications include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8, with T.J. Pempel), and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both from Palgrave MacMillan, and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 Making (2019, The Pacific Review). Sohn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Chicago

패널 Panelist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PARK Won Gon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박원곤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동대학교 교수,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북아 국제관계(사), 한미동맹, 북한이다. 미국 보스턴 칼리지에서 석사, 서울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Dr. Park Won Gon is currently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orth Korean Studies at Ewha Woman University. He was previously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studies at Handong Global University and a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 His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ROK-US Alliance, and North Korean studies. Professor Park earned his M.A. from Boston College and received his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미중전략 경쟁과 한반도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추로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Ⅰ. 미·중 갈등에 대한 이해와 전망

미·중 관계는 지난 10여 년간의 변화 끝에 본격적 대결 국면으로 진입하였다. 미국 내에서 평화적 관여를 통해 중국을 변화시켜 미국 주도의 세계를 유지하는 '키신저 질서'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반면 전략 경쟁을 본격화하여 중국을 강제로 복종시켜야 한다는 '선교 이상주의'가 득세한다. 더불어 시진핑의 중국도 '중국의 꿈'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지난 100년의 치욕적 역사를 뒤로하고 다시금 세계의 중심에 서는 화려한 '귀환'을 알린다. 미·중 관계를 일방이 붕괴해야 끝나는 냉전식 이데올로기 갈등이나 문명충돌론으로 치환하는 목소리도 미·중 양국 모두에서 들린다. 그러나 현 미·중 갈등은 신냉전이 아닌 '전략적 경쟁' 형태를 띠고 있다. 미·중간 '완전한 형해화' 보다는 '제한적 이탈' '부분 형해화', '또는 '전략적 재연계' 등이 제안되는 모양새이다. 미·중 경쟁은 지구적 리더십 확보에 좌우될 것이다. 특히 미·중 양국이 모두 처한 대내외적 정당성 문제의 해결 능력이 관건이다. 미국은 트럼프 시기를 지나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표본으로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성공적으로 복원한다면 경쟁의 우위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 지난 시기 경제 양극화, 민주주의 기능 이상을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안정과 결속이 다져지면 승산이 있다. 반면 중국은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 홍콩의 일국양제를 무력으로 조기 종결하면서 대외적으로만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외친다고 지구적 리더십을 확보할 수 없다. 중국이 아무리 경제 발전으로 포장해도 근본적 자유 부재의 권위주의 체제가 지구 차원에서 자발적 동의를 끌어낼 매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II. 미·중 갈등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선택

미·중 갈등이 격화할수록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간 협력 가능성은 작아진다. 중국은 북한을 '부담'이 아닌 대미 전선에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여겨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과 정책을 확대한다.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비핵화에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중국에서 들린다. 중국 정부는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소환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자위권 차원에서 옹호한다.

북한은 미·중 관계를 최대한 활용한 시계추 외교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극대회하려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과 밀착하는 모습을 통해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밝힌 "힘겨운 정면 돌파"를 수행하려 한다. 중국이 제공하는 지원을 활용하여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도록 압박하면서 버틴다.

한국은 미·중 갈등으로 압력을 받는 세계 대부분 국가. 특히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와 협력해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미국은 원래 제국이었고 트럼프 시기 '약탈 국가'의 본색을 명확히 했다는 정체성 규정이나, 세력 전이에 따라 미·중 갈등은 불가피하므로 한국은 편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 등은 한국의 선택지를 사실상 없애는 결정론적 행태이다. 변화하는 세계질서를 제대로 해석하고 전망하면서 원칙에 따른 전략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미중전략 경쟁과 한반도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bstract

PARK Won Gon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I. Understanding and Prospects of US-China Conflict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have entered a stage of confrontation after going through various changes over the past decade. The 'Kissinger Order,' which is about transforming China through peaceful engagement to maintain American hegemony in the world, is losing its merit in the US. Now, the prevailing idea is 'missionary idealism,' a belief that China should be forced into obedience by intensifying strategic competition. Meanwhile, China under Xi Jinping defined the nation's identity as 'China's dream.' After leaving behind its humiliating history of the past 100 years, China is proclaiming its magnificent 'return' to the center of the world. There are also voices in both the US and China about replacing the US-China relationship with a Cold War-style ideological conflict that can only end when one of the two collapses or a theory of clash between civilizations. However, the current US-China conflict is not a new Cold War, but rather a form of 'strategic competition.' The proposal is not for 'complete shelling' between the US and China, but rather 'limited breakaway' 'partial shelling,' or 'strategic re-connection.'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depend on who secures global leadership. In particular, the key is the ability to resolve internal and external legitimacy issues faced by both the US and China. The United States may be able to secure a competitive edge if the Biden Administration successfully restores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s a model of democracy after the Trump era. If it overcomes economic polarization and malfunctioning democracy of the past and strengthens sociopolitical stability and solidarity, there is a chance for the US to win. On the other hand, China has clear structural limitations. Global leadership cannot be secured by calling for free trade and multilateralism externally while terminating Hong Kong's one country, two systems early by force. This is because, no matter how China may want to gloss it over as economic development, an authoritarian system that lacks fundamental freedom can never be attractive enough to draw voluntary consent at the global level.

II. Impact of US-China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Korea's Choice

As the US-China conflict intensifies, the possibility of US-China cooperating on North Korean issues becomes smaller. China considers North Korea not as a "burden" but as an "asset" that can be used on its US front, and is expanding its favorable stance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Already, there are voices in China that there is no need to cooperate with the US-l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Chinese government draws upon the idea of double suspension and parallel track approach, and defend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s self-defense.

Meanwhile, North Korea will try to maximize its influence through pendulum diplomacy that makes the most of US-China relations.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North Korea is trying to make a "tough frontal breakthrough" announced at the 8th Party Congress in January by bonding closely with China. It is leveraging the support from China to stay put while pressuring the US to withdraw its hostile policy. South Korea should work with most countries in the world feeling the pressure of US-China conflict, especially those that share the values of liberal democracy, to restore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t would be a deterministic act of technically eliminating all options for South Korea to define the identify of the US as an empire or a country that showed its true nature as the 'predatory state' during the Trump era, or to argue that South Korea should pick a side depending on the power transition because the US-China conflict is inevitable. Rather, a way to overcome this crisis is to adopt a strategy based on principles while properly interpreting and forecasting the changing world order.

패널 Panelist



앤드류 스코벨 미국평화연구소 중국 석좌위원

Andrew SCOBELL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Distinguished Fellow for China

앤드류 스코벨 박사는 미국 평화 연구소의 중국 프로그램의 저명한 연구원이다. 특히 한반도, 대만, 홍콩,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을 중심으로 미중 관계, 중국의 군사·방위 정책, 세계 각국 및 지역과의 대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이전에 RAND Corporation에서 선임 정치 과학자로 10년 이상 근무했으며, 연구 및 출판물은 중국과 인도-태평양에 집중되어 있다. 랜드에 앞서 스코벨은 조지 H. W. 부시 행정대학원 부교수와 텍사스 A&M 대학 중국 인증 프로그램 설립 이사로 재직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그는 미 육군 전쟁대학 전략연구소의 부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조지타운대 에드먼드 A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월시외국인사무학교, 스코벨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홍콩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Dr. Andrew Scobell is a Distinguished Fellow with the China Program at the U.S. Institute of Peace. He focuses on U.S.-China relations, China's armed forces and defense policy, and China's foreign relations with countries and regions around the world,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Korean Peninsula, Taiwan, Hong Kong, Southeast Asia, South Asia, Central Asia, Africa and the Middle East. He previously spent more than ten years as Senior Political Scientist at the RAND Corporation, where his research and publications focused on China and the Indo-Pacific. Prior to RAND, Scobell was Associate Professor at the George H. W. Bush School of Government and Public Service and founding director of the China Certificate Program at Texas A&M University. From 1999 to 2007 he served as Associate Research Professor in th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at the U.S. Army War College. He is also Adjunct Professor at Georgetown University's Edmund A. Walsh School of Foreign Service. Scobell earned a PhD from Columbia University. He was born and raised in Hong Kong.

미중전략 경쟁과 한반도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앤드류 스코벨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개요

앤드류 스코벨 미국평화연구소 중국 석좌위원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두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니고 미중 협력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환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은 군사 뿐 아니라 경제, 기술, 외교, 정보 및 문화 등 여러 하드 및 소프트파워 영역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쉽지 않은 이웃국가들 사이에서 번영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향배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미중전략 경쟁과 한반도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rew Scobell Abstract for 2021 Korea Global Peace Forum

Andrew SCOBELL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Distinguished Fellow for China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likely to persist for an extended period. This does not mean that the two states are destined for war, nor does it preclude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But the absence of actual military conflict will not necessarily translate into a stable and peaceful environment. Competition is likely to be conducted across multiple hard and soft power domains: not just in the military sphere but also in economics and technology as well as in the realms of diplomacy, information and culture. This state of affairs will make life complicated for the Republic of Korea as it seeks to thrive in a challenging neighborhood.

패널 Panelist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학교 교수 KIMIYA Tadashi The University of Tokyo, Professor

기미야 다다시 박사는 도쿄 대학 예술과학대학원의 한국학 교수이자 국제관계학 교수이다. 도쿄대 현대한국학센터장, 도쿄대 정보정책과 교수,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초빙학자, 아사히신문 아시아네트워크연구연구원, 호세이대 법학부 교수 등을 역임했다. 기미야 박사는 도쿄대 정치학 석사, 도쿄대 법학과 정치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고려대 비교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등을 마쳤다.

Dr. KIMIYA Tadashi is the Korean Studies an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 at The University of Tokyo. He has previously served as director of The University of Tokyo Center for Contemporary Korean Studie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Tokyo Interfaculty Initiative in Information Studies, visiting scholar of Yenching Research Institute at Harvard University, Asian Network Research Fellow at Asahi Shimbun, and Faculty of Law at Hosei University. Dr. KIMIYA completed his M.A. in Politics at The University of Tokyo, his doctoral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Tokyo's Graduate School of Law and Politics, and his doctoral studies in comparative politics and Korean politics at Korea University.

미중전략 경쟁과 한반도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에 따른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화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학교 교수

세계 냉전 종식과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및 정치민주화에 따라 한일관계의 구조는 비대칭적 보완관계에서 대칭적 경쟁관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혁은 연이은 북핵위기와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양국 정부 모두 한일 상호협력이 어려워지지 않을 수준으로 한일 갈등상황을 관리한 이유는 대북 정책과 미중 전략적 경쟁에 대한 정치적 자세에 있어서의 한일 간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냉전시대에 일본은 식민지 통치자, 한국은 식민지로서 공유한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의 경제원조로 한국이 북한 대비 우위에 있도록 하고 일본의 안보 이익 확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위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관리해왔다.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정부와 스가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보다 남북 화해를 더 중시할 것을 우려하는 반면, 한국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한국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한다. 즉, 양국 정부가 역사적 문제 관련 정책을 국가 안보 이익을 달성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 더불어 대중정책 및 미중 경쟁에 대한 양국의 정치적 태도에도 차이가 있다. 한국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를 정권의 가치로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정책을 모호하고 우유부단하며 때로는 친중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한편 한국은 미국이 일본을 더 중요한 동맹 파트너로 여기고 미일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본이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길 바란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미국을 설득해 중국 견제와 대치를 이끌어내고자 한 것은 사실이다. 한편 한국 외교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의존해 왔고 무역, 투자, 경제 측면에서 중국에 의존해 왔으며 대북정책 및 궁극적 통일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중 어느 한쪽만 선택해야 할 정도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일본의 대북정책과 미·중 전략적 경쟁 관련 정치적 입장이 한국의 정책과 굉장히 다르고, 분열적이며,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일까? 나는 이것이 그토록 최종적이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 차이는 아니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 문제를 주변화하고 한일 간 문제가 협력이 불가능한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중전략 경쟁과 한반도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South Koea-Japan Relations **Amid the Intensification of the US-China Strategic Rivalries**

KIMIYA Tadashi

The University of Tokyo, Professor

The structure of the South Korea-Japan relations has been transformed form asymmetrical complementary relations into symmetrical competitive relations according to the end of the global cold war and South Korea's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Such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South Korea-Japan relations is basically independent from the consecutiv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the intensification of the US-China strategic rivalry.

However, we can find the difference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concerning our policy toward DPRK and our political posture to the US-China strategic rivalry as the reasons why neith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or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naged the conflicts between us not to escalate to such extent that our collaboration is too difficult. During the cold war era, there were various issues due to our different views of our shared history, Japan as colonizer and Korea as colony. However, our governments could successfully manage the issues not to escalate to the extent that our collaboration pursuing South Korean superiority to North Korea by the Japanese economic aid and achieving the Japanese security interests is too difficult.

With respect to the North Korean policy,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s, especially the Abe and Suga governments are afraid that the Moon government might put more priority on the inter-Korean reconciliation rather than North Korean genuine denucleariz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specially the Moon government, is afrai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detrimental for the Moon government's policy of the Korean Peace Process. In other words, both governments cannot take the policy for managing the historical issues around us to escalate as useful for achieving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

Moreover, with respect to our Chinese policy or our political posture to the US-China rivalries,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might regard South Korean policy as ambiguous, indecisive, and sometimes even pro-China regarding its posture to the US-China rivalry despite the fact that South Korea has shared not only the military alliance with the US but also the political democracy as the regime value with Japan, the South Korea might regard Japan as having interests in the intensification of the US-China strategic rivalries because the US regards Japan as alliance partner as more important and tries consolidating the US-Japan alliance. It is a fac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persuaded the US to have interests in containing and confronting China by selling the scheme of "Indo-Pacific" to US. South Korean diplomacy has been dependent on US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has been dependent on China in terms of trade, investment, and economy, and must be dependent on both US and China in terms of the North Korean policy and the eventual reunification. That is wh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opes that the US-China strategic rivalries will not be intensified to the extent that South Korea is forced into choosing either only one among US and China. However, is it really that the Japanese policy concerning North Korea and the US-China strategic rivalries is so much different, divisive, and uncompromising from the South Korean one? I insist that such differences are not so decisive and can be compromised. For the purpose, we have to make every effort to marginalize the historical issues and manage the issues between us not to escalate to the extent that our collaboration is impossible.

패널 Panelist



리 팅팅 북경대학교 교수 **LI Tingting** Peki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리 팅팅 교수는 북경대 한국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방문연구원, 연세대 국학연구원 방문연구원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주제는 한반도 근현대사, 한반도 정치경제, 동북아 국제관계다. 북경대에서 한국학 석사, 미국 시카고대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Dr. LI Tingting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at Peking University. Li has previously served as Visiting Research Fellow at the Asi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the Asiatic Research Institute at Korea University, and the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Her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modern Korean history, Korean political economy, and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Dr. Li received her M.A. in Korean Studies from Peking University and her Ph.D. in History from the University of Chicago.

미중전략 경쟁과 한반도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KGFP2021 발제 요약문

리 팅팅 북경대학교 교수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중미관계의 변화에도 그 중장기적 목표와 접근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지역의 평화 안정과 공동 발전이라는 목표, 그리고 남북한에 대한 균형적 접근 등의 기본 틀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만약 한미간 협력 강화가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치게 될 경우, 사드 사태와 같이 중한 관계에 피해를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대화를 촉진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조정자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북미

양자 협상의 취약성이 트럼프 시절을 거쳐 재차 드러났고,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도 현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자회담의 필요성이 다시 전문가들에 의해 거론되고 있는 이유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래 핵비확산 문제를 중미 협력 분야로 보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북핵 해법 구상에서도 다자주의 모델과 단계적 전진적 접근을 강조해 중국이 주장해 온 '쌍궤병진' 원칙과 접점이 많다. 최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방중 기간에도 북한 문제에 대한 중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 이행자로만 강조되던 과거의 중국 역할 인식을 바꿔야 중미 협력의 실질적 진전이 가능하다. '전략적 인내' 시절 미국의 정책 담론에서 소위 '중국 역할'이란 대북 제재 이행자란 측면만 강조됐다. 북한이 고강도 제재 속에서도 핵·미사일 실험을 지속하는 원인을 중국이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은 탓으로 돌리는 논리로 확장되기도 했다. 제재의 유효성과 조건에 대한 이론적 논쟁과 북한의 특수한 경제구조로 인한 정치적 노력의 병행 필요성을 간과한 면이 큰 셈이다. 적극적 조정자로서 중국 역할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유관국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다.

미중전략 경쟁과 한반도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ummary of KGFP2021 Presentation

LI Tingting

Peki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China'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will not change significantly in its mid- to long-term goals and approach despite the changing US-China relations. The basic framework is expected to stay the same, such as pursuit fo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gional peace, stability, and shared development, as well as a balanced approach to the two Koreas. However, if stronger US-Korea cooperation works against China's core interests, it will inevitably damage Korea-China relations as was demonstrated by the THAAD incident.

On the issues of the Korean Peninsula, China needs to play a more active role as a mediator to facilitate dialogue and manage risks. The vulnerability of the US-DPRK bilateral negotiations was exposed once again through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expectations for the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re not being realized either. This is why experts are once again calling for multilateral dialogue.

Since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office, it has maintained a position of viewing nuclear non-proliferation as an area of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lso, the administration's initiatives for address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s through multilateralism and calibrated incremental approach has similarities with the principle of "parallel track" that China has been advocating. Indeed, during a recent visit to China by US Deputy Secretary of State Wendy Sherman, s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US-China cooperation on North Korean issues.

However, true progress in US-China cooperation is only possible if the Biden Administration changes its past perception of China's role as merely implementing sanctions. In the US policy discourse during the period of 'strategic patience,' the so-called 'role of China' was only emphasized in terms of implement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is was also extended into the logic of blaming China's failure to strictly apply sanctions for North Korea's continued nuclear and missile tests despite highintensity sanctions. This largely overlooks the theoretical debate over the effectiveness and conditions of sanctions and the need to simultaneously carry out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validity and conditions of sanctions alongside political efforts due to the unique economic structure of North Korea. China's role as an active mediator is also in the shared interest of all concern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아시안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Asian Views on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주관기관 아시아재단

Organized by The Asia Foundation

좌장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Moderator OH Youngju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IFANS), President

발표 • 후추평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교수

Presenter • HOO Chiew Ping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 (UKM), Senior Lecturer]

• **모한 라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 MOHAN Raja Institute of South Asian Studies at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Director

토론 • **티티난 퐁슈디락** 태국, 쭐랄롱꼰대학교 교수

• Thitinan PONGSUDHIRAK Chulalongkorn University, Director

• **바나리스 체앙** 아시아비전연구소 소장

• Vannarith CHHEANG Asian Vision Institute, President

•홍 히엡 르 동남아연구소 선임연구원

• HONG HIEP Le ISEAS – Yusof Ishak Institute, Senior Fellow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1-4)

이시안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정상들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불안정하며 이에 따라 오늘날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해결되지 않은 난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아시아재단은 기존 한미 중심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조언을 듣는 방식에서 벗어나 북한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었거나 현재까지 맺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목소리와 관점을 들을 수 대화의 장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시아 18개 국에 지부를 두고 60여년간 활동하고 있는 본 재단의 네트워크 및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접근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 국제 포럼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Asian Views on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many decades of efforts by Korea, the U.S. and other world leaders, the future of North Korea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rest of the world remain very much uncertain and unresolved.

New perspectives are needed. Instead of relying on the usual sources of experts, The Asia Foundation propose to include regional perspectives on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engagement opportunities, particularly from Asia. The Asia Foundation proposes to host an international dialogue (blended format) by tapping into our extensive networks (with a presence of 18 different countries) in Asia.

<u> 좌장 Moderator</u>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OH Youngju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IFANS), President

오영주 대사는 현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베테랑 외교관인 오 소장은 2015년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 부 차석 대사로 임명되어 2017년까지 활동했다. 외교부에서 다자외교조정관(2017—2018), 개발협력국장(2013—2015), 2012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총괄부장(2011—2012), 유엔과 과장(2005—2007)을 지냈다. 현재 유엔 지역간 범죄처벌조사기관 위원(2019—2024)으로 활동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에서 태평양 지역 국제관계학 석사(1995)를 받았다.

Ambassador OH Youngju is currently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IFANS) at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KNDA). As a veteran diplomat, she was appointed Ambassador and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for the Korean Permanent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2015-2017). She previously served on major duties with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such as the deputy minister for Multilateral and Global Affairs (2017-2018); Director-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2013-2015); Director-General for the Nuclear Security Summit Preparatory Secretariat (2011-2012); and also Director at United Nations Division (2005-2007). Recently, she became a member of the Board of Trustees for the 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 (2019-2024). Ambassador Oh join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1988. She received her master's degree in Pacific International Affairs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1995).

발표자 Presenter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교수

H00 Chiew Ping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 (UKM), Senior Lecturer

후추평 박사는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UKM) 전략국제관계학 선임 강사로 강의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포럼 한반도위원회 연구위원, 말레이시아 국방대학교 외래 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외교 및 국제관계 학회에서 활동 중이다. 과거 연구 경력으로는 말레이시아 국제전략연구소에서 한국 재단 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AKS) 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 재단 현장 연구원 등이 있다.

후 박사의 주요 연구분야는 한반도의 안보 및 평화 프로세스이다. 주요국들의 대북정책, 남북관계, 남아시아와 남북 간 관계 관련 자문 및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동서문화센터의 Asia Pacific Bulletin, 아산포럼, 세종연구소의 세종 논평,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AES-Yusoft Ishak Institute)의 ASEAN Focus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 논평과 정책 브리프를 기재하고 있다. 또한 영미권,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계 매체에 나오는 말레이시아 및 세계적 언론에 의견을 제공하며, BBC 뉴스,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자유아시아방송 한국 서비스, 아리랑TV, 연합뉴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CGTN 등의 매체에 등장했다.

최근 저서로는 The New Southern Policy: Catalyst for Deepening ASEAN-ROK Relation (ISIS 말레이시아, 2020)라는 제목의 편저, 곧 발표될 동남아시아-북한 관계에 대한 공동편저(샤인 최, 브라이언 브릿지스 공편) 등이 있다.

Dr. HOO Chiew-Ping is Senior Lecturer in Strategic Studi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 (UKM). She is concurrently Council Fellow, Global Future Council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World Economic Forum, and Adjunct Lecturer at the Malaysian Armed Forces Defense College, and the Institute of Diplomacy and Foreign Relations of Malaysia. Her previous research appointments include Korea Foundation Fellow at the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SIS) Malaysia,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 research fellow, and Korea Foundation Field Research Fellow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r. Hoo's main research focus is on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issues and peace process. She has been providing consultation and conducting research related to major powers' North Korea policy, inter-Korean relations, and Southeast Asia's relations with the two Koreas, with commentaries and policy briefs appearing in East West Center's Asia Pacific Bulletin, The Asan Forum, Sejong Institute's Sejong Commentary, ISEAS-Yusof Ishak Institute's ASEANFocus, and other platforms. Dr. Hoo is also consulted by Malaysian and international media which appear in English, Korean, Malay, and Mandarin mediums, including BBC News,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Radio Free Asia Korean Service, Arirang TV, Yonhap News Agency, South China Morning Post, CGTN, among others.

Her recent works include an edited book volume titled The New Southern Policy: Catalyst for Deepening ASEAN-ROK Relations (ISIS Malaysia, 2020), and a forthcoming co-editing book volume (with Shine Choi & Brian Bridges) on Southeast Asia-North Korea relations. She received her PhD in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La Trobe University, Australia.

아시안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Asian Views on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아시아의 견해"

후추평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교수

포스트 코로나19 팬데믹,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북한의 국가정책 궤적

-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엄격한 국경 폐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통스러운 식량 부족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는 국내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김정은은 이미 1990년대 후반 김정일이 했던 것과 같이 농업생산을 위해 군사자산과 인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 •그러나 북한은 미국에게 호혜적 교환에 기반한 비핵화 대화에만 관심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즉, 미국이 강경책을 취하는지 유화책을 취하는지에 따라 상응하게 행동하겠다는 것이다.
-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에 열려있음을 시사하면서도 북한이 스스로 대화의 기회를 '얻어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대북 최대 압박 작전은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아세안 회원국 포함)에 계속 적용되고 있다.
- •최초로 북한 사업가가 자금세탁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이후 국제교류에 대한 북한의 신뢰(북한 내 외국 공관 축소 등)
- •미국은 아세안이 국제적 대북 제재를 준수하길 기대한다. 또한 북한이 아세안의 안보에 대한 도전과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대한민국으로부터 오는 코로나19 백신 및 의료 지원을 거부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식량 및 인도적 지원은 유니세프, 유엔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 "제3자 플랫폼"을 비롯해 아세안, 몽골, EU 같은 중개자 역시 인도적 지원 제공의 통로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세안의 제약과 기회 + 한국이 제3자 기반 평화 메커니즘을 구축 및 지원할 수 있는 방법

- •한국이 '원동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북한이 신뢰하는 중립적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국이 받아들인 것은 주요한 정책적 돌파구이다. 이는 싱가폴과 하노이에서 열렸던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 •한반도 문제 관련 한-아세안 협력을 위해서는 아세안이 북한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국이 정책적 공간을 조정 및 제공해야 한다. 한편. 아세안은 한반도 평화 의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집단적 합의가 필요하다.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평화의 축을 통한 아세안의 명확한 역할과 입장 정립이 이상적일 것이다.
- •그 대가로 한국은 아세안(특히 해양 안보. 개발 및 경제 문제)에서 대안적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구상들에 대한 북한의 거부나 저항에도 대비해야 한다. 결국 평화 프로세스는 일방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다. 지속적 관여는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이며 바로 아세안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이세안이 코로나19 델타 변이바이러스 대응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관여 강화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통해 확대된 한국의 공중보건 외교 덕분에 한국은 한-아세안 채널 또는 ASEAN+3 프레임워크를 통해 아세안의 팬데믹 이후 회복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안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Asian Views on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 한국은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FOIP 전략 및 아세안과 관련하여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전략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의 이해관계는 한반도를 넘어 확장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수렴되는 지점에는 팬데믹 회복부터 한반도 문제까지의 모든 인도-태평양 안건이 포함될 것이다.
-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와 국내경제발전으로의 우선순위 전환은 기능적 협력이 대북 관여 전략의 다음 단계에서 핵심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인도주의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아세안의 백 채널 외교에 대한 선호를 지원할 수 있다.
- •이세안은 일반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지만, 양측의 잘못된 인식과 북한의 편집증적 반응을 줄이기 위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지역포럼(ARF)과 같은 기존 아세안 다자간 플랫폼을 활용 가능하다.
- •이세안은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 의제를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 구축에 포함할 수 있다. 한편, 미얀마 위기. 메콩강 등의 지역 문제에 대한 한국의 관여는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대가로 아세안은 한반도에서 한국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
- •이세안-북한 연결을 위한 노력: 조선교류(Choson Exchange)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교육 교류를 구축한 세계 최초의 NGO다. 장기 비전은 북한이 아세안 대화의 상대국이 되도록 하고 아세안 사무국에 북한사절단을 설치하여 자카르타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아세안-북한 3자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보안의 연계를 공유한다. 중개자로서의 아세안은 그 비전을 향한 디딤돌이다.
- •아세안과 그 회원국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자신들을 신뢰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로 대하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고,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거나 과감한 정책 발표 및 지역 내 공식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데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 •한국은 아세안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로비하고 지원해야 하며, 한반도를 아세안 의제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조정과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 •한국과 아세안 모두에게 있어 일관적인 정책 조정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요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아세안의 역할을 격상하는 데 핵심적이다.

아시안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Asian Views on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sian Views on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H00 Chiew Ping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 (UKM), Senior Lecturer

Post-Covid-19 pandemic, the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North Korea's state policy trajectory

- North Korea is imposing a strict border lockdow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Most recent indications signal food shortage distress. NK's WPK Congress has highlighted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as its priority. Kim Jong Un has already mobilized military assets and manpower for agriculture production, not unlike Kim Jong II during the latter half of
- However, North Korea has sent strong signals to the U.S. on denuclearization talks on the basis of reciprocal exchange: hardline or conciliatory measures will be reciprocated accordingly.
- · While indicating that it is open for dialogue, the Biden administration maintains a firm position that North Korea must "earn" the opportunity for dialogue.
-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on North Korea begun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continues to apply to states friendly to the DPRK (including the ASEAN member states).
- Following the first extradition of a North Korean businessman from Malaysia to the U.S. on money laundering charges, North Korea's trust in international exchanges (including the reduced presence of foreign missions in the DPRK).
- The U.S. expects ASEAN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against the DPRK. The U.S. has also maintained that DPRK is a security challenge to ASEAN.
- North Korea has rejected COVID-19 vaccines and medical assistance that involve the U.S. and ROK. Thus, food and humanitarian aid to NK should be channeled through suc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UNICEF & WFP. "Third-party platforms" and intermediaries such as ASEAN, Mongolia and the EU should also be considered for the channeling of humanitarian assistance.

ASEAN's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 how ROK can construct and support a third- party based peace mechanism

- It is a major policy breakthrough for ROK to accept the fact that to perform its 'driver' role, ROK needs a neutral platform trusted by the DPRK to initiate and be engaged in the peace process. This has already been exemplified in the cases of the historical US-DPRK summits in Singapore and Hanoi.
- ASEAN-ROK Cooperation on Korean Peninsula issues require the ROK to tailor and provide policy space for ASEAN to engage the DPRK. Meanwhile, ASEAN needs collective consensus on being more proactive with regards to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enda. A clear role and position for ASEAN via the New Southern Policy Plus's Peace Pillar would be
- In return, ROK needs to be clear as to its role in ASEAN (especially in maritime security, developmental and economic issues) as an alternative but reliable strategic partner. ROK has to be prepared for North Korea's rejection or resistance to South Korea's initiatives. After all, the peace process is not just a one-sided process. Constant engagement is key to maintain the momentum, and ASEAN can provide that.

아시안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Asian Views on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 ASEAN's difficulties combating the Covid-19 Delta variant outbreak is interfering with more interest to be invested in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 ROK's public health diplomacy, extended through NSP Plus, will enable ROK to play a greater role in ASEAN's postpandemic recovery, either through ASEAN-ROK channels or the ASEAN Plus Three framework.
- At the US-ROK Summit on May 21, 2021, the ROK agreed to cooperate with the US on FOIP and ASEAN. As ROK broadens its strategic scope, its interests will extend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he convergence of these interests will include all Indo- Pacific issues from pandemic recovery to the Korean Peninsula.
- · North Korean humanitarian crisis and its priority shift to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means that functional cooperation would be key to the next phase of strategy to engage North Korea. ASEAN's preference for back-channel diplomacy could be supported by major stakeholders including South Korea and the U.S. if the interests in elevating humanitarian crisis is aligned.
- While ASEAN in general recognizes its limit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t should convey consistent messages to reduce misperceptions from both sides and North Korea's paranoia. This can be done through already existing ASEAN multilateral platforms such as the ASEAN Regional Forum (ARF).
- ASEAN can issue relevant statements and include the Korean Peninsula peace agenda in its Political-Security Community building. Meanwhile, ROK's involvement with such regional issues as the Myanmar crisis and the Mekong River can help strengthen ROK's strategic partnership; in return, ASEAN can be ROK's key partner on the Korean Peninsula.
- . Working towards ASEAN-DPRK connectivity: The Choson Exchange is the first NGO in the world to establish online educational exchang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long-term vision is to have DPRK become an ASEAN Dialogue Partner, establish a Mission at the ASEAN Secretariat and work towards trilateral cooperation of ROK- ASEAN-DPRK officially in Jakarta.
- Northeast Asia and Southeast Asia share security links. ASEAN as an intermediary is a stepping stone to that vision.
- ASEAN and its member states have been uncertain about South Korea treating them as reliable stakeholders on issues pertaining to the Korean Peninsula, thus contributing to their reservations about making bold policy statements and regional public gestures and getting involved in the Peninsula.
- South Korea should actively encourage, lobby and support ASEAN and call for greater coordination and support making Korean Peninsula part of the ASEAN agenda.
- For both South Korea and ASEAN, consistency in their policy coordination is key to elevate ASEAN's role as one of the major stakeholders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모한 라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MOHAN Raja

Institute of South Asian Studies at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Director

모한 라자 교수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남아시아 연구소 소장으로 재임중이다. 이전에는 뉴델리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와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나트남 국제관계대학원의 남아시아학 교수를 지냈다.

모한 교수는 인도 안보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옵저버연구재단 등 뉴델리의 여러 싱크탱크에서도 활약한 바 있다. 또한 워싱턴 D.C.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6번째 국제센터인 뉴델리의 카네기 인디아 초대 소장을 지냈다. 모한 교수는 2009~2010년에 워싱턴 D.C.의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헨리 알프레드 키신저 국제관계의장 및 인도 국가안보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1999~2006년에 과학과 국제정세에 관한 퍼그워시 회의의 인도 챕터의 수장으로 있었다.

Professor Mohan Raja is Director, Institute of South Asian Studie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Earlier, Professor Mohan was Professor of South Asian Studies at Jawaharlal Nehru University, New Delhi, and at the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Professor Mohan has been associated with several think tanks in New Delhi, including the Institute of Defense Studies and Analyses, the Centre for Policy Research and the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He was also the founding director of Carnegie India, New Delhi – the sixth international center of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Washington DC.

Professor Mohan was the Henry Alfred Kissinger Chair in International Affairs at the United States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from 2009 to 2010. He served on India's National Security Advisory Board. He led the Indian Chapter of the Pugwash Conferences on Science and World Affairs from 1999 to 2006.

아시안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Asian Views on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 인도의 관점

모한 라자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한반도와 인도는 물리적 거리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분리된 듯 보인다. 인도는 한반도 평화 및 안보 관련 아시아 담론에 참여한적이 거의 없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냉전이 발발하면서 한반도가 강대국 간 대결의 장이 되었을 때는 상황이달랐다. 아시아의 결속력을 강하게 느낀 신생 독립국 인도는 한반도 내 갈등을 제한하는 데 중요한 국제적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십 년 간 인도와 한반도는 서로의 정치적 상상 속에 등장하지 않았다.

인도가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경제국으로 부상하고 동아시아 정상회의 및 소위 4자 안보 프레임워크 등 아시아의 평화 및 안보 아키텍처의 일부가 됨에 따라 한반도에서 인도의 지분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일부 기타 강대국과 달리 인도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이견이 없다. 오히려 강력하고 통일된 주권 국가로서의 한국은 아시아 내 안정적 균형이라는 인도의 진정한 이해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지난 70년 동안 인도가 경험한 국가 안보 경험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본 발표는 세 가지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는 핵무기와 평화의 관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핵무기가 남아시아 분쟁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보유국을 선언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갈등의 근본 원인은 정치적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핵무기가 남아시아 안보 정치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대륙 평화에 대한 해답은 정치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기술적인 군비 통제가 해결해줄 수 없다.

두 번째는 국가 안보라는 강력한 의무와 정치적/경제적 화해의 지속적인 매력 사이의 긴장이다. 한국과 같이 인도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분단되었다. 국가안보 국가의 단호한 현실주의는 분단의 쓰라린 유산을 초월하려는 대중의 강한 열망과 끊임없이 충돌한다.

세 번째는 우리와 남 사이의 모순이다. 한국과 인도 모두 분단과 냉전을 동시에 겪으며 필연적으로 강대국 간 역내 분쟁에 얽힐수 밖에 없었다. 내부와 외부를 분리하는 것은 아대륙과 한반도 모두에서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적어도 남아시아에서는 적들이 외부 간섭 없이 스스로 협상하려고 할 때 평화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는 듯 했다.

많은 사람들이 남아시아의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겠지만 이는 분명 진지하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방향이다.

아시안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Asian Views on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 Indian View

MOHAN Raja

Institute of South Asian Studies at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Director

India and the Korean Peninsula appear separated not only by physical distance, but also by the political. Delhi is rarely part of the Asian discourse on peace and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The situation was rather different a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when the Korean Peninsula became a zone of confrontation between major powers at the founding moments of the Cold War. Newly independent India, with its acute sense of Asian solidarity, played an important international role in limiting the conflict in Korean Peninsula. But over the decades, India and the Korean Peninsula ceased being part of each other's political imagination.

As India emerges as the third largest economy in Asia (after China and Japan) and becomes part of the Asian architectures for peace and security—including the East Asia Summit and the so-called Quadrilateral Security Framework—Delhi's stakes in the Korean Peninsula are rising rapidly. Unlike some other powers, India has no disagreement with the Korean quest for peaceful reunification. A strong, united, and sovereign Korea might indeed serve India's genuine interest in a stable Asian equilibrium.

This interest is reinforced by the potential relevance of India's own national security experience over the last seven decad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resentation explores three issues. The first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nuclear weapons and peace. Not long ago, it was conventional wisdom that nuclear weapons were the principal source of conflict in South Asia. More than two decades after India and Pakistan declared themselves nuclear weapon powers, there is a growing recognition that the root causes of conflict are political. While nuclear weapons do terribly complicate South Asian security politics, the answers to peace in the Subcontinent are in the political realm and not in technical arms control fixes.

Second is the tension between the powerful imperatives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enduring appeal of political and economic reconciliation. India like Korea was partitioned a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hard-headed realism of the national security state continuously runs into the strong popular aspirations for transcending the bitter legacies of Partition.

Third is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native and the alien. In both India and Korea, the simultaneity of Partition and Cold War inevitably entangled the great powers in the regional disputes. Disentangling the internal and the external remains a daunting challenge in both the Subcontinent and the Korean Peninsula. In South Asia at least, the prospects for peace seemed to improve when the adversaries sought to negotiate on their own, without external interference.

Many would question the applicability of the South Asian experience for the Korean Peninsula; but it is certainly worth a serious reflection.



티티난 퐁슈디락 태국, 쭐랄롱꼰대학교 교수

Thitinan PONGSUDHIRAK

Chulalongkorn University, Director

티티난 퐁슈디락은 방콕 쭐랑롱꼰 대학교 교수이자 동대학교 안보국제문제연구소장이다. 태국에서 태어나 다언어 및 다문화 배경에서 자랐으며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 후, 존스 홉킨스와 런던 정경대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았다. 1997년 쓴 태국 금융위기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박사 논문은 2002년 영국 최고논문상을 받았다. 티티난 교수는 존스 홉킨스 고등국제학대학, 스탠포드 대학교, 양곤 대학교,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교, 독일 튀빙겐 대학교 등에서 객원교수로 강의했으며 현재는 여러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또한 다수의 논문, 저서, 단행본 중 일부 장을 비롯하여 방콕 포스트,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 닛케이 아시안 리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인터내셔널 뉴욕타임즈,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파이낸셜타임즈 등 대중매체에 1,000여 개 이상의 논평을 집필했다. CNN, BBC, 블룸버그, CNBC, 알자지라 등 여러 국제 매체에 인용되기도 했다. 티티난 교수는 태국 및 아세안지역의 국제정치와 지정학에 대해 투자자, 기업 컨퍼런스, 외교사절단 및 기업 이사회를 대상으로 주기적 브리핑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이시아 출판인협회에서 의견 서술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고, 2018년 3월에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장관이 선정하는 ASEAN@50 Fellow에 뽑혔으며, 2019년 5월에는 시드니 로이연구소의 호주-아세안 선임연구원으로 선정되었다.

Thitinan Pongsudhirak is Professor and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Security and International Studies at Bangkok's Chulalongkorn University. He was born in Thailand and grew up in a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background, attended high school and university in California, followed by post-graduate studies at Johns Hopkins University and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where he obtained his Ph.D. with a dissertation o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1997 Thai financial crisis. It was awarded the UK's Best Dissertation Prize in 2002. Thitinan has held visiting positions at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tanford University, Yangon University, Victoria University in New Zealand, and University of Tubingen in Germany, and currently serves on several editorial boards of academic journals.

He has authored a host of articles, books, book chapters and over 1,000 op-eds in mass media such as The Bangkok Post, The Straits times, Nikkei Asian Review, South China Morning Post,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Project Syndicate, and Financial Times. His sought-after views have appeared in international media including CNN, BBC, Bloomberg, CNBC, Aljazeera, and others. Thitinan regularly provides briefings to investors, business conferences, diplomatic missions, and corporate boards on the domestic politics and geopolitics of Thailand and ASEAN. In 2015, he was awarded a prize for excellence in opinion writing from Society of Publishers in Asia; in March 2018, he was appointed ASEAN@50 Fellow by New Zealand'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 Trade; and in May 2019, he was selected as Australia-ASEAN Fellow at Sydney's Lowy Institute.



바나리스 체앙 아시아비전연구소 소장 Vannarith CHHEANG Asian Vision Institute, President

바나리스 체앙 박사는 공공정책분석가이자 정부관계전략가다.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영 글로벌 리더(YGL)로 선정되었다. 현재는 아시아비전연구소(AVI)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리더십, 경영, 시나리오 계획과 의사결정, 파트너십 구축 및 프로세스 혁신 관련 12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다. 일본 리쓰메이칸 아시아태평양 대학에서 아시아태평양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동서문화센터의 리더십 인증서를 수여했다. 주요 연구주제는 메콩지역의 지정학과 지리경제학이다.

Dr. Vannarith Chheang is a public policy analyst and government relations strategist. He was honored Young Global Leader by the World Economic Forum in 2013. Currently he is serving as the President at the Asian Vision Institute (AVI). He has over 12 years of professional experience in leadership, management, scenario planning and decision making, partnership building, and process innovation. He received his PhD in Asia Pacific Studies from the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in Japan and a certificate in leadership from the East-West Center in the United States. His research interest focuses on the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of the Mekong region.



홍 히엡 르 동남아연구소 선임연구원

HONG HIEP Le

ISEAS - Yusof Ishak Institute, Senior Fellow

홍 히엡 르 박사는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의 베트남학 프로그램 및 역내전략과 정치학 프로그램의 선임연구원이다. 또한 연구소의 대표적 학술지인 Contemporary Southeast Asia의 편집자이기도 하다. 히엡 박사는 베트남 외교아카데미에서 학사를 받고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및 외교학 석사를 받았다. 2015년에는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에서 수상한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총리상의 재정지원으로 정치국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ISEAS 입소 전에는 베트남 외교부에 재임했으며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강의했다. 히엡 박사는 다양한 연구 및 분석 결과를 발표했으며, Living next to the Giant: The Political Economy of Vietnam's Relations with China under Doi Moi (2016)와 Vietnam's Foreign Policy under Doi Moi (2018, 안톤 쯔베또쁘 공편) 등 2권의 저서도 있다.

Dr. Hong Hiep Le is Senior Fellow at the Vietnam Studies Programme and the Regional Strategic and Political Studies Programme of the ISEAS-Yusof Ishak Institute, Singapore. He is also an editor of the institute's flagship journal Contemporary Southeast Asia. Hiep holds a BA from the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an 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 Master of Diplomacy from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In 2015, Hiep earned his Ph.D. in Political and International Studies from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funded by the Prime Minister's Australia Asia Award. Before joining ISEAS, Hiep worked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Vietnam and taught at the Facul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Vietnam National University-HCMC. Hiep's scholarly works and analyses have been widely published, including two books: Living next to the Giant: The Political Economy of Vietnam's Relations with China under Doi Moi (2016) and Vietnam's Foreign Policy under Doi Moi (2018, co-edited with Anton Tsvetov).



2021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Session 2-1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와 의미

Evaluation and the meaning of 30th anniversary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주관기관 한국통일협회

Organized by Unification Council of Korea

좌장 김형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간사

Moderator KIM Hyungki Steering Committee of the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Program Officer

발표 • 박광호 한라대학교 교수

Presenter • PARK Kwang Ho Halla University, Professor

• 임병철 남북하나재단 상근이사

· LIM Byeong Cheo Korea Hana Foundation, Director

토론 • 유종열 한국통일협회 운영위원

• RY00 Chongryul Unification Council of Korea, Operating Committee

• 김웅희 한국통일협회 운영위원

• AKIM Wunghee Unification Council of Korea, Operating Committee

• 이무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

· LEE Moo-il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Foundation, Standing Auditor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2-1)

▮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와 의미

한반도 분단은 70여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이념과 국제사회 역학구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분단구조 해체 노력을 꾸준하게 진행해 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북한의 비협력적 자세와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그리고 우리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성과가 변변치 않다. 채택 30주년을 맞는 남북기본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의 상태에서 화해협력과 평화 공존, 궁극적인 통일로 가는 기본 틀로 작용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를 그간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평가해 보고 앞으로 한반도 평화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활용할 사항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valuation and the meaning of 30th anniversary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maintained for more than 70 years. Until now, the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have been steadily making efforts to dismantle the division structure, which stems from differences in ideology and international dynamics. Unfortunately, however, North Korea's non-cooperative stance, international interests and internal conflicts have made little progress in achieving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nter-Korean Framework Agreement could serve as a framework for reconciliation, cooperation, peaceful coexistence and eventual reunification in a state of divi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e would like to evaluate the inter-Korean agreement in light of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find out what will be used to create an era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u> 좌장 Moderator</u>



김형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간사

KIM Hyungki

Steering Committee of the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Program Officer

1974년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노스웨스턴대 법학대학원 LLM을 졸업했다. 남북대화사무국 조정관, 통일원 공보관, 통일부 정보분석실장, 남북회담사무국장,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통일정책실장, 통일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부위원장, 남북정상회담준비기획단 기획통제실장,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남북회담 대표직을 수행했다. '통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이며, 경남대와 북한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연세대, 미국 우드로 윌슨센터(2006.1~2006.4)에서 초빙·연구교수 등으로 연구 및 강의활동을 했다. 2010~2019년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장으로 관련활동을 이어갔으며, 현재 평화재단 고문과 민주평통 운영위원회 간사로 있다. 〈남북관계 변천사〉, 〈남북관계 지식 사전〉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H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74 with a degree in diplomacy and from the Law School of Northwestern University in the U.S. He served as coordinator of the Inter-Korean Dialogue Office, public affairs officer of the Unification Institute, information analysis director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secretary for unification, secretary f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unification policy, and vice minister for unification. He served as a representative for various inter-Korean talks, including a member of the joint inter-Korean reconciliation committee, vice chairman of the joint inter-Korean nuclear control committee, head of the planning and control team for the inter-Korean summit. He is an "expert on unification and North Korean affairs" and has been invited and lectured by Kyungnam University and North Korean Graduate School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and Woodrow Wilson Center (2006.1-2006.4) in the U.S. He served as the head of the Peace Institute at the Peace Foundation between 2010 and 2019, and is currently an advisor to the Peace Foundation and an executive secretary of the Democratic Parallel Steering Committee. There are a number of books and papers such as "The History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Knowledge Dictionary of Inter-Korean Relations."

발표자 Presenter



박광호 한라대학교 교수 PARK Kwang Ho Halla University, Professor

1960년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서울로 이주하여 성장하고 교육받았다. 서라벌고등학교('76~'79)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80~'84)와 석사('86~'88) 그리고 박사('93~'03)학위를 받았다. 박사 논문은 '김일성 통치에서 전통의 활용에 관한 연구'로, 학위를 받는 해 서울대학교 '올해의 논문' 상을 받았다. 이 논문은 □전통─북한사회 이해의 열쇠□(서울, 한국학술정보, 2004)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 미 UC Berkeley에 visiting scholar('95~'97)로, 미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visiting fellow('01~'03)로 참여하였다. 경력으로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조교('87~'89)로 일한 바 있고, 1989년에 통일부에 입부, 국무조정실 통일안보과장('04~'06)직으로 2년간 근무한 것 외에는 30여년 동안 줄곧 통일부에서 사무관과 과장, 국장직을 역임하고 2020년 퇴직하였다. 통일부에 근무하는 동안 주로 북한정세분석, 남북회담,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 일했고, 30여 차례에 걸쳐 북한 각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현재는 원주 한라대학교에서 특임교수로 통일 및 북한 관련한 과목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한라대 내의 동북아경제연구원에서 정책본부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Born in Iksan, Jeollabuk-do in 1960, Dr. PARK Kwang Ho moved to Seoul in the 5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where he was raised and educated. He graduated from Seorabeol High School ('76-'79) and received a Bachelor's Degree ('80-'84), Master's Degree ('86-'88) and Doctorate Degree ('93-'03) in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doctoral thesis titled 'Study on the Use of Tradition in the Rule of Kim II-Sung' was awarded Thesis of the Year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ame year that he earned his degree. This thesis was also published as a book titled Tradition-Key to Understanding North Korean Society (Seoul, Korea Studies Information, 2004). He was also a visiting scholar at UC Berkeley ('95-'97) and visiting fellow at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U.S. ('01-'03).

His professional experience includes teaching assistant at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entere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following this in 1989, and except for the two years that he served as the Director of Unification and Security at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04-'06), he has served as Deputy Director, Director, and Director General a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for about 30 years before retiring in 2020. During his time a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is service focused on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Korean dialogues, and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He also visited North Korea on about 30 different occasions.

Currently, he teaches North Korea and unification-related subjects as Collaboration Professor at Halla University, Wonju, and also serves as head of Policy Division at Northeast Asi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t Halla University.

Session 2-1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와 의미

Evaluation and the meaning of 30th anniversary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남북기본합의서, 오늘의 함의; 서명 30주년에 부쳐

박광호 한라대학교 교수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의 총리가 서명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서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이보다 더 적절하게 규정한 문서는 남, 북 각각의 법률, 각종 남북 합의서를 통틀어 찾아볼 수 없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 합의서는 상대방의 내정 불간섭, 공고한 평화상태 추구, 무력 불사용, 자유로운 교류협력과 왕래.접촉 등 통일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를 가장 완전한 형태로 규정해 놓은 문서이다. 남과 북이 이 합의서 내용만 실천해 왔다면 아마도 30년이 흐른 지금쯤 거의 통일에 버금가는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나 최고의 완성도를 보여준 이 합의는 서명된 지 채 일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빠르게 형해화하기 시작해서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에는 거의 언급도 된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만 이 합의의 정신에 따라 2016년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이 가장 늦게까지 간간이 이어져 왔고, 남북교류는 민족내부 거래로 간주되어 관세없이 진행되게 되었다.

현 시점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수많은 남북간 합의들 가운데 지켜지는 것은 거의 없고, 일부 지켜지더라도 그것은 남측만 구속하고 있을 뿐이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남북관계에서는 통일을 향한 거대담론을 담기 위한 합의나 각자의 정치적 수요에 따른 합의를 위한 합의를 지양하고, 이행의 강제성이 없는 환경 속에서 국제적 틀로써 이행이 담보되는 합의, 서로에게 도움이 됨으로써 생명력을 지켜가는 합의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Session 2-1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와 의미

Evaluation and the meaning of 30th anniversary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Inter-Korean Basic Agreement, Implications for Today; **Marking the 30th Anniversary of Signing**

PARK Kwang Ho

Halla University, Professor

Th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defined as "a special relationship that is provisionally formed in the process of pursuing unification rather than state-to-state relations." This is a phrase from the preamble to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igned by the Prime Ministers of both Koreas on December 13, 1991. Sinc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 have been no laws in either Korea or other inter-Korean agreements that have more adequately defined inter-Korean relations than this agreement. In addition, this agreement is the most complete document that sets out the milestones for unification, such as non-interference in the other country's internal affairs, pursuit of a solid state of peace, non-use of force, free exchange, cooperation, passage, and contact. If the two Koreas had only followed through with this agreement, they would have reached a state comparable to unification by now, 30 years since the signing.

However, this thorough agreement quickly began losing its meaning, only leaving its shell behind, less than a year after it was signed. After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in 2000, it was hardly mentioned.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this agreemen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had continued intermittently until recently whe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closed in 2016. Meanwhile, inter-Korean exchanges, considered international transactions within a nation, were able to proceed without any tariffs.

Few of the numerous inter-Korean agreements, including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re abided by at this point in time, and even those few that are observed are binding only on South Korea. In this context, future inter-Korean relations should stay away from any agreement for the sake of agreement aimed simply at embodying a grand discourse towards unification or satisfying the political demand of each country. Rather, we should seek agreements that guarantee implementation as an international framework in an environment where implementation is not compulsory, and agreements that preserve vitality by being of help to both parties of the agreement.

발표자 Presenter



임병철 남북하나재단 상근이사 **LIM Byeong Cheol** Korea Hana Foundation. Director

임병철 이사는 1990년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1991년 통일부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2019년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사무소장(하나원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퇴직할 때까지 28년간 통일부의 정책기획, 교류협력, 정세분석,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고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통일부를 퇴직한 이후에는 남한국민과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장 통일교육의 메카로 알려진 오두산통일전망대 통일관장을 역임하였으며, 2021년에는 남한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의 상근이사 겸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1985년에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입학하였고, 1990년에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에 입학하여 남북협력기금 운용방향의 개선에 대한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0년에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통일학협동과정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심리적 적응에 대한 주제로 박사논문을 작성하고 있다. 그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고 1991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해 오랫동안 실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집행해 왔다. 아울러 통일에 대한 남한국민들과 외국인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홍보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껴왔다. 특히 법적, 제도적 통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통일은 남북한 주민의 사회통합에 성패 여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 주민의 사회통합 효율적 추진방안과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강의를 통해 적극 알리고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1996년에 공군참모총장 표창, 1999년에 통일부 장관 표창, 2019년에는 공직자의 최고영예라고 할 수 있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임병철 이사는 통일부에서 오랜 정책 실무경험과 특히 4년 이상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로운 통일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및 강의활동과 정책집행 업무를 통해 맡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Mr. LIM passed the administrative high school entrance exam in 1990 and started working fo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n 1991 and worked through major posts such as policy planning, exchange cooperation, analysis, unification education, and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until I retired from office in 2019. After retiring from the Unification Ministry, he served as the unification director of Odusan Unification Observatory, known to South Koreans and foreigners as the mecca of field unification education. And in 2021, he served as a full-time director and management planning director of the Unification Ministry's North Korean Refugee Support Foundation. He entered the Department of Media Inform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85, and entered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90 to obtain a master's degree under the theme of improving the direc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funds. In 2010, he entered Yonsei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Unification Cooperation and completed the Ph.D. program, and now he is writing a Ph.D. thesis on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He has long established and implemented policies on the ground in order to resolve the

발표자 Presenter

issue of unific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mplement the Framework Agreement agreed in 1991. In addition, he has felt the importance of positively improving the perception of South Koreans and foreigners about unification and promoting the need for unification. In particular, he believes that not only legal and institutional unification but also true unification depends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As a result, we are actively promoting and gaining support for the efficient social integration of the residents of the two Koreas through various lectures. He received the Air Force Chief of Staff's commendation in 1996, the Minister of Unification's commendation in 1999, and the Order of Honour, the highest honor of public officials, in 2019. He is confident tha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as been in charge of creating a peaceful unification atmospher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long working-level policy experience and, in particular, more than four years in charge of supporting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He will continue to do his bes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lecture activities and policy execution.

Session 2-1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와 의미

Evaluation and the meaning of 30th anniversary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 및 평화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

임병철 남북하나재단 상근이사

19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탈냉전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정립한 강령적 성격을 띄었다. 대립과 반목의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개막하기 위한 실천강령이었다. 특히 전문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여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는 한편 통일 지향의지를 함께 함축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제1차 북핵위기가 시작되면서 북한은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무효화시키고, 합의서 이행을 거부해왔다. 또한 기본합의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반복된 것은 남북이 관계개선을 모색할 때마다 터져나온 북미관계 악화가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는 이행에 있다. 앞으로의 협상에서 남북한이 그동안 합의한 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북한의 실천의지를 확인하고는 이행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기본합의서의 이행에 합의한다면.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절차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장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서독과 동독 사이에 1972년에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과정에서 국회와 국민참여를 법제화하여 남북간 합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권과 무관하게 일관된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통일은 한반도의 분단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목표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만큼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여서는 안된다. 그래야 한반도 문제의 국제문제화를 막을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의 장전으로 간주되어 온 기본합의서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 헌법 4조에 나와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다.

Session 2-1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평가와 의미

Evaluation and the meaning of 30th anniversary of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Implications of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nd Our Work **Toward Peaceful Unification**

LIM Byeong Cheol

Korea Hana Foundation, Director

'Inter-Korean Basic Agreement,' which took effect in 1992, was a doctrine in nature that was established to explore the new direction for developing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era of post-Cold War. It was an a code of practice to leave behind inter-Korean relations characterized by confrontation and hostility to initiate that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It is particularly meaningful that the Preamble recognized the divided reality while implying the commitment toward unification by stipulating "inter-Korean relations as a special relationship that seeks unification and not an ordinary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However, with the beginning of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North Korea nullified the Basic Agreement and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refused to implement the Agreement. Another reason for repeated tensions despite the Basic Agreement is the aggravation in the U.S.-North Korea relations every time the two Koreas seek to improve their relations. The problem lies in implementation. Future negotiations must find ways to confirm North Korea's commitment and guarantee its implementation by taking each and every item agreed thus far by the two Koreas. Once North Korea agrees to implement the Basic Agreement, it will alleviate worries about declaring the end of the war and secure an institutional assurance for managing the transition procedure to a peaceful regime. Just like the 1972 Basic Treaty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we should also legislate the particip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eople in the process of signing and ratifying the inter-Korean agreements in order to enhance reliability of agreements between the two Koreas and ensure consistent unification policy regardless of which administration is in office. Unification is the final goal to achieve ultimate resolution of division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U.S.-North Korea relations are strained, we, as the direct party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not give up our role as the mediator. Otherwise, we cannot prevent the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becoming an international problem. Alongside thorough implementation of the Basic Agreement,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the Code of Practice for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and peaceful unification, establishment of a peaceful regime through end-of-war declaration and Peace Treaty will be a way to accelerate "peaceful unification based on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as provided in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한국통일협회 운영위원 **RY00 Chongryul** Unification Council of Korea, Operating Committee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통일부에서 30년 가깝게 재직(1983~2011)하였다. 통일부 재직기간 중 각종 남북회담에 참여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사무소장, 납북피해자지원단장, 6.25납북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퇴직 이후 현재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 객원교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역량지도교수로 강의활동을 하고 있다.

After graduat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s law school, he completed his master's degree at the same graduate school, and served i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for nearly 30 years (1983-2011). During his tenure a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e participated in various inter-Korean talks, and served as the head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Office, the head of the Abductor Victim Support Group, and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6.25 Committee for the Investigation of Abductor Victims. Since his retirement, he has been teaching as a guest professor at the Central Public Service Education Center and a competency guidance professor at the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Service Redevelopment.



김웅희 한국통일협회 운영위원 KIM Wunghee Unification Council of Korea, Operating Committee

김웅희 토론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공: 윤리교육)을 졸업(1982.2)하고 통일부(1981.8 - 2013.4)에서 하나원 원장과 남북회담본부 본부장으로 재임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2013.5 - 2016.5)의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Kim Wunghe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jored in ethics education)(1982.2). In the Unification Ministry (1981.8 - 2013.4), he served as the head of the Inter-Korean Dialogue Headquarters. He was also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for support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2013.05 \sim 2016.05)



이무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상임감사 LEE Moo-il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Foundation, Standing Auditor

1988년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의 일본언어문화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통일부에 입주하여 28년간 근무하면서,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남북회담본부 운영부장 및 기획부장, 통일교육원 교수부장, 통일부 정세분석국장,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및 통일교육원장(겸임)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시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며 국정과제 수립에 참여하였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통일부 산하기관인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서 상임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연구원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He graduated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in 1988 and graduated from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majoring in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After joining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n 1991, he served as director of planning and finance, director of operation and planning of the inter-Korean talks headquarters, director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director of the Unification Ministry, representative of the inter-Korean talks headquarters, and director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During Moon Jae-in's administration, he worked on the national political agenda and joined the foreign and security of the Advisory Committee. He also worked in administrative planning and took part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aesong Joint Liaison Office and worked as an assistant of the chairman and Head of the Steering Group. Currently, he works as a standing auditor at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Support Foundation, an agency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he is also a researcher at the Korea Institute for Social Integration.

평화의 개념들과 한반도 평화 비전

Concepts of Peace and Korea Peace Vision

주관기관 통일연구원

Presenter

Discussant

Organized by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작장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

Moderator PARK Myoungkyu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ndowded Professor

발표 • 정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팀장

• JUNG Hyuk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TRCK),

Deputy Director

· 허지영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 HEO Ji Young Seoul Institute, Visiting Research Fellow

• 주윤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 J00 Yunjeong ISDPR,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ellow

토론 •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수

• SOEYA Yoshihide Keio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 이성용 뉴질랜드 오타고대학교 교수

· LEE SungYong University of Otago, Associate Professor

• 강혁민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

• KANG Hyukmin Kangwon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enior Researcher

·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SUH Bo-hyuk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Fellow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2-2)

▋ 평화의 개념들과 한반도 평화 비전

2018년 이후 평화 담론이 유행하고 있지만 평화 개념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부족해 한반도 평화 비전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 국가/군사안보 혹은 소극적 평화론에 한정되어 있다. 평화를 전쟁부재와 함께 생명, 삶의 질, 공존, 다양성 등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비전을 풍부하게 사고할 기회를 갖는다. 이로써 평화 담론의 확장, 평화의식의 증진. 그리고 평화정책의 지지 기반 확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Concepts of Peace and Korea Peace Vision

Although a peace discourse has been around since 2018,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peace has been lacking so the vis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subsequently limited merely to the concept of national/ military security such as denuclearization, a peace regime, or a negative peace theory. This session allows us to contemplate and envision a vis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various concepts of peace, such as an absence of war, life, quality of life, coexistence, and diversity. This process is expected to facilitate an enhancement of peace discourse, the promotion of peace consciousness, and an expansion of the foundation for the peace policy.

좌장 Moderator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

PARK Myoungkyu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ndowded Professor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로 한국사회사, 역사사회학, 남북관계, 민족주의, 개념사 등을 연구하는 사회학자이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옌칭연구소, UC버클리, 베를린자유대학, 큐슈대학 등에서 교환교수와 방문학자를 지냈다. 한국사회사학회 회장, 북한사회문화학회 회장,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등을 역임했고 2006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을 설립하여 2016년까지 10년간 원장을 맡아 북한 연구, 남북관계, 평화 연구를 주도했다.

종합적인 평 화학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통일의식조사, 남북통합지수, 연성복합통일론 등 새로운 연구 방식을 주도했다. 2017년 한국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첨단기술변동과 사회문화적 전환에 대한 연구를 주도했다. 저서 "국민, 인민, 시민』, 『꿈의 사회학』,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등이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 도서로 선정되었다. 이외에 『남북경계선의 사회학』을 비롯하여 『한국사회사』, 『개성공단』, 『연성복합통일론』, Civilizing Emotions, EU-North Korea: Humanitarianism or Business? 등 많은 논거가 있다.

Park Myoungkyu is a professor emeritus in Soci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n endowed professor at GIST. He received his B.A., M.A., and Ph.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erved as an exchange professor and a visiting scholar at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UC Berkeley, Freie Universitaet Berlin, and Kyushu University. Professor Park established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6 and served as the president for 10 years until 2016. His research fields are social history, sociology of nation and national identity, inter-Korean relations, conceptual history, and peace studies.

Professor Park stressed the need for establishing comprehensive peace studies and took the initiative in introducing new research methods, such as a survey of perception on unification, inter-Korean integration index, and a theory of flexible and complex unification. He was also previously a president of the KSA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in 2017 and led research on changes in the state-of-the-art technologies and shifts in the sociocultural realm. His works have been selected as an outstanding publication in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including Nation, People and Citizen; Korean Political Subjectivities from Conceptual History; Sociology of Dreams; and Social Value and Social Innovation (all in-Korean). He also wrote several books and articles including Sociology of Borderline in Inter-Korean Relations (in-Korean, Seoul: Changbi Co., 2012); History of Korean Society (in-Korea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Korean); Flexible Complex Unification (in Korean, co-work, 2010); and Civilizing Emotions, EU-North Korea: Humanitarianism or Business?

발표자 Presenter



정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팀장

JUNG Hyuk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TRCK), Deputy Director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통일과 평화운동 활동가로 일했으며, 2015년 독일 베를린 엘리스잘로몬 대학에서 상호 문화적 갈등관리석사를, 2020년 베를린자유대에서 최 우등(summa cum laude)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대외협력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로는 인권 및 평화 이론, 시민사회, 전환기 정의, 비판적 담론 분석 등이며, 현재 북한인권문제의 담론적 구성에 관해 쓴 박사학위 논문의 영문 단행본을 준비하고 있다.

Jung Hyuk received a B.A. in Political Science from Yonsei University. In 2005, he started his career as an NGO activist in the field of peace and unification movement. He then did his M.A. in Intercultural Conflict Management at Alice Salomon University Berlin (2015) and earn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at Freie Universität Berlin (2020), where he was awarded summa cum laude. Currently, he is a Deputy Director of the Communication Division at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Korea. His area of research interest includes theories on human rights and peace, civil society, transitional justice, an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He is currently working on turning his dissertation into a book manuscript focused on the discursive construc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s.

평화의 개념들과 한반도 평화 비전 Concepts of Peace and Korea Peace Vision

적극적 평화와 한반도

정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팀장

오랫동안 평화는 전쟁의 부재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되어 이해되어왔으며,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유토피아적 이상향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현대 평화연구의 기여로 인해 평화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심화·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체계적으로 조명될 수 있었다. 바로 그 핵심에 요한 갈퉁의 '적극적 평화' 개념이 있다. 이 발표에서는 '적극적 평화' 개념의 등장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이 개념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적극적 평화' 개념은 기존 국가중심적, 현상유지적 국제관계이론에 도전하는 일종의 학술운동(research movement)의 차원에서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도는 특히, '구조적 폭력'의 개념 도입을 통해 평화가 인권, 사회정의, 생태 등 다양한 실천 의제들과 결합하여 현실 속에서 '구축 가능한' 목표로 인식되는데 기여했다. 한반도 맥락에서 '적극적 평화' 개념은 정전상태, 즉 전쟁의 중단 상태에도 불구하고 왜 일상에서 비평화적 구조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지 설명해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론적 구조주의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인 평화건설을 위해 실천가능한 활동들이 무엇인지 제시해준다.

평화의 개념들과 한반도 평화 비전 Concepts of Peace and Korea Peace Vision

Positive Peace and the Korean Peninsula

JUNG Hyuk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TRCK), Deputy Director

For a long time, peace had been construed as the absence of war and regarded as a utopian ideal that is essentially impossible to achieve. However, thanks to the contribution of contemporary peace research that has been actively conducted since the 1960s, the concept of peace has not only been continuously deepened and expanded but it also has been systematically illuminated to highlight the way in which it is related to everyday problems. At the very heart of this development lies Johan Galtung's concept of 'positive peace.' In this presentation, I will examine what this concept would mean for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 what context the concept was developed in the first place. First,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oncept of 'positive peace' emerged as part of the (peace) research movement that aimed to challenge the state-centric, status quo-oriented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paradigm shift initiative has contributed to the understanding of peace as a 'buildable' goal in real world by connecting it with various practical agendas such as human rights, social justice,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particularly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structural violence.'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concept of 'positive peace' is especially significant as it helps explain why so-called 'peacelessness' is constantly reproduced in everyday life, despite the enduring ceasefire. And yet, despite that, it also helps us not to fall into deterministic structuralism and provides various practicable alternatives for constructing positive peace on the ground.

좌장 Moderator



허지영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HEO Ji Young** Seoul Institute, Visiting Research Fellow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국제평화학을 전공하고 베를린 자유대에서 고질갈등이론의 관점에서 남남갈등을 연구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 연구원 서울평화연구센터에서 초빙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비확산 정책, 유럽연합 외교정책, 고질갈등이론, 내러티브정체성, 국가정체성, 갈등전환과 평화구축 이론 등이 주요 연구분야이다.

Heo Ji Young is a visiting associate research fellow at the Seoul Institute. She was awarded her Ph.D.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t Freie Universität Berlin and her M.Phil. in International Peace Studies at Trinity College Dublin.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non-proliferation of WMD, EU foreign policy, intractable conflicts, narrative identity, national identity, conflict transformation and peacebuilding.

평화의 개념들과 한반도 평화 비전 Concepts of Peace and Korea Peace Vision

안정적 평화와 한반도

허지영 서울연구원 초빙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안정적 평화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한반도에 적용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정적 평화는 볼딩(Boulding 1978)이 처음 제시했으며 장기간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를 단계나 유형에 따라 범주화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불안정한 평화는 전쟁 발발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평화가 규범으로 여겨지며 전쟁은 평화의 규범이 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를 가리키며, 안정적 평화는 전쟁의 가능성이 너무 낮아서 관련국들이 전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안정적 평화는 국가나 민족 간 갈등해결 방안으로 정책 옵션에서 전쟁이나 무력의 사용을 배제하는 인지적인 개념인 동시에 국가 간 오랜 기간 지속되는 평화를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안정적 평화는 평화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되며 안정적 평화의 구축은 관련국의 정치적 의도에 달려있다.

안정적 평화이론은 갈등이 해소된 이후 불안정한 평화의 상태로부터 안정적 평화로 전환되는 과정과 단계 그리고 조건 등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갈등전환과 평화구축 사례에 적용하여 연구하고 논의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휴전협정 이후 전면적 무력 충돌은 부재했으나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개시될 수 있는 불안정한 평화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남북한의 상황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해주며, 특히 안정적 평화구축 단계와 프로세스 그리고 필요조건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 평화로 전환하기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 설계에 대한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적 차원의 안정적 평화구축과 양자관계에서의 안정적 평화구축에 관한 연구와 분석들은 남북한 간 안정적 평화구축을 위한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조건이나 반대로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구축이 가져올 수 있는 지역적 이익에 대한 연구 등은 국제적 수준에서 한반도 평화구축 방안과 중요성을 탐구하는데 유용하다.

평화의 개념들과 한반도 평화 비전 Concepts of Peace and Korea Peace Vision

Stable Peace and the Korean Peninsula

HEO Ji Young

Seoul Institute, Visiting Research Fellow

The aim of the study is to introduce the concept of stable peace and to apply it to the Korean case. Kenneth Boulding first suggested the concept of stable peace in 1978 by distinguishing between stable and unstable peace. According to Boulding, stable peace is defined as a condition where the probability of war is so small that it does not really enter into the calculations of the peoples involved"(p. 13) and unstable peace, as a situation in which peace is the norm and "war is regarded as a breakdown of peace, which will be restored when the war is over"(p.12). The key point of stable peace is that conflicts between or among states or other actors are consistently resolved without turning to military means.

The stable peace theory can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the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of all, it can provide an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which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can be defined and explain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have been no direct massive violent conflicts since the truce in 1953 but without having any peace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there still exist high possibilities that war between the two can begin at any time. Thus, studies on the process and conditions to transform unstable peace to stable one can shed light on what policies should be adopted and what conditions be necessary to build st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Lastly, given that scholars generally discuss the concept of stable peace at the regional level, it can be further examined, on one hand, how regional cooperation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can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and consolidation of st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r, on the other hand, in what way peacebuilding between the two Koreas can lead to regional peacebuilding in Northeast Asia.

발표자 Presenter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J00 Yunjeong

ISDPR,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ellow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인권 사회학, 인간-동물 관계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다 종간(multi-species) 정의와 평화의 문제로 연결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역사: 한국 시각장애인의 저항과 연대』(2020), 「경이와 돌봄의 정동:천 성산과 제주의 여성 지킴이들,(2020) 「법 앞에서: 형제 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해방과 기다림의 정치,(2018)등이 있다.

She is a research fellow at the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ISDPR),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 main interests lie in sociology of human rights and human-animal relations, weaving them into multi-species justice and peace. Her works are as follows: Invisible Histories: Resistance and Solidarity of the Korean Blind (in-Korean, 2020); "Wonder, Care and Affective Ecology: Feminist Ecologists of Chunseong Mountain and Jeju Island" (in-Korean, 2020); and "Before the Law: Liberation of Brother Asylum Survivors and their Politics of Waiting (in-Korean, 2018)."

평화의 개념들과 한반도 평화 비전 Concepts of Peace and Korea Peace Vision

생태평화와 한반도

주윤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이 발표는 생태평화의 핵심적 개념을 소개하고 한반도에의 함의를 논의한다. 생태평화는 현재 평화학에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문제의식이자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DMZ 등의 생태적 이용과 관련하여 생태평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역사적으로는 전쟁지역과 분쟁지역에서의 생태파괴, 그리고 에코사이드 등 대규모 자연에 대한 파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으며, 일종의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구축을 위해 생태평화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시작되고 있다. 또한 평화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간-동물관계, 혹은 포스트휴먼적 관점에서 인간만의 평화가 아니라 인간너머(more than human) 존재들과의 공존, 평화를 논의하는 문제의식도 심화되고 있다. 한편 동물행동학에서는 인간-동물간의 평화만이 아니라. 동물의 무리에서는 평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것을 생물체의 본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인간중심적 관점의 생태평화론부터 탈인간중심적인 생태평화론까지 개념을 고찰하고 이것이 한반도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에는 DMZ 접경지대에 대한 관심. 그리고 북한과의 생태보전협력. 국토에 대한 난개발 과정에서 생태평화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평화체제가 구축과정에서, 생태화와 군사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던 접경지대를 어떻게 생태적 방식으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안적으로 개발할지는 중요한 미래의 과제이다. 또한 북한과 다양한 생태보전 협력의 과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나갈 것이 필요하다. 국경을 넘어 철새 등 동물들은 이동하고 있기에, 생태적 측면 혹은 탈인간중심적 관점에서는 국경은 단절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에는 근대 이후 지나친 난개발로 인해. 인간-동물의 평화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 근대 이후의 각종 개발로 동물들의 핵심 서식지는 파괴되었으며, 다양한 생물체들이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 상태에 놓여있다. 이런 개발패러다임이 인간-동물간의 평화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성찰해, 탈인간중심적인생태평화론을 기반으로 새로운 한반도의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평화의 개념들과 한반도 평화 비전 Concepts of Peace and Korea Peace Vision

Peace Ecology and the Korean Peninsula

J00 Yunjeong

ISDPR,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ellow

This presentation introduces key concepts of peace ecology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Peace ecology is a new issue and emerging concept in peace studies. Although an interest in peace ecology has been increasing in relation to the ecological development of the DMZ in South Korea, its conceptual definition is somewhat insufficient.

Historically, it arose out of interest in ecological destruction in war zones and conflict zones, and large-scale destruction of nature such as ecocide. Against this backdrop, active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peace ecology began to establish a form of restorative justice. In addition, as the interest in sustainable development has increased in the peace studies, consideration of the ecosystem becomes more crucial. Recently, from a human-animal relation or a post-human perspective, not only peace among human but also coexistence and peace with beings more than human are emphasized. On the other hand, in animal behavior studies, there is a discussion about how peace is possible not just between human and animal but also in animal communities. This presentation will address the concept of peace ecology from an anthropomorphic perspective to a post-anthropomorphic peace and what kinds of implications it would have on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peace ecology is attracting wider attention on the Korean Peninsula driven by the need for alternative development of DMZ border area, ecological conservation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reckless exploitation of nature in land development process.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how this development paradigm is destroying human-animal peace and what implications it has on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envisioning a new vision of post-anthropomorphic peace ecology.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수 **SOEYA Yoshihide** Keio University, Professor Emeritus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는 게이오 대학의 명예교수로서 32년 간 법학부의 정치학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2020년 3월에 명예퇴직을 하였다. 소에야 교수는 1987년 미시간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국무총리실에서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21세기 일본의 구상 위원회'에서, 2010년에는 '새 시대 안보 및 국방 위원회'에서 근무했다. 과거에는 국방부 방위시설 위원회 위원(2000~2009) 및 외무부 고문단(2003~2013)을 역임하였다. 소에야 교수의 주요 연구분야는 동아시아 정치와 안보, 일본의 외교와 대외관계이다. 최근 발간한 영문 저서로는 "헌법 수정의 잘못된 방향: 헌법 제9조와 안보정책" 일본의 헌법 수정주의와 시민 운동 (편집자: 헬렌 하르다크르 외)(출판: 메릴랜드 랜햄: Lexington Books, 2021); "인도태평양지역의 미들파워 협력" Issues & Studies 56, no. 2 (2020.06); "아시아 내 중국의 부흥: 일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국의 부흥이 평화로울 것인가? 안보, 안정, 적법 (편집자: 아슬레 토예 외) (출판: 옥스퍼드: Oxford University Press, 2018)가 있다.

SOEYA Yoshihide is a Professor Emeritus of Keio University, from which he retired in March 2020 after having served as a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the Faculty of Law for 32 years. He received his Ph.D. in world politics from the University of Michigan in 1987. During 1999-2000, Dr. Soeya served in the "Prime Minister's Commission on Japan's Goals in the 21st Century," and, in 2010, the "the Council on Security and Defense Capabilities in the New Era," both of which were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He was also a member of the "Central Council on Defense Facilities" (2000-2009, Agency/Ministry of Defense), and of the Advisory Group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3-2013). His areas of interest are politics and security in East Asia, and Japanese diplomacy and its external relations. His recent publications in English include "Constitutional Revision Going Astray: Article Nine and Security Policy," Helen Hardacre, et al., eds, Japanese Constitutional Revisionism and Civic Activism (Lanham, MD: Lexington Books, 2021); "Middle Powe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Era," Issues & Studies, Vol. 56, No. 2 (June 2020); and "The Rise of China in Asia: Japan at the Nexus," in Asle Toje, ed., Will China's Rise be Peaceful? Security, Stability, and Legitim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이성용 뉴질랜드 오타고대학교 교수

LEE SungYong University of Otago, Associate Professor

이성용은 뉴질랜드 오타고대학교 소속 국립평화분쟁연구소의 교수이다. 그 동안 분쟁해결, 협상 중재, 전후 복구, 평화구축과 관련한 자유주의 모델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30여편의 학술지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현재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의 평화학 분과 Program Chair (2022-2023), 뉴질랜드 왕립학회 오타고 지역 평의회 의원, UN뉴질랜드협회 지역 평의회 의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Multi-level Reconciliation and Peacebuilding (2021,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Local Ownership in Asian Peacebuilding: Development of Local Peacebuilding Models (2019,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n Introduction (2016,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and Local Ownership in International Peacebuilding (2015,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등이 있다.

Lee SungYong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the National Centre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Otago, New Zealand. His research primarily centers on conflict resolution, third-party mediation, post-conflict reconstruction, and postliberal models of peacebuilding. He is serving as a Peace Studies Section Program Chair of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 regional council member of UN Association of New Zealand, and a regional council member of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His recent books include Multi-level Reconciliation and Peacebuilding (2021,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Local Ownership in Asian Peacebuilding: Development of Local Peacebuilding Models (2019,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n Introduction (2016,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and Local Ownership in International Peacebuilding (2015,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강혁민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

KANG Hyukmin

Kangwon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enior Researcher

강혁민 박사는 아일랜드와 뉴질랜드에서 평화학으로 학위를 받은 뒤, 현재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자전적 내러티브를 분석하여 피해자 중심주의와 화해의 의미를 밝혀냈다. 강혁민의 학문적 관심사는 화해, 피스빌딩, 그리고 이행기 정의이며 최근에는 탈자유주의 평화 론과 경합주의 평화 론을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내러티브이론으로 보는 피해자 회복탄력성 연구 (2020)"와 "분단적대성의 평화적 전환을 위한 최대 주의 화해 연구 (2021)"등이 있다.

Dr. Kang Hyukmin received his M.A. in Ireland and Ph.D. in New Zealand in peace studies. He is a senior researcher at the Kangwon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is doctoral dissertation explores victim-centredness and meanings of reconciliation through the lens of victims' autobiographical narratives of state-led violence. His academic interests include reconciliation, peacebuilding, and transitional justice. Recently, he focused on post-liberal peacebuilding and agonistic peace. His selected articles are "A Research on Victims' Resilience through Narrative Theories (2020)" and "Deep Reconciliation for Peaceful Transformation of Division Antagonism(2021)."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SUH Bo-hyuk**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Fellow

서보혁은 통일연구원 평화 연구실 연구위원이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북정책에 관해 오랜 기간 정부 및 비정부기구에 자문을 해오고 있다. 최근 저작으로 "평화 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공저), 『분쟁의 평화적 전환과 한반도』(공평), 『한국인의 평화 사상 1, 2』(공평), 『한국 평화 학의 탐구』, 『분단 폭력: 한반도 군 사화에 관한 평화 학적 성찰」, 『평화운동: 이론·역사·영역,(공평), 『세계평화사상사,(공저),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공저) 등이 있다.

Mr. Suh Bo-hyuk is a research fellow of the Peace Research Division at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Dr. Suh was a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P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n expert adviser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Dr. Suh majors in political science, especially in the peace and human rights issue in the context of protracted conflict. He has been advising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n North Korea policy of the ROK government. His recent writings include The Vision and Direction of Peace Economy (Co-authored, Korean, 2020), Peace Studies from Korean Perspectives (Co-edited, Korean, 2019), Peaceful Transition of Conflicts and Korean Peninsula (Co-edited, Korean, 2020), Korean Peace Thoughts, (Co-edited, Korean, 2018), North Korean Human Rights: Crafting a More Effective Framework (2016), Division Violence (Co-edited, Korean, 2016), and Asia-Pacific between Conflict and Reconciliation (Co-authored, 2016).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주관기관 통일비전시민회의

Organized by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좌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Moderator KIM Kyung-min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General Secretary

발표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LEE Taeho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o-chair of steering committee

•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 LIM Hunjo Korea NGO Association, Co-representative

• 한희승 통일국민협약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단원

• HAN Heeseung Social Dialogu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ract', Participant

토론 •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 JHE Seongho Chung-Ang University Law School, Professor

• 엔자이칸 잘갈사이칸 몽골 블루배너 의장

• ENKHSAIKHAN Jargalsaikhan Blue Banner NGO, Mongolia, Chairperson

•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YEO Hyesook Women Making Peace, Co-representative

• 유희재 ORP 연구소 부대표

• YOO Heejae ORP Institute, Vice President

• **로렌스 필브룩** 문화문제연구소 소장

• Lawrence PHILBROOK The Institute of Cultural Affairs Taiwan, Director

• 김태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

• KIM Taehyon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Director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2-3)

▮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지난 70여 년 간 한국 사회는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남북관계 관련 정책으로 소모적인 남남갈등이 점차 심화하였고, 정작 국민들은 자신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미래 설계에 배제되어 왔습니다.

평화 통일에 관한 국민협약이 만들어진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고 발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믿었던 시민단체, 종교인들, 연구자들은 여러 해 동안 이 협약의 필요성을 제안해왔습니다. 그 후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대선 공약중 하나로 발표하였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7대 종교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는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 민간추진기구인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약칭 통일비전시민회의)를 구성하고 2018년부터 정부(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평화와 통일에 관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사회적 대화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토론 의제와 숙의 모델을 개발해왔습니다. 그 결과 4년간 연인원 6천명이 이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통일비전시민회의와 통일부는 2020년 7월부터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지역, 성별, 연령, 정치성향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한 약 300명의 시민들의 예비대화를 거쳐, 이 중 선정된 100여 명의 시민참가단이 총 8회(매회 8시간)의 숙의를 거쳐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을 통해 '통일국민협약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경과와 시민들이 직접 만든 협약안을 소개하고, 첨예한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의 사회적 합의 가능성과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2-3)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ivil society organizations, religious communities, and experts believed consistent and constructive policy implementation would be possible regardless of regimes if a national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has been made. They have proposed the need for the agreement for many years indeed. President Moon Jae-in announced 'The National Unification Contract' as one of his presidential election pledges, and he has proceeded it as a national policy after the election in 2017. Seven major religio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rom the conservatives, centrists, and liberals, founded the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an independ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social dialogue. Since 2018 we have held social dialogues of various forms and contents on peace and unification and developed discussion agendas and a model for deliberative discussions in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a total number of 6,000 people a year engaged in these social dialogue conversations for four years.

The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ave been proceeding the social dialogue to adopt the 'National Unification Contract' since July 2020. About 300 people selected by a trusted polling agency considering the balance of region, gender, age and political orientation had the preliminary social dialogue. About 100 civic participants were selected through the pre-social dialogue, and they engaged in eight deliberative discussions (8 hours each) to adopt the 'National Unification Contract' and proposed it to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would like to introduce the progress of the social dialogue and the 'National Unification Contract' made and adopted by people at the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and share the possibility and meaning of social consensus on the sharp issue of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u> 좌장 Moderator</u>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KIM Kyung-min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General Secretary

김경민은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다. 1990년 대구YMCA에서 자원봉사자로서 일하며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상인동 가스폭발사건 등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큰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하였다. 2006년 대구YMCA 사무총장으로 취임 후에는 담장허물기운동, 마을 만들기 운동, 사회적 기업 희망 자전거 등을 통해 공동체 성과 환경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운동을 이어갔다. 2018년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였으며, 청년, 기후 위기, 노동인권, 동아시아 평화 등 다양한 국내 및 국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의 상임의장,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Mr. KIM Kyung-min is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In 1990, he started a civic movement by working as a volunteer at the Daegu YMCA. Since then, he had worked in Daegu YMCA mainly for fact-finding of the big issues in Daegu including the Nakdong River phenol contamination and Sangin-dong gas explosion. After taking office as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Daegu YMCA in 2006, he continued movements focusing on community and environmental values for example through the wall removal movement, community-building movement, and social enterprise Hope Bicycle. He was appointed general secretary of the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in 2018, and has been carrying out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movements, including issues of youth, climate crisis, labor rights, and peace in East Asia. He is a co-permanent president of the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PUB of Korea), a standing representative of the South Korean Committee on June 15th Joint Declaration, and a co-representative of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 Network in Korea (CSONK).

발표자 Presenter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LEE Taeho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o-chair of steering committee

이태호는 한국의 시민운동가이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겸 평화군축센터 소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다. 그는 1995년, 참여연대에 상근을 시작한 이래 권력남용방지, 정치개혁, 평화구축, 인권 증진과 관련된 다양한 시민행동에 관여해왔다.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 민간기구인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Mr. LEE Taeho is a civil activist in South Korea. He is a chair of Policy Committee and a director of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of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a watchdog NGO based in Seoul, and a co-chair of steering committee of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 Network in Korea (CSONK), which has over 300 member CSOs. Joined PSPD in 1995, he has been engaged in various civil activities to prevent state power abuse, reform political systems, and promote peace and human rights. He is a co-chair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PUB of Korea), an independ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social dialogue.

발표자 Presenter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LIM Hunjo Korea NGO Association, Co-representative

임헌조는 25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Korea NGO Association) 상임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이다.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거쳐 민중당(Minjung Party), 민주노동당(Democratic Labor Party) 창립 멤버로 활동했다. 이후 전향하여, 2005년 뉴라이트전국연합(New Right Union) 초대 사무처장, 2010년 선진통일연합공동대표(Action Tank for Great Korea)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 민간기구인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Mr. LIM Hunjo is the co-chairman and general secretary of the Korea NGO Association, which consists of more than 250 civic organizations in Korea. He was a founding member of the Minjung Party and the Democratic Labor Party after the student movement and labor movement. He was the first general secretary of the New Right Union in 2005 and co-chairperson of the Action Tank for Great Korea in 2010. He is a co-chair of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PUB of Korea), an independ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social dialogue.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평화 · 통일에 관한 사회협약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통일국민협약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임현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1,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와 통일국민협약의 추진 배경과 목적

분단상황과 남북관계는 한반도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정책 결정은 정권과 밀접한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정작 당사자인 국민들이 소외되고 사회적 합의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었다. 그럴수록 한반도 문제는 국민들의 실질적 요구나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렸다. 그 결과 남북관계에서는 혼선과 협상력 약화가 초래되고 사회구성원 사이에는 '남남갈등'이라 불리는 소모적인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는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민주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정파와 이념을 넘어선 공통의 합의기반을 도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기획의 1차적 목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의 기초를 마련하고 국회와 정부를 포함한 민-관-정의 대화와 합의로 발전시켜 이를 평화통일사회협약 혹은 통일국민협약의 형태로 공식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 기획이 몇몇 토론행사를 통해서 협약 문안을 도출하고 발표하는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풀뿌리로 확산하고 제도화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숙의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제도와 문화로서 시민의 삶과 교육의 현장에 확산·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유무형의 사회적 합의가 생명력과 규정력을 가지고 지속되도록 하며. 나아가 사회구성원의 의식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국민협약' 공약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사회협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단체, 종교인들, 연구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시민사회가 제안해온 사회협약을 위한 정치권의 호응이 가시화된 것은 2017년 대통령선거를 통해서였다.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가 대선 공약의 하나로 발표했고. 당선 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식화했다.

남북관계에 관한 정책결정에서 정파의 경계를 넘어서 협력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거쳐 협약의 기초를 마련한 사례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 직전 집권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라는 민관합동 기구를 구성한 후 '(가칭)통일헌장'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안작업을 시도하는 것에 그쳤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합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획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초정파 민간추진기구 - 통일비전시민회의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된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는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교가 균형 있게 두루 참여했다. 보수적 시민사회단체로는 전국 320여개 회원단체를 보유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는 전국에 330여개 회원단체를 보유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중도를 대표해서 한국YMCA전국연맹과 한국YWCA연합회. 홍사단 등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 최초의 시민단체들이 결합했다. 종교계에서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교가 공동으로 구성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참여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의 민간추진기구인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이하 통일비전시민회의)'를 2019년 결성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지금까지 함께 활동해오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8년 7월 통일협약시민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라는 협의체를 구성한 후 2018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4월 30일 통일비전시민회의를 창립했다. 통일비전시민회의는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 민간추진기구로서 정부(통일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과 협력하여 평화 통일 사회적 대화를 확산하고 국민 참여 주체를 형성하며,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2.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와 통일국민협약안 도출을 위한 활동 개괄

1) 사회적 대화의 원칙

- ① 중립성: 의제설정, 질문구성, 발제, 진행에 보수/중도 진보 전문가, 활동가의 균형 있는 참여와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편향 없이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 ② 객관성: 사회적 대화 결과를 대화 참가자와 이를 지켜본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의제선정과정 및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여론조사기관과 퍼실리테이션 단체에게 참가단 모집과 토론 진행을 의뢰하였다. 특히 대화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이 전체 사회구성원의 공인된 대표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사회구성원들의 평균적 구성과 인식을 반영한 미니 공중(Mini Public)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정치성향(보수/ 중도/진보)별 분포에 따른 표본층화추출 방식으로 참여단을 선정했다.
- ③ 독립성: 통일비전시민회의는 통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민간추진기구인 통일비전시민회의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공공기관은 지원과 협력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④ 숙의성(민주성):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문제 해결의 지혜가 있다는 전제 아래, 참가자들이 대화의 주인공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주어진 쟁점에 대해 다양한 입장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제공하되 전문가들은 토론이나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했다. 특정인이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나이와 외모. 종교와 신념. 성 정체성 등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참여단의 약속'이라는 대화 규칙을 정해 실천했다.

2) 활동 개요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 통일비전시민회의가 2018년부터 4년간 진행해 온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통일국민협약안 마련을 사회적 대화 프로젝트
- ▶숙의모형/의제/교재 개발 및 퍼실리테이터 육성
-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프로젝트
-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를 위한 국회 초정파 의원 모임 추진

3) 진행 현황

〈표1〉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진행 현황(2018-2021)

	프로그램 참여자(모집목표 기준)	숙의방식	협력단체	
	시민 200명(전국 4개권역)	* 공론조사형(시범대화)		
0040	보수/중도/진보 활동가 200명(전국 4개권역)	△공론조사형(시범대화)	투이버	
2018	청년/청소년 80명(수도권)	* 공론조사형(시범대화)	통일부	
	풀뿌리활동가/성직자 1000명(전국 15개 지역)	△공론조사형		
	시민 800명(전국 4대권역)	* 공론조사형		
	대북인도적 지원 정책 합의도출(150명) × 2일	* 합의형(시범대화)	EOIH	
2019	풀뿌리 활동가/성직자 1200명(전국 15개 지역)	△공론조사형	통일부	
2019	시애틀, LA 거주 해외동포(200명)	△공론조사형		
	세계한인회대표(320명)	△공론조사형	재외동포재단	
	서울시민 680명	* 공론조사형	서울시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전국시민 300명(전국 4개권역)	* 합의형(통일국민협약)	투이너
전국시민 100명(300명중 선발) × 4일	* 합의형(통일국민협약)	통일부
서울시민 1000명	* 공론조사형	
서울시 교사 60명	△공론조사형	서울시
서울시 대학생 240명	* 공론조사형	
인천시민 100명	* 준합의형	인천시
강원도(강원대학교) 100명	* 공론조사형	강원대학교
전국시민 100명 × 4일	* 합의형(통일국민협약)	통일부
서울시민 800명	* 공론조사형	
서울소재 외국국적대학생/국내대학생 300명	* 준합의형	서울시
서울시 교사 100명	* 공론조사형	
강원도민 100명	* 준합의형	강원도
	전국시민 100명(300명중 선발) × 4일 서울시민 1000명 서울시 교사 60명 서울시 대학생 240명 인천시민 100명 강원도(강원대학교) 100명 전국시민 100명 × 4일 서울시민 800명 서울소재 외국국적대학생/국내대학생 300명 서울시 교사 100명	전국시민 100명(300명중 선발) × 4일 * 합의형(통일국민협약) 서울시민 1000명 * 공론조사형 서울시 교사 60명 △공론조사형 서울시 대학생 240명 * 공론조사형 인천시민 100명 * 준합의형 강원도(강원대학교) 100명 * 공론조사형 전국시민 100명 × 4일 * 합의형(통일국민협약) 서울시민 800명 * 공론조사형 서울소재 외국국적대학생/국내대학생 300명 * 준합의형 서울시 교사 100명 * 공론조사형

^{*}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정치성향별 비율에 맞게 〈층화표본추출〉 방식으로 구성한 참가단(Mini Public) / \triangle 보수/중도/진보의 정치적 균형을 맞춘 참가단

3. 통일국민협약안 도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의미

통일비전시민회의는 2019년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합의 도출 실험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본격적으로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였다.

1) 통일국민협약안 도출 사회적 대화 개요 〈표2〉 통일국민협약 도출 사회적 대화 개요

	예비 대화
	300명(287명) 20개 분임조
	총1일×8시간
[2020

	합의문 도출
Г	100명(106명) 10개 분임조
	총4일×8시간
	2020

	합의문 보완		
Г	100명(102명) 10개 분임조		
	총2일×8시간		
	2021		

	협약문 초안		협약안 채택
Г	분임조 대표+ 의제위원회	Г	100명(102명) 10개 분임조
	5시간		총2일×8시간
	2021		2021

〈표3〉 통일국민협약 도출 사회적 대화 초점 질문 (의제위원회 선정)

초점질문①: 바람직하고 가능한 한반도의 미래상은 무엇인가? 초점질문②: 한반도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은 무엇인가?

초점질문③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표4〉 통일국민협약안 도출 합의 형성 과정과 규칙

구분	내용		
	(분임조) 사전토의	– 사전 의견 교환	
정보교류	전문가 발제	초점질문당 1개 혹은 2개 세션매 세션별 진영(진보/보수) 고려 전문가 2인 발제	
OTEM	(분임조) 전문가 대상 질문 선정	- 조별 1─2개 질문 선정	
	전문가 질의응답	- 응답 시간/분량 균등 배분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개인별 문구 작성	– 1인당 2~3개씩 개인 의견(문장) 작성	
	Clustering(군집화)	- 유사한 문장끼리 군집화(유사한 짝이 없는 단독문장들은 그대로 둠)	
조별 토론	Naming(문안조정)	군집화된 유사한 문장들을 하나의 대표문장으로 재정리단독문장들은 원문 대로 둠	
	Voting(채택투표)	 군집화를 거쳐 재정리된 문장과 단독문장들 전부에 대해 각각 채택투표 개인별 투표(채택 기준 : 조원 10명 전원 동의) 	
전체 토론	Clustering(군집화)	- 조별로 채택된 문장을 유사한 것끼리 군집화(유사한 짝이 없는 단독문장들은 그대로 둠)	
전세 도본	Naming(문안조정)	- 군집화된 문장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재정리 - 단독문장들은 원문 대로 둠	
합의문안 채택	Voting(채택투표)	- 군집화를 거쳐 재정리된 문장들과 단독문장들 전부에 대해 각각 채택투표 - 개인별 투표(채택 기준 : 참여단 80% 이상 동의)	

[※] 매 초점질문마다 같은 과정을 반복

〈표5〉 2021년 통일국민협약안 도출 절차

(ALO) COLIC SENERAL ENT		
Step1	합의문 수정/보충 (분임토론 및 전체토론)	2020년 채택문장 수정안 제출2021년 추가문장 제출
Step2	최종 합의문장 채택 (80% 이상 동의)	수정문안 ,2021년 새문장안 채택여부 투표2020년 합의문 재확인 여부 투표
Step3	Step3 최종 합의문 문단화 - 합의문의 군집화(Clustering) (분임토론 및 전체토론) - 문단명 합의(Naming)	
Step4	협약문 초안 작성 (초안정리팀 16명)	- 분임대표10인 + 의제위원 전문가 6인 - 협약문/권고문의 초안 확정
Step5	협약문/권고문 최종 채택 (80% 이상 동의)	 협약문안 최종검토 및 개인별 부대의견 작성 통일협약문안 최종 투표 및 참여단 서명
	정부/국회에 전달	- 통일비전시민회의 + 시민참여단

2) 통일국민협약안 도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의미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26일까지 약 1년간 총 9회(매회 8시간)의 숙의토론회가 이어졌다. 그 결과로 통일비전시민회의와 시민참여단은 통일국민협약안과 권고문(별첨자료 참고)을 참가단 총 102명 중 100명의 동의, 2명의 반대로 채택하였다. 총 9일간의 숙의과정에서 시민참여단 개개인에게 일어난 생각의 변화는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이 설문결과는 시민참여단이 완성한 통일국민협약안의 지향과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다. 협약안과 권고문은 통일비전시민회의와 시민참여단의 연서명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과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다. 이 협약안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제도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안은 아니다. 다만, 평균적 민의를 반영하는 시민 숙의와 합의의 값진 결과물로 정책결정과 집행에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와 정당대표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 내에 초정파 의원 모임 구성과 통일국민협약안 전달을 겸한 토론회도 기획되었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지연되고 있어 국회의장과 정당대표에게 협약안과 권고문을 전달하는 일정도 순연되고 있다.

권고문은 통일국민협약안에 따른 일관된 통일정책 추진,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확대와 제도화, 그 밖에 평화·통일 관련 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발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의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민 숙의에 의한 통일국민협약 도출 가능성 실제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도, 참여로 인한 만족도, 그리고 평화·통일 정책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주인의식이 크게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참여자 대다수가 다른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깨달았다고 자평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그 결과로 각 자의 생각이 실제로 변화하는 모습도 통계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비롯해 평화·통일 관련 갈등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도출할 숙의모형, 컨텐츠, 초정파민간추진기구 등이 형성되었고 총 6000명 이상(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참가자 포함)의 시민들이 이 대화를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이념적 성향을 달리하는 전문가 그룹, 교사 그룹, 퍼실리테이터 그룹, 그리고 이 활동을 지지하는 여야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룹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의 사회적 대화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비대면 온라인 숙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자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실험의 지속과 확대를 위해서는 국회, 지자체 등 정책 결정 주체의 공식참여가 필수적이다.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끝,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ational Social Pact on Unification

Tae-ho Lee Co-chairperson of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Heon-jo Lim** Standing Representative of the Korea NGO Association

1. Background and Goals of the Social Dialogue and the National Social Pact on Unification

National division and inter-Korean relations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the lives of the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policymaking on this issue has been controlled by a small number of people with close ties to the government. Policies have been created and implemented without sufficient social consensus, marginalizing those directly affected and oversimplifying the issues as mere "political strife," removed from the meaningful demands and everyday lives of the people. In particular, policies toward the North have oscillated with changes in government, making for little consistency. This has led to confusion and less strength in inter-Korean negotiations and meaningless social and political conflict in society, often described as "South-South conflict."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is part of the efforts to establish a consensus across political orientations and ideologies so that policies on the future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are created and implemented in a democratic and consistent manner. The first goal of the Dialogue is to lay the foundation for a social consensus through social dialogue with civic participation, develop it into dialogue and consensus among citizens,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 and formally draft a social pact on peace and unification, or a national social pact on unification. The ultimate goal, however, is to spread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to the grassroots level and institutionalize it, so that the Dialogue won't remain a one-off event in which a pact is drafted and made public, but little discussion or debate follows thereafter. In other words, the Dialogue aims to spread and establish a deliberative democracy program on the vision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s an institution and culture in civic life and fields of education, sustain the normative power and effectiveness of

President Moon's Election Pledge on a National Social Pact on Unification

with the changing social awareness and circumstances.

Since the early 2000s, civic groups, religious leaders and researchers have continued to voice the need for social dialogue and a social pact on peace and unification. It was during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that politics echoed civil society's demand for such a pact. Jae-in Moon adopted this as an election pledge, and formalized it as one of the top 100 agenda items for his government after getting elected.

the tangible and intangible social consensus formed in this process, and enabl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consensus

It's not that political parties have never worked together across the aisle in the decision-making on inter-Korean relations. But there has been no example of social dialogue with civic participation towards laying the foundation for a social pact. Former President Geun-hye Park, who was in power prior to Moon,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Unification Preparation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draft a "Unification Charter". But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Unification Preparation only made an attempt to formulate a draft charter based on the views of diverse experts. Their efforts never evolved into social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ialogue, in which citizens are engaged to reach a consensus.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A Trans-partisan Civic Organizer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with the Moon Administration, ensured balanced participation of conservative, centrist, and progressiv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South Korea's 7 major religions. The conservative Korea NGO Association (320 member organizations), the progressiv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330 member organizations), and centrist civic groups such as YMCA Korea, the National YWCA of Korea, and the Young Korean Academy, with over 100 years of history, came together for the Social Dialogue. The 7 major religions (Protestantism, Buddhism, Won Buddhism, Catholicism, Confucianism, Cheondogyo and traditional Korean religions) formed the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to join the Dialogue.

In 2019, all these organizations together established the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to be the civic organizer of the Social Dialogue, and have worked side by side since. Back in July 2018, they founded a consultative body called the Citizens' Committee for a Unification Pact. Building on the outcomes of pilot programs of 2018, they decided to transform it into the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The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is an independent civic organizer of social dialogue, working together with the central government (Ministry of Unification), local governments, the National Assembly, and other entities to spread social dialogues on peace and unification, in which it will encourage the public to participate, and build and institutionalize a social consensus on peace and unification.

2. Overview of the Activities for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and the Draft Pact

1) Principles of the Social Dialogue

- ① Neutrality: We ensured balanced participation of conservative, centrist and progressive experts and activists, and unbiased integration of diverse perspectives in civil society in setting the agenda, formulating questions, presentation and facilitation.
- ② Objectivity: We made public the process of agenda-setting and conversation in a transparent manner, and commissioned the recruiting of participants to a specialized survey institution and debate facilitation to a facilitation organization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process in the eyes of participants and the public. In particular, we used stratified sampling to make sure that the participants, although not officially recognized as representatives of all of society, are regarded at least as a "mini public" that represents the average composition and awareness of our society. The specialized survey institution considered regional background, gender, age and political orientation (conservative / centrist / progressive) in comprising the participants.
- ③ Independence: We at the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stand firm on the principle that we are implementing the Dialogue independently, with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local governments only supporting and working with us.
- Deliberation (Democracy): With the assumption that all participants in the Dialogue have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we designed the program to make sure the participants led the conversation. Participants were given the opportunity to listen to diverse experts on issues, but those experts were not permitted to be involved in discussion and decision-making. We established and practiced the rules of conversation known as "Promises of the [Dialogue] Participants" to help ensure no person took away another's chance to speak and to help prevent discrimination in terms of age, appearance, religion, belief, gender identity, etc.

2) Summary of Activities

With the principles described above, the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implemented four activities for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in the four years since 2018: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Engaging in the Social Dialogue project to formulate the draft National Social Pact on Unification(National Consensus on Unification);
- Developing the model, agenda and training for deliberation, and educating facilitators;
- Organizing local social dialogues on peace and unification with community members; and
- Organizing a trans-partisan group of lawmakers to institutionalize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3) Progress

Table 1. Progress of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2018~2021)

	Program Participants (Recruiting Target)	Form of Deliberation	Partner	
	200 Korean citizens (national, 4 mega-regions)	* Deliberative poll (pilot dialogue)		
2018	200 activists of conservative, centrist and progressive orientation (national, 4 mega-regions)	△Deliberative poll (pilot dialogue)	Ministry of	
2010	80 youth (Seoul capital area)	* Deliberative poll (pilot dialogue)	Unification	
	1000 grassroots activists and community religious leaders (national, 15 regions)	△Deliberative poll		
	800 Korean citizens (national, 4 mega-regions)	* Deliberative poll		
	Consensus-building on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150 participants) x 2 days	* Consensus model (pilot dialogue)	Ministry of	
	1200 grassroots activists and community religious leaders (national, 15 regions)	△ Deliberative poll	Unification	
2019	Overseas Koreans living in Seattle and Los Angeles, USA (200 participants)	△Deliberative poll		
	320 delegates of overseas Korean associations	△Deliberative poll	Overseas Koreans Foundation	
	680 Seoul residents	* Deliberative pol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300 Korean citizens (national, 4 mega-regions)	* Consensus model (National Social Pact on Unification)	Ministry of	
	100 Korean citizens (selected from 300 citizens, national) x 4 days	* Consensus model (National Social Pact on Unification)	Unification	
	1000 Seoul residents	* Deliberative poll	Carri Matura ditan	
2020	60 teachers in Seoul	△Deliberative pol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40 undergraduate students in Seoul	* Deliberative poll		
	100 Incheon residents	* Semi-consensus model	Incheon Metropolitan Government	
	100 residents of Gangwon Provi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Deliberative pol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00 Korean citizens (national) x 4 days	* Consensus model (National Social Pact on Unification)	Ministry of Unification	
	800 Seoul residents	* Deliberative poll		
2021	300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and non-Korean) living in Seoul	* Semi-consensus mode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00 teachers in Seoul	* Deliberative poll		
	100 residents of Gangwon Province	* Semi-consensus model	Gangwon Provincial Government	

^{* &}quot;Mini Public" selected through stratified sampling based on regional background, gender, age and political orientation by specialized survey organization.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Participants selected to form a balanced composition of political orientation (conservative, centrist and progressive)

3. Significance of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The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conducted a pilot program for reaching a consensus on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in 2019. Building on the outcomes, it moved forward with the Social Dialogue for writing the draft pact, which took place between 2020 and the first half of 2021.

1) Overview of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Table 2. Overview of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Preliminary dialogue	
287 participants	
(target: 300)	
20 small groups	
1 day x 8 hours	
2020	

Modification of		
the consensus		
102 participants		
(target: 100)		
10 small groups		
2 days x 8 hours		
2021		

Preparation of a draft pact	Γ	Adoption of the draft pact
Small group representatives +		102 participants (target: 100)
Agenda Committee 5 hours		10 small groups 2 days x 8 hours
2021		2021

Table 3. Focus Questions for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Selected by the Agenda Committee)

Question #1: What is a desirable and feasible vision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Question #2: What are the process and methods for realizing that vision?

Question #3: How can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be sustainable?

Table 4. Process and Rules for Consensus-building

Steps	Description		
Information- sharing	Preparatory discussion (small group)	- Participants share their views before the main discussion	
	Expert presentation	- 1~2 session for each focus question - 2 experts (conservative / progressive) in each session	
	Question generation for experts (small groups)	- 1~2 questions from each small group	
	Expert Q&A	Experts are given equal time and length for answers	
Small group discussion	Drafting sentences	- Each participant drafts 2~3 sentences	
	Clustering	- Similar sentences are clustered (Unique sentences remain alone)	
	Naming (re-writing)	- Participants write single sentences that represent each cluster of similar sentences Unique sentences remain alone	
	Voting	 Participants vote on each and every sentence separately (derived from cluster, and unique) Individual voting (adopted with unanimous support of the small group)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lenary discussion	Clustering	- Similar sentences, adopted by small groups, are clustered (Unique sentences remain alone)
	Naming (re-writing)	Participants write single sentences that represent each cluster of similar sentences Unique sentences remain alone
Adoption of consensus sentences	Voting	- Participants vote on each and every sentence separately (derived from cluster, and unique) - Individual voting (adopted with a vote of at least 80% in support)

^{*} The process is repeated for each focus question.

Table 5. Process for Preparing the Draft Pact in 2021

	ood for i roparing the Braiti dot in 2021		
Step 1	Modification and improvement of consensus sentences (Small group and plenary discussion)	Modification was proposed for the consensus sentences adopted in 2020 Additional sentences written in 2021 were proposed	
Step 2	Adoption of final consensus sentences (Adopted with a vote of at least 80% in support)	Voting on modified sentences and additional sentences of 2021 Voting on reconfirming the consensus sentences of 2020	
Step 3	Paragraphing of final consensus sentences (Small group and plenary discussion)	Clustering of consensus sentences Naming of paragraphs	
Step 4	Preparation of a draft pact (By draft preparation team of 16 members)	- 10 small group representatives + 6 Agenda Committee experts - Draft pact and recommendations are formulated	
Step 5	Final adoption of a pact and recommendations (Adopted with a vote of at least 80% in support)	 Participants performed a final review of the draft pact and wrote individual comments Final voting on the draft pact and signing 	
	Submission to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 Participants	

2) Significance of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Between July 2020 and June 26th, 2021, 9 deliberative discussion sessions took place (8 hours per session). In this process, the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and the participants adopted the draft National Social Pact on Unification (National Consensus on Unification) and the recommendations (see Attachment) with a vote of 100 to 2. Participant thinking underwent some changes during the 9-day deliberation process. This is thoroughly captured in the survey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Social Dialogue. The survey results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orientation and significance of the draft pact formulated by the participants.

The draft pact and recommendations, signed by the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and the participants, were submitted to the Minister of Unification and the President. The draft pact is not institutionally binding, but it is a valuable outcome of civic deliberation and consensus that represents average public opinion. We hope that it will provide critical guidance for mak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he draft pact and recommendations have not been yet deliver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leaders of political parti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unfortunately, the plans to organize a trans-partisan group of lawmakers, a conference on the draft pact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official events to deliver the draft pact to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leaders of political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arties have been postponed.

The recommendations call for a consistent unification policy based on the draft pact, expans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and creation of channels for communication with and participation by citizens regarding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The Social Dialogue program demonstrated that a National Social Pact on Unification can be drafted through civic deliberation. In this process, participants developed a better understanding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felt a greater sense of satisfaction through participation and a stronger sense of confidence and ownership in getting involved in policymaking on peace and unification. Above all, most participants said that they realized it is important to carefully listen to, understand and respect different perspectives. They influenced one another in conversations, and, as a result, actually saw changes in their thinking. This process is captured in statistics.

In the last 4 years, we have established a model of deliberation, content and a trans-partisan civic organizer for reaching social consensus on controversies about peace and unification, which has resulted in a National Social Pact on Unification. This process led to the formation of groups of experts, teachers, facilitators, lawmakers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who support the program, with varying ideological orientations.

Of particular note is that beginning in 2020, the Social Dialogue took place through contactless online sessions due to the pandemic. We believe the success of the online deliberation program marks a great step forward for social dialogue experiments. Policymaker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officially take part in the Social Dialogue to expand it and lend it greater sustainability. Institutional measures are also urgently needed to continue the Social Dialogue. Thank you.

발표자 Presenter



한희승 통일국민협약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단원 **HAN Heeseung** Social Dialogu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ract', Participant

한희승은 건국대학교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했으며, '2020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2020 서울 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하며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Han Heeseung majored in life science at Konkuk University, and participated in '2020 Civic Group for Social Dialogue of peace and Unification', '2021 Social Dialogu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ract'. She continuously participated in the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pursuing and promoting the values of peace and unification.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청년 세대에게 한반도 평화란? : 통일국민협약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희승

통일국민협약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안녕하세요.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통일국민협약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대표 한희승입니다. 먼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주신 통일부와 통일비전시민회의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함께한 '통일국민협약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이 모여 뜨겁게 진행되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가장 크게 삶의 변화를 겪게 될 우리 국민이 직접 한반도의 미래상을 그려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국민의 의견은 대북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회적 대화를 통해 채택된 협약안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도 정부의 일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깊습니다. 저 역시 '나처럼 평범한 사람의 의견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우리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일원이구나' 하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고. 평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자리했다는 사실이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오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백 명인만큼 통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도 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다는 의무감 또한 생겼습니다. 작년 10월 아산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한 대북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30대 절반이 '북한에 관심 없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청년세대가 살아온 기간의 2배, 3배는 더 오랜 70여 년의 세월 동안 남과 북은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아왔고 점점 전쟁의 아픔을 겪은 세대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어쩌면 이러한 결과는 예견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보니, 친구들에게 사회적 대화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한 번도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주제로 대화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제 또래들은 취업이나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의 꿈과 걱정으로 가득한 대화뿐입니다. 이렇게 당장 자신의 미래조차 불안해하는 청년들에게 통일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청년 세대가 통일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기보다는 현재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평화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1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은 지역도, 성별도, 나이도, 정치 성향도 모두 달라서 제대로 합의할 수 있을지 미심쩍었습니다. 그동안 미디어에서 접해온 지역감정이나 정파 갈등. 세대 갈등. 남녀갈등같이 너무도 많은 혐오와 상호 비 존중이 존재한다면 어느 한쪽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끝끝내 결론 없는 논쟁만 지속할 것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 번의 사회적 대화를 거치면서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되.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귀담아들으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 속에서 남남갈등 해소에 대한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록 저 사람의 가치관이 나와는 다를지언정, 누구든 그렇게 생각할 자유와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고, 모든 사람의 의견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생각만 있다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평화' 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내 옆 사람과의 상호존중. 그 작은 배려로부터 평화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평화는 남북관계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이나 남녀 간의 갈등에서도 이야기해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평화 통일 사회적 대화'라는 선례로, 각기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서로 이해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다면 세대 및 성별 갈등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며 한마음 한 뜻으로 염원하던 국민의 노랫소리는 점점 들리지 않습니다. 더는 노래 부르지 않는 이들에게 '왜 노래를 부르지 않느냐고 타박만 할 뿐.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아서 목이 쉬어버렸으리라고는. 겨우 닿은 노랫소리를 아름답게 듣지 못하고 귀를 막아버려서 지쳐버렸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치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남북 관계 관련 정책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지난날들에 '통일국민협약안'이라는 단단한 결실로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남북통일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져서는 안 되는 올곧은 심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화에서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보수 진보 막론하고 그들 모두 공통으로 꿈꾸는 한반도의 미래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은 평화로운 내일이 오기를 염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평화로운 내일이 오는 날까지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표한 '2021년 1분기 통일여론 및 동향 분석보고서 에 따르면, 응답자의 55.5%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진보 보수를 망라한 사회적 대화' 추진이라고 답할 정도로 국민들 역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어느 한쪽만 주장해서는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많아질수록 평화는 우리 삶 속에 자리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nvironmental Cooperation as a Conflict Transformation Tool <Transboundary Collaboration Projects in Europe and</p>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

HAN Heeseung

Social Dialogu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ract', Participant

Fellow attendees, I'm Hee-seung HAN, and I'm a representative of the participants in the Social Dialogue on the National Social Pact on Unification, which was 8 conversations between 2020 and June 2021. First of all, I'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the Ministry of Unification, the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and all the relevant staff for giving me this honorable opportunity.

The Social Dialogue on the National Social Pact on Unification took place online with more than 100 participants.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the Dialogue was successful with the dedication of each and every participant. It is only natural for the people to establish a vision of the future for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they will be affected the most if South and North Korea unify. However, the people's voices have rarely been heard in the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I believe the National Consensus on Unification, or the draft National Social Pact on Unification adopted in the Social Dialogue is significant, because it illustrates that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actually listening to the people, and shows people that they have a say in the government's tasks and are important members of society who can change the world. I felt a sense of belonging, that, an ordinary person like myself can influence policy, and that we are all citizens of this country. It was a great privilege to be part of the historic moment when we took another step toward peace.

I also felt a sense of responsibility that, as one of the approximately 100 people representing the 50+ million South Koreans, I have to learn more about unification and encourage people around me to do so as well. According to a survey on public perception of North Korea, commissioned by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and conducted by Research & Research in October last year, half of those in their 20s and 30s responded that they are not interested in North Korea. I think we could have seen this coming. South and North Korea have taken different paths for more than 70 years, which is twice, if not three times longer than the years many of today's young people have lived so far. Moreover, young adults have increasingly felt distance between them and the generation who endured war. Looking back, I realized that I have never had a conversation with my friends on North Korea, until I told them about the Social Dialogue. Most of my peers are looking for jobs or preparing for exams. All we have to talk about are plans and concerns about the future. How can we tell the young people, who are full of anxiety about their own tomorrow, that they need to be interested in unification? I think we need to first look at the circumstances of the young people before encouraging them to learn more about this subject. That would be the first step toward peace.

To be honest, I thought that the more than 100 participants in the Social Dialogue wouldn't be able to reach a consensus, because we are so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erms of regional background, gender, age, and political orientation. I assumed that no one would agree with another and the debate would never end, if the Social Dialogue is full of hatred and a lack of respect for each other, as we've seen so much in the media in its stories on regional animosity, political strife, and generational and gender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flict. However, I was deeply impressed by the Social Dialogue as we took part in conversations to an extent I even felt ashamed of myself for having that assumption at the beginning. Each participant was active in expressing their views, as well as carefully and respectfully listening to others. I think I saw a glimpse of hope for resolving what we in South Korea call "the South-South conflict"—South Koreans fighting each other. We don't need to get angry if we only recognize that everyone is free to have a different view, everyone has their own reasons, and every opinion deserves respect. This is what "peace" is all about. I believe that peace starts from mutual respect and consideration for the people around us.

To take a step further, I think we need to talk about peace not just in inter-Korean relations, but also in relations between generations and genders. The Social Dialogue on the National Social Pact on Unification has now set a precedent where people with different ideas can reach an understanding and consensus. I believe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and genders can also be resolved through social dialogue where people listen to each other carefully and develop an understanding of one another.

In the past, people used to sing "Our wish is unification" in one voice. Now, that voice is fading. All we have done is criticize them for not singing. We haven't realized that they have been singing their own songs until their throats hurt, but no one was listening, and that they were exhausted because we turned a deaf ear to the songs that barely made it to us. Now is the time to take the outcome of the Social Dialogue, the National Consensus on Unification, to put an end to the years full of confusion from rollercoaster policy on inter-Korean relations that changed with each government. I believe Korean unification should be handled according to principle, without leaning left or right. During my conversations with many people in the Social Dialogue, I realized that, conservative or progressive, all of us have a common vision of the future for the Korean Peninsula—an aspiration for peace, where no one comes to harm. To get to that day when such a common vision comes true, we need to respect, look out for and consider one another.

According to the "Analysis Report on Public Opinion and Trends for Unification in Q1 2021" published by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in April, 55.5% of respondents said that "social dialogue across political orientations" needs to be a priority if support for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is to be obtained. This illustrates that the public also feels the need for social dialogue. They say it takes two to tango. You get nothing out of conversation if you are too stubborn. The more social dialogue we have and the more mutual understanding, the more peace we will have in our lives. Thank you.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JHE Seongho Chung-Ang University Law School, Professor

제성호 박사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국제법 교수로 주요 연구 주제는 국제 인권 보호, 테러 방지, 남북관계 등이다.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북한 인권, 평화 체제,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대해 많은 글을 썼다. 그는 북한인권센터 소장, 통일연구원, 한국인권대사,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인권법제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Dr. JHE Seongho is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t Chung-Ang University Law School. His main interests' areas ar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counter-terrorism and Inter-Korean relations. Especially regarding Inter-Korean relations, he wrote many articl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Korean peace regime and law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He served as a director of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Korean Ambassador for Human Rights, Member of Presidential Committee for Unification Preparation(PCUP), chairman of Human Rights and Legislation Committee under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NUAC), etc.



엔자이칸 잘갈사이칸 몽골 블루배너 의장

ENKHSAIKHAN Jargalsaikhan

Blue Banner NGO, Mongolia, Chairperson

엔자이칸 잘갈사이칸 박사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몽골 외무부와 UN의 국제 변호사이다. 1990년 초, 몽골 초대 민주정부의 대통령 외교정책 및 법률고문을 역임하였으며, 1994년 국회가 국가 안보 및 외교정책의 초안을 작성하고 채택할 당시 몽골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는 군축 특사로서 재직하며 특별히 핵 위협 문제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였다. 그는 정부 기관에서 35년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간 일하면서 평화, 민주 통치, 인권, 성평등 등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2014년에 은퇴하였다.

법률 및 의사결정 경력과 관련하여서는 재산 및 혼인문제, 상업 중재에 대한 국제적 법률지원, 가족, 민사 및 형사 문제에 대한 법률조언, 몽골 외교부 법무부장 권한대행, UN 총회 제6차 위원회 의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의장 등의 경력이 있다. 국제관계, 핵무기 확산방지, 지역 안보에 관한 100개 이상의 글을 썼으며, 평화, 안정, 국제협력, 환경 보호, 거버넌스 촉진을 위한 수많은 대륙 단위 회의를 조직하고 참여하였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몽골이 제5차 국제 신민주화회의의 의장국이 되었을 때 국가 고문으로 활동하였고, 2013년 제7차 민주주의 공동체 각료회의 의장 고문 역할을 맡았다.

현재 몽골의 NGO인 Blue Banner의 회장으로서 한국의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핵무기 금지구역 설립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Dr. ENKHSAIKHAN Jargalsaikhan is an international lawyer, serving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Mongolia representing his country in Austria and at the United Nations. In early 1990s he served as the foreign policy and legal advisor to the first democratically elected President of Mongolia and later as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first National Security Council of Mongolia when the State Great Hural (parliament) considered and adopted the country's first concepts of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n 1994. In 2013-2014 he served as Ambassador-at-Large in charge of disarmament issues focusing especially on nuclear-related threat issues. After having served for three and a half decades in government agencies and five years in the civil society sector dealing with such issues as promotion of peace, democratic governance,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and some other issues, he retired in 2014.

His legal and decision-making experiences include providing international legal advice on property and marital issues, commercial arbitration-related issues, providing advice on legal assistance when dealing with family, civil and criminal issues, serving as acting head of the Legal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Mongolia, Chairman of the Sixth (Legal) committee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1998) and President of IAEA General Conference (in 2010).

He has contributed nearly 100 articles on international relations, non-proliferation and regional security. Organized and participated in many regional meetings aimed at promoting peace, stabil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ood governance. He served as the national advisor when Mongolia chaired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ew or Restored Democracies (in 2003-2006) and advisor to Mongolian Chairmanship of VII Ministerial Conference of the Community of Democracies (in 2013).

At present Amb. Enkhsaikhan serves as Chairman of Blue Banner, Mongolian NGO dedicated to promoting the goals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s well as promoting the goal of Korean reunification and establishing a nuclear-weapon-free zone in Northeast Asia.



여혜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YEO Hyesook** Women Making Peace, Co-representative

여혜숙은 개인간 갈등 해결과 평화만들기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 만들기에 관심이 있다. 현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와 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Director of Conflict Resolution Center)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갈등해결교육, 평화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가정법원의 화해권고· 이웃 분쟁 조정자(mediator)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Ms. YEO Hye-sook has been involved in crea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world through resolving conflicts and making peace among individuals. She is the co-chair of the Women Making Peace and a director of the Conflict Resolution Center. She organizes and conducts educational programs for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 She also works as a mediator for the Family Court's Reconciliation Advisory and Neighbor Disputes. Recently she has been actively involved as a facilitator for the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유희재 ORP 연구소 부대표 Y00 Heejae ORP Institute. Vice President

유희재는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 공인 퍼실리테이터(IAF, CPF)이다. 퍼실리테이션을 태동 시킨 ICA(Institute of Cultural Affairs)의 공식 멤버로서 WHO 개발협력센터, UN SDGs 관계자위원회 등 다양한 국제기구 소속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3차 원자력안전 종합 계획 수립,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미래형 대학입시 제도 연구 등 국민 참여 기반의 국가 과제와 더불어 2030통일교육 활성화 아카데미, 토의 토론 방식의 통일 교육교과서 집필 등 평화, 통일 교육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시행하는 사회적대화의 총괄 퍼실리테이터로서 "한국형 숙의모델"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데 힘쓰고 있다.

Yoo Heejae is a Certified Professional Facilitator of IA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acilitators) in Korea. As an official member of the ICA (Institute of Cultural Affairs), she is a facilitator of various glob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WHO Collaborating Center for Educational Development, UN SDGs Stakeholder Council. In Korea, she has carried out national project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third national plan for nuclear safety and security, urban regeneration in Seoul, study of future university entrance systems with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In addition, she has been working on promoting education for peace and unification and writing a schoolbook for future generations. As a general facilitator of social dialogue conducted by the National Citizens' Council for Peaceful Reunification Vision Social Dialogue from 2020, she is striving to lead social consensus on various issues related to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onsensus Model"



로렌스 필브룩 문화문제연구소 소장

Lawrence PHILBROOK

The Institute of Cultural Affairs Taiwan, Director

로렌스 필브룩은 세계적인 지역사회 개발 지원조직 ICA의 대만 지부 대표이다. 1972년에 시카고 ICA(Institute of Culture Affairs)본부에 합류하여 지금까지 35개 이상의 국가에서 광범위한 조직 및 지역 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했다. 그는 2015년 국제 퍼실리테이터 협회((AF)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하였다. 지난 27년 동안 대만 및 전 세계에서 ICA 대만 이사로 일하며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분쟁 복구에 헌신하고 있다. 그는 지역 사회, 정부 부처, 유엔 및 중화권,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다국적 및 지역 조직과 일하고 있다. 그는 각 조직 또는 커뮤니티 개발의 필요에 따라 설계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상호간 대화와 깊은 탐구를 통해 존중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변혁의 과정에 중점을 둔 교육 훈련을 통해 세계 지역활동가들을 훈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Lawrence Philbrook joined the US Institute of Cultural Affairs (ICA) in 1972, working on a wide range of company and communitybased projects in more than 35 countries. He was inducted into the International Facilitator Association Hall of Fame in 2015. He has lived and worked in Taiwan and around the world as the Director of ICA Taiwan for the past 27 years, dedicated to peace and conflict restoration in the Asian region. His work includes many years of relationships with local communities, government departments, the United Nations and Greater China, Asia and more than 100 multi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across the globe. He develops and promotes programs specifically tailored to the needs of each organization or community, works with teams and organizations to restore a sense of respect and trust through dialogue and deep exploration, and promotes the development of coaches and mentors focused on transformational processes. They are known for their support.



김태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 KIM Taehyon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Director

김태현은 장로교 목사이며 에큐메니스트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연구개발협력국장이며,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중앙위원이다. 그는 신학을 공부한 후부터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많았고, 1999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 한국 7개 종교의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실행위원과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종교 간 연대를 통해서 남북 종교교류, 남북 민간교류 등에도 참여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Rev. KIM Taehyon is a Presbyterian pastor and ecumenist. He is the director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cumenical Relationship at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and a member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KCRP). After studying theology, he became interested i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Christian and since 1999 he has been working on the Christian unity and inter-religious dialogue at the NCCK. He is an executive committee and central committee member of the KCRP, a consultative body of the seven religions in Korea, to transform it into an organization that fulfills social roles of religions. He has been also actively participating in activities related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Inter-Korean religious exchanges and Inter-Korean civilian exchanges.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통일국민협약안

통일국민협약은 남과 북의 대결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을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협약이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져 끝내 전쟁까지 치렀다. 그 후에도 불안정한 휴전상태에서 남과 북은 대결과 적대를 계속해 왔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치러야 했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분단상황과 남북관계는 한반도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정책 결정은 정권과 밀접한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정작 당사자인 국민들이 소외되고 사회적 합의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한반도 문제는 국민들의 실질적 요구나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렸다. 그 결과 남북관계에서는 혼선과 협상력 약화가 초래되고 사회구성원 사이에는 '남남갈등'이라 불리는 소모적인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통일국민협약은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민주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정파와 이념을 넘어선 공통의 합의기반을 도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는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교가 균형 있게 두루 참여했다. 2018년 이래 지난 4년간 전국에서 수천명의 시민과 활동가. 교사와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에 관한 새로운 숙의민주주의를 경험했다. 의제개발, 발제, 질의응답과 자문에 다양한 입장의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기구를 통해 선정된 국민들이 오랜 시간의 숙의를 거쳐 스스로 마련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숙의 결과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공식협약으로 발전시킬 때 비로소 온전한 사회협약으로 완성된다. 통일국민협약은 선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주변 환경 변화와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되고 발전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어야 하고 제도와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주변국의 정부와 민간의 대화와 합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협약본문〉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주최한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에 참가한 전국의 시민참여단은 2020년 7월 6일부터 2021년 6월 26일까지 4개 권역별 예비 대화와 총 8일간의 전국 종합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과정과 방법에 관해 숙의하여 다음의 협약안을 채택한다.

제1장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한반도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다 평화적으로 비핵화된 한반도다. 인권과 삶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다. 공정한 사회체제가 정착된 한반도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반도다. 사회적 합의로 갈등이 해소되는 한반도다.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한 한반도다. 다양한 문화교류가 활발한 한반도다. 남북철도 연결로 세계여행이 자유로운 한반도다. 세계가 찾는 문화의 중심지 한반도다.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된 한반도다. 기술과 자원을 공동개발하는 한반도다.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된 한반도다. 남북 상호간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국제사회와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은 정부와 더불어 통일 과정의 주체가 되고, 한반도는 평화·통일의 모범이 된다.

제2장 한반도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

• 국민 참여와 합의형성

통일에 대한 국민합의를 도출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 남북한 주민이 함께 평화 · 통일 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 대북 통일정책 일관성 확보

통일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수립된 통일 정책을 실현하고 유지한다 통일을 위한 법안을 제·개정하고 체계를 정비한다 남북한 대화를 정례화한다 남북공동의 대화와 협의 채널을 운영한다 남북한이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지속한다

• 한반도 군사갈등 해소와 비핵화

군사적 위험이 해소된 평화협력 체제를 정착시킨다 한반도 주변국의 군축 협력을 이끌어낸다

• 주변국 관계

남북과 주변국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한다 통일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홍보한다

남북이 통일에 대해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낸다

• 인도지원협력과 개발협력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산가족간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남북한이 사람과 동 · 식물의 전염병에 대한 대처와 방역에 협력한다 한반도의 자연생태계를 남북 상호 협력하여 관리 보존한다

• 사회·문화 교류협력

남북이 지속적으로 문화 교류를 한다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남북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언어 · 역사 · 문화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역사 인식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남북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남북한이 언론을 개방하고 정보를 교류한다 남북한의 실상을 투명하게 보도한다

• 경제협력과 남북균형발전

남북한의 상호체제 존중과 경제협력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남북한이 경제·자원 통합을 구체화한다 남북한 공동으로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정비한다

• 평화·통일 교육

남북이 통일에 대한 공통교육을 실시한다

2021, 6, 26,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ational Consensus on Unification

Preamble

The National Social Pact on Unification (NSPU) is a social pact for peaceful resolution of inter-Korean confrontation and conflict and for production together of a future vision for the Korean Peninsula.

After liberation,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into South and North and experienced war. Since the end of that war, confrontation and hostility have continued between South and North amidst the instability of the Armistice. This caused enormous suffering and social costs for the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whose lives are greatly impacted by national division and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policy-making on this issue has been controlled by a small number of people with close ties to the government. Policies have been created and implemented without sufficient social consensus, marginalizing those directly affected and oversimplifying the issues as mere "political strife," removed from the meaningful demands and everyday lives of the people. Policies toward the North have oscillated following changes of government, with little consistency. This has led to confusion and less strength in inter-Korean negotiations and meaningless social and political conflict in society, often described as "South-South conflict."

The NSPU is part of the efforts to establish a consensus across political orientations and ideologies so that policies on the future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are created and implemented in a democratic and consistent manner. The social dialogue to formulate the National Consensus on Unification, or the draft NSPU involved balanced participation of representatives of conservative, centrist, and progressiv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7 major religions of South Korea. Since 2018, thousands of people, including activists and teachers, have participated in "deliberative democracy" on peace and unification. Experts with varying perspectives also took part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agenda, making presentations, asking questions and giving answers, and providing advice. The National Consensus on Unification was prepared by people, selected by a trusted public survey organization, after a lengthy process of deliberation.

The National Consensus on Unification becomes a genuine social pact wh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develop it into an official pact based on respect for the outcome of the people's deliberation. The NSPU shouldn't simply be a declaration. It should continue to evolve with the political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public perception.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needs to continue and be established institutionally and culturally. Eventually, it needs to be expanded to dialogue and consensus among the governments and civil societies of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ain Text

Participants in the Social Dialogue on the National Social Pact on Unification, organized by the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upon request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dopt the following National Consensus on Unification based on deliberations on the vision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rocess and means of realizing that vision, in four regional preliminary conversations and an 8-day national plenary conversation that took place between July 6, 2020 and June 26, 2021.

Chapter I. Vision of the Future for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Peninsula we desire in the future is:

- · a peaceful Korean Peninsula without military threats;
- a Korean Peninsula denuclearized in a peaceful manner;
- a Korean Peninsula where human rights and diversity of life are guaranteed;
- a Korean Peninsula of welfare states that ensure prosperity for all people in the South and the North;
- a Korean Peninsula with fairness established in the social system;
- a Korean Peninsula with freedom of the press;
- a Korean Peninsula where conflicts are resolved through social consensus;
- a Korean Peninsula with freedom of travel and tourism;
- a Korean Peninsula with active and diverse cultural exchanges;
- a Korean Peninsula where people can travel out to the world on an inter-Korean railroad;
- a Korean Peninsula that attracts the world as a center for culture;
- a Korean Peninsula developed through inter-Korean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 a Korean Peninsula wher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resources are joint endeavors;
- a Korean Peninsula as a center for global logistics;
- a Korean Peninsula where the South and the North provide mutual humanitarian assistance; and
- a Korean Peninsula that engages i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eople of South and North Korea, along with the government, become agents in the unification process, and the Korean Peninsula becomes a model for peace and unification.

Chapter II. Process and Means of Realizing the Vision of the Future for the Korean **Peninsula**

People's participation and consensus-building

- · Reach a national consensus on unification
- · romote unification to gain public acceptance and support
- Ensur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n peace and unification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sistency in unification policy toward North Korea

- •Implement unification programs continuously
- Realize and maintain the established unification policy
- •Introduce and reform laws and systems for unification
- •Hold regular inter-Korean dialogue
- Operate inter-Korean channels for dialogue and consultation
- · Continue inter-Korean dialogue based on trust

Ending military confrontation on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for peace without military threat
- Convince neighboring countries to cooperate towards disarmament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 •Improv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their neighboring countries
- Promote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The South and the North gain cooperation and support of neighboring countries for unificatio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 Promote exchanges between separated families
- Allow free visits between separated families
- Ensure inter-Korean cooperation for quarantine efforts regarding contagious human and animal diseases
- Manage and preserve the natural eco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inter-Korean cooperation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 Ensure continuous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
- Promote exchange and cooperation in non-political areas
- Conduct joint research on language, history and culture to restore the inter-Korean community
- Engage in joint efforts to restore historical understanding
- Guarantee freedom of travel and tourism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 •Ensure that the South and the North are open to each other's media and exchanges of information
- •Ensure transparent journalism on realiti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balanced inter-Korean development

- Establish trust in inter-Korean relations based on respect for each other's system and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 concrete plans for integration of the economy and resourc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 Connect and maintain transportation facilities through inter-Korean cooperation

Education on peace and unification

•The South and the North to conduct common education on unification

June 26, 2021

Participants in the Social Dialogue on the National Social Pact on Unification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he social dialogue and agreement on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commendations for the Continuation and Development of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Participants in the Social Dialogue on the NSPU, organized by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adopt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NGOs and the people based on the deliberation on ways to continuously develop social dialogue on the vision of peace and unification.

Recommendations t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 •The central government expands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 •The central government integrates the outcome of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into policy.
-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es a consistent unification policy based on the NSPU.
-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stablish the necessary policy and budgets to continu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mplement regular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of diverse scales and with participants from diverse backgrounds.
-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es a permanent institution for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 •The central government extends the promotion of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for more active participation.
- •The central government creates diverse channels for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 •The Ministry of Unification establishes a platform for people to participate that opens the process and outcome of participant deliberation.
- •The Ministry of Unification prepares an accurate manual for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 •The central government listens to diverse opinions on unification and creates a variety of communication channels.
- •The central government provides adequate information on unification for the people.
- •The central government creates opportunities for education on unification.

Recommendat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 •The National Assembly introduces law that supports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 The National Assembly integrates the outcome of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into policy.
- •The National Assembly establishes a consistent unification policy based on the NSPU.

Recommendations to NGOs

- •NGOs expand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 Civil society organizations deal with diverse perspectives and themes in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 •NGOs provide adequate information on unification for the people.

Recommendations to the people

- •eople actively participate in unification education and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 People monitor whether the NSPU is adequately integrated into government policy.
- People develop an objectiv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s.

Recommendations for evolution into inter-Korean dialogue

Develop the social dialogue on peace and unification into inter-Korean dialogue.

June 26, 2021

Participants in the Social Dialogue on the NSPU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of Korea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eace in East Asia

주관기관 평화공공외교협의회

Organized by The Council for Peace and Public Diplomacy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Moderator CHO Youngmi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Executive Director

패널 • 황수영 참여연대 팀장

Panelist • HWANG Soo Young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Manager

• 이원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 LEE Won-young Korea Democracy Foundation, Executive Director

•이기호 한신대학교 평화와공공성센터 센터장

• YI Kiho Center for Peace & Public Integrity, Hanshin University, Executive Director

• 이영채 일본, 게센여학원대학교 교수

· LEE Young chae Keisen University, Japan, Professor

• 이동기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원장

· LEE Dong-ki Kangwon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Director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2-4)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평화공공외교협의회는 2021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를 주제로 준비하였다. 2020년 진행한 '글로벌 시민사회 대응'에 이어 연속성을 갖는 2021년 세션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시민사회가 전통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과 시도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을 통해 공유하고 협력체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People's solidarity for peace in East Asia

The Council for Peace and Public Diplomacy (CPPD) prepared a session under the theme of 'Civil Society Solidarity for Peace in East Asia' in 2021. Following the 'Global Civil Society Response' held in 2020, the 2021 session, which has a continuity, will show various attempts by civil society in East Asia, including South Korea, to break away from the traditional method and open a new horiz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new approaches and trials. Through the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we would like to share and seek a cooperative system.

좌장 Moderator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CHO Youngmi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Executive Director

조영미는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의 집행위원장이자 "Korea Peace Now!" 글로벌 캠페인의 한국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중앙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제협력과 시민공공외교,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문화적 지속가능성과 문화다양성 등을 연구하고 있다. 그녀는 정부, 시민사회 및 기타 국내외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관계 구축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외교부 공공외교지원네트워크의 위원이며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의 연구위원,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상임집행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Let's DMZ 평화예술제 조직위원회와 국제평화교류위원회 등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Cho Youngmi is the executive chairman of the Korea Women's Movement for Peace and a Korean consultant for the "Korea Peace Now!" global campaign. She is a research professor at Chung-Ang University and stud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civil public diplomacy, women's participation in peace process, cultural sustainability and cultural diversity. She is known as an expert in building partnerships with governments, civil society and oth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She is a member of the Foreign Ministry's Public Diplomacy Support Network, a researcher at the National Assembly's Peace Forum on the Korean Peninsula, a permanent member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Campaign, and also a member of the Gyeonggi-do Let's DMZ Peace and Arts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and the International Peace Exchange Committee.

패널 Panelist



참여연대 팀장

HWANG Soo Young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Manager

황수영은 현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국제연대위원회 팀장이자,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민사회단체에서 평화와 군축, 국제분쟁, 아시아 인권 이슈와 관련된 활동을 해왔으며, 2014년부터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일하며 국방·외교 정책 감시, 평화와 군축, 핵무기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위한 활동,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연대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반대 운동, 무기 거래 반대 운동,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등에 참여해왔다.

Hwang Sooyoung is working a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as a manager of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and Center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 Korea Peace Appeal Campaign as a secretary-general. She has worked on peace, disarmament, international conflict, Asia human rights issues from 2012, joined PSPD in 2014. PSPD is a watchdog NGO, mainly works for monitoring government policies on national defense & diplomacy, advocating for peace, disarmament and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building solidarity to advocate various democracy and human rights issues in Asia. She has participated in the campaign to stop the construction of the Jeju naval base, the campaign against THAAD deployment of U.S. troops in Korea, the campaign against arms trade, the campaign on World Armament Day, and the fact-finding campaign for the Ferry Sewol disaster.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eace in East Asia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하나의 목소리,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Korea Peace Appeal Campaign)

황수영 참여연대 팀장

70년 넘게 끝내지 못한 전쟁이 있습니다. 70년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한 가족들, 전쟁이 남긴 고통, 분단과 적대의 상처를 안고 7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가 되었지만, DMZ를 가로지르는 철조망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남과 북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 세계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펼쳐 나가고 있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Korea Peace Appeal : Peace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아가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이었던 2020년, 한국의 7대 종교와 국내□국제 35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발족했습니다.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듭시다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합시다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합시다'라는 4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전 세계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모으고 연결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이자 확성기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캠페인에는 430여 개의 크고 작은 국내. 국제 단체와 네트워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종교인과 활동가들은 서울. 경기. 전북, 경북, 제주 등 전국의 거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사회 원로들, 국회의원, 지자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들, 정당들, 문화예술계 인사들 등 각계에서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19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을 비롯하여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미국의 피스 액션(Peace Action), 영국의 핵군축캠페인(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ND), 몽골의 블루 배너(Blue Banner NGO), 일본의 피스 보트(Peace Boat) 등 전 세계 6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들이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으며, 동포들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한반도 평화선언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였고, 한국전쟁 종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영어, 일어 컨텐츠 제작과 온라인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서명운동과 지지선언의 결과를 적절한 시기에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을 포함한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와 유엔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시민의 힘으로. 각국 정부가 종전과 평화를 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한반도는 냉전 시기 분단과 전쟁이라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한국전쟁에는 남한과 북한 외에도 다수의 국가가 병력을 파견하거나 의료, 물자 지원 등으로 참전했습니다. 그후 국제적 냉전 체제는 해소되었지만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못했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긴 정전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정전 체제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화를 부추겼으며 전 세계적인 핵 군비경쟁과 확산을 촉발해왔습니다.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 없이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도, 핵무기 없는 세계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류가 마주한 기후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은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한정된 자원을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군인이 국경을 넘으면 전쟁이 시작되지만, 시민이 국경을 넘으면 평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 전에 한국전쟁을 끝내고 대결과 분쟁의 상징이었던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의 산실로 바꿔내기 위해 전 세계 시민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eace in East Asia

Korea Peace Appeal Campaign, A Voice to End the Korean War

HWANG Soo Young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Manager

There is a war that has not ended for more than 70 years. There are those who lived 70 years without being able to meet their separated families and who struggled with pain the war left behind as well as the wounds of division and hostility. We now live in a world where we can travel beyond borders online, but the barbed-wire fence standing across the demilitarized zone (DMZ) still sever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d like to introduce the 'Korea Peace Appeal: Peace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a campaign gathering the efforts of civil societies across the world.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is an international campaign that seeks to gather voices calling for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a transition from armistice to peac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and throughout the world. The campaign was launched by 350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Korea and abroad as well as Korea's main 7 religions in 2020, commemo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with the aim to end the Korean War and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2030,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e campaign implements various activities with the aim to achiev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entered around collecting signatures and declarations of support from around the world for the Korea Peace Appeal, which contains four requirements of a) ending the Korean War and signing a peace agreement, b) building a Korean Peninsula and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and nuclear threat, c) resolving conflicts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instead of sanctions and pressure, and d) investing in citizens' safety and environment breaking away from the vicious circle of arms race. The campaign made efforts to become a global network and an amplifier for those wishing to end the Korean War and build peace. Currently, about 430 big and small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networks have joined the campaign. People of religion and activists met with citizens for the past year on the streets of Seoul, Gyeonggi, Jeonbuk, Gyeongbuk, and Jeju, as well as online.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from leaders of societ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members of local councils, and members of political parties to figures in the culture and arts world are joining the Korea Peace Appeal signature collection campaign.

More than 60 international partner organizations have joined the campaign, including 1910 Nobel Peace Prize Winner 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Peace Action in the US,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ND) in the UK, the Mongolian NGO Blue Banner, and Peace Boat in Japan. Participation of overseas Koreans also continues. The campaign translated the Korea Peace Appeal into many languages and creates contents in English and Japanese, while holding online seminars to raise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ending the Korean War.

The collected signatures and declarations of support will be delivered to relevant government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s well as the UN at the right time. The campaign aims to make each government have no choice but to choose to end the war and build peace through the efforts and support of citizens across the world.

The Korean Peninsula suffered the tragedy of division and war during the Cold War. Many countries other than South and North Korea deployed forces or sent medical or military supplies during the Korean War. The Cold War ended, but the Korean War did not. And the unprecedentedly long armistice regime still stands. The unstable armistice regime incited militarization not only on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eace in East Asia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Northeast Asia, and has triggered a global nuclear arms race and proliferation. Without ending the Korean War and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will not be able to build peace in Northeast Asia or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Climate crisis and COVID-19 pandemic have sent us a strong message that we need to break away from the vicious circle of arms race and use our limited resources in saving people and our planet.

There is a saying, "if a solider steps across the border, a war begins; but if a citizen crosses the border, the possibility of peace opens."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will work with citizens across the world to end the Korean War and transform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been a symbol of confrontation and dispute, into the cradle of peace and coexistence by 2023,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패널 Panelist



이원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LEE Won-young** Korea Democracy Foundation, Executive Director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가톨릭평화공동체 대표 한반도평화행동 대표 경주대학교 로고스칼리지 조교수

Ph.D. in Polit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uncil of Youth Democratic Organization in Korea, General Security) Chairperson of the Catholic Peace Community Chairperson of the Action for Peace of Korean Peninsula Logos College at Gyeongju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eace in East Asia

> 이원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탈냉전 시기,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민주주의가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개발, 인권, 평화 등 다양한 이슈 영역에서 진행되는 국제협력과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사회 역량과 리더십 강화, 투명성과 책무성 증진, 인권, 법치, 언론자유, 자유로운 선거, 독립적인 사법기구 등 민주적 거버년스(Democratic Governance)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화를 빠른 시간 동안 달성한 한국의 발전 모델에 대한 관심 역시 중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와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개별 국가들의 주권에 대한 문제,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의 연관성 문제 등 많은 논쟁을 또한 야기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개발지원 대상 국가들이 민주화 문제나 인권의 문제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을 감안할 때 더욱 실효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적 거버넌스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간 외교가 아닌 공공외교를 통한 민주주의와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eace in East Asia

LEE Won-young

Korea Democracy Foundation, Executive Director

In post-cold war era, the democracy has been the important agenda a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Naturally, that makes it increase the attention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the agenda for the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the peace. Thus the various issues for the democratic governance-strengthening the capability and leadership of the civil society which monitors the power, enhancing the transperency and the accountability, the human rights, the rule by law, the liberty of the press, the free election and the independent judicial authority etc.-is rising as one of the prominent parts. Thorough that, the Korean model which has attained the industrialization and the democratization both has attracted the much interest. But this attention on the democra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led much contention about the national sovereignty, the relations betwee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democratic development. Specially because many recipient states are sensitive to the problem of the its democracy or the human rights, the more effective approach is necessary. So, on the base of the Korean experience of the democritization and the democratic governance, the public diplomacy (not the governmental diplomacy) is necessary for the possibility of the increasing the democracy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패널 Panelist



이기호 한신대학교 평화와공공성센터 센터장

YI Kiho

Center for Peace & Public Integrity, Hanshin University, Executive Director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1997)를 받고, 크리스챤아카데미(현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활동하다가 1999년 일본 와세다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활동을 한 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평화포럼 사무총장으로 남북문제 및 동아시아 시민사회와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 그 후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연구교수를 거쳐 2008년 이후,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원장과 평화와공공성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YI Kiho is a professor at Graduate School of Social Innovation Business and the executive director of Center for Peace and Public Integrity in Hanshin University, South Korea.

Previously, Yi worked as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 Peace Forum from 2003 to 2006, focusing on peace and cooperation issu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in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n cooperation. He also served as an advisory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f the Northeast Asia Initiative during the period of Roh Moo-hyun government. From 1999 to 2002, Yi was a visiting scholar at Waseda University in Japan, looking at the local/transnational civil movement and its links to peace in East Asia. Presently, he has been leading the Asia Peace program at the Center for Peace and Public Integrity with training the young generation for Asia and Peace studies and collaborations on research and educational programs with various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beyond borders.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eace in East Asia

평화와 인권을 위한 아시아 대안교육활동

이기호 한신대학교 평화와공공성센터 센터장

아시아의 발전 속도는 그 어느 대륙보다 빠르고 그 규모도 이제는 유럽을 능가할 만큼 성장했으나 빈부격차와 기후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 간은 물론 국내의 분쟁과 갈등 또한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기존의 근대화 패러다임과 국가 중심의 사고와 교육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혁신적인 교육의 변화가 없이 해결할 수 없으며 일국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곧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민교육에서 인권과 자연권 그리고 보편적 가치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시민을 함께 키워가는 가치와 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본 발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도전을 아시아적 맥락에서 던져보고 새로운 대안교육의 가능성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 평화교육활동 등을 소개함으로써 함께 구상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아시아에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부국강병의 패러다임으로는 인권과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인권과 평화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과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물권을 비롯한 생명권 혹은 넓은 의미에서 자연권이 보장되지 않는 인권은 언제나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아시아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다. 아시아가 문화적으로 풍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다양성에 근거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이 곧 평화와 인권의 문제로 귀결된다. 기존의 제도권 교육의 핵심은 애국심에 기반한 국민교육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었지만 이러한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인권을 보호하기 보다는 국가권력과 자본시장에 더 적합한 인간을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반성과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

아시아의 시각에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대안교육은 첫째, 그 중심 가치를 국가와 자본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에 두어야 한다. 둘째. 형식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표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다양한 로컬언어도 존중받을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언어가 소통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출발부터 함께 기획되어야 한다. 셋째 한가지 발전경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발전경로 그리고 속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선생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으며 어디나 학교가 될 수 있다는 겸손함과 일상의 소중함을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끝으로 사람만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딛고 서있는 땅과 바람 그리고 바다 등 모든 자연앞에 경외감을 갖고 생명의 순환성, 연결성, 관계성을 성찰하고 회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eace in East Asia

Alternative Education in Asia for Peace and Human Rights

YI Kiho

Center for Peace & Public Integrity, Hanshin University, Executive Director

Asia is developing faster than any other continent and its size has also grown even bigger than Europe. However,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climate change, and above all, the conflict and clashes across and within borders are becoming ever more severe. It is no longer possible to resolve these problems based on the existing modernization paradigm and country-oriented thinking and education. It will not be possible to solve these problems without the fundamental transition of awareness and innovative changes in education. Also, it is impossible for an individual country to tackle these problems alone. As such, what is required is to turn away from the national education based on nationalism and turn to a new paradigm of value and methodology, which will foster citizens who are able to take responsibility of human rights, natural rights and universal values.

This presentation tackles this challenge from an Asian context, and suggests to plan the possibility of a new alternative education, introducing the current Asia peace education activities.

Above all, there is a need for Asia to reflect on what a 'country' is. Human rights and peace cannot be guaranteed under the paradigm of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Also, an in-depth reflection and consensus must be reached on human rights and peace. Human rights that do not guarantee the right to life, including animal rights, and the natural rights will inevitably always be vulnerable.

The most prominent characteristic of Asia is diversity. Asia's rich culture is due to its diversity, and respect for diversity in the end boils down to peace and human rights issues. The key to the existing formal education was to provide national education based on patriotism, and to gain knowledge and technology that can make one competitive in the market. However, education needs to reconsider and create a new perspective, as the focus for this type of education is on fostering humans adequate for state power and capitalist market, rather than promoting individual growth and protecting human rights.

Second, it is important to respect the diversity of expression and to facilitate diverse expression, not promoting it as a mere formality. It should be designed from the beginning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communication takes place in multiple languages and not just in English, enough so that different local languages can be respected. Third, it needs to be shared with all that there is more than one path to development, and that speed is not the only thing that matters. Fourth, it must begin with modesty that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student and teacher, that anyone can become a student and a teacher, and a school can be anywhere. Also, it should begin with the respect for the value of our daily lives. Lastly, education must circle around the fact that one must be in awe for all nature, including the earth, the wind, the sea, and everywhere else that man stands on, and to look back on and recover the cyclicality, connectivity and relationship of life, rather than only respecting mankind.

패널 Panelist



이영채 일본, 게센여학원대학교 교수 LEE Young chae

Keisen University, Japan, Professor

이영채는 한국에서 태어나 1998년이후 일본에 머무르고 있다. 그는 일본 게이오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평화학을 가르치고, 동아시아에 있어 일본의 군국주의와 일본식민주의와 군국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 한일시민운동의 연대에 대해서도 깊게 관여하고 있다. 야스쿠니 반대 동아시아 촛불행동의 사무국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시민강좌의 강사 그리고 한일 미디어에서 코멘테이터로 등장하기도 한다.

최근의 저작은 [한류가 전달하는 현대한국], [IRIS로 배우는 한반도 위기의 구조], [현대북한사], [한일우익근대사 완전정복] 등 다양한 저작이 있다.

Professor Lee Young chae was born in 1971 in Korea and has been staying in Japan since 1998. He graduated from the graduate school of Keio University of Japan and studied East Asia local politic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South Korea and Japan-North Korea. He teaches peace studies and the history of Japanese colonialism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 at the graduate school of Keisen University, and has been centrally involved in the interchange of the Japan-Korea citizen's group, general secretary of the East Asia 4 area anti-Yasukuni candle action, the lecturer of the civic lecture and newspaper columnist. Some of his recent works include "Hatukohi-kara Roh Moo Hyun-no-simade" (From Korea drama First Love To the Death of Korea President Roh Moo-hyun),"IRIS-de-wakaru Chousenhanntou-no-kiki"(the Crisis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standing with korean drama IRIS), and "Kachousen-no-gendaisi" (North Korea contemporary history)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eace in East Asia

이영채

일본, 게센여학원대학교 교수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이후 미국의 대북한정책 및 한미일 관계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구축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미중대립속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과 국내문제를 우선시 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일관계에 대한 압력은 양국의 관계개선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구조적인 한일관계 악화를 피하기는 어렵다.

일본의 2011년3,11사태와 한국의 세월호 사태 이후 양국은 전후 국가건설에 구조적인 모순을 노정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이후 동아시아의 국가주의와 불안정한 구조변화는 한일시민사회의 새로운 연대방식을 제기하고 있다.

바이든 정권의 등장과 포스트 코로나이후 동아시아의 평화를 우한 한일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eace in East Asia

LEE Young chae

Keisen University, Japan, Professor

Since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office,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n policy and Korea-U.S.-Japan relations have become an important element in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Amid U.S.-China conflicts, it is likely that the U.S. will pursue a 'blockade' policy against China and prioritize domestic issues. Biden administration's pressure on Korea-Japan relations may be an opportunity for the two countries to improve relations, but the structural worsening of Korea-Japan relations is difficult to avoid.

Since Japan's earthquake and tsunami on March 11, 2011, and the sinking of Sewol in Korea, the two countries revealed structural contradictions in post-war nation-building. Moreover, East Asia's nationalism and unstable structural change revealed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raises the question of a new way of solidarity in civil societies of Korea and Japan.

The presentation seeks to explore the role of civil societies in Korea and Japan to build peace in East Asia after the advent of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in the post-COVID-19 world.

패널 Panelist



이동기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원장

LEE Dong-ki

Kangwon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Director\

▷ 경력

-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한신대학교, 숭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시간강사(1995,03~1999,02, 2007.09~2013.08)
- ─ 독일 프리드리히 실러 예나대학교 사학과 학술연구원 및 연구보조원(2001.02 ~ 2005.08)
- -독일 라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본 대학교(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aet Bonn) 아시아학부 학술연구원(2010.11 ~ 2011.03)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 연구교수(2011.05 ∼ 2013.08)
- 『역사비평』 편집위원(2011.03 \sim 2015.06), 『독일연구』 편집위원(2015 \sim 2017)
- −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2012 ~ 2014)
-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교수(2013,09 ∼ 2020,08)
- 독일 튀빙엔(Tuebingen) 대학교 방문학자(2018.09 ~ 2019.08)
-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관장(2019.09 ∼ 2020.08)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평화학과 교수(2020.09 ∼)
-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원장(2021.01 ∼)

▷ 중점 연구 영역

- 냉전사와 평화사
- 독일통일과 한반도 통일론
- 평화 이론과 사상
- 폭력 연구와 과거사 정리
- 민주시민교육과 평화교육
- 공공역사와 기억문화

패널 Panelist

Academic Career

- 2001-2005 Research Assistant at the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Jena, Germany (for Prof. Dr. Lutz Niethammer)
- 2008 2010 Lecturer at the Inha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 2010-2011 Research Assistant at the Department of Japanese and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Bonn,
- 2011-2013 Research Professor at Institute for Unification and Peac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 2013-2020 Associate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Histo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South Korea
- Since September 2020 Associate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eace Studi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on, South Korea

Memberships:

- Korean Association of Cold War Studies
- Korean Association of Western History
- Korean Association of German History

Research focus:

- Cold War History and Peace History
- Conflict and Peace Studies
- German Reunification and Peace Politics
- Contemporary European History
- Public History and Memorial Museum

Session 2-4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eace in East Asia

평화를 위한 도시 네트워크

이동기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원장

평화를 위한 국제규범이나 국제기구는 약하거나 기만적이이며 국민국가들은 광포하거나 무책임하기에 오히려 '아래로부터의 접촉과 교류 '가 절실하다. 새롭게 열린 글로벌 소통 사회인 '세계사회'에서는 '로컬'이 평화 형성의 더 적극적인 수행 주체가 될 수 있다. 도시 간 평화 네트워크는 국제기구나 국민국가의 평화정치 보조가 아니라 독자 수행주체(agency)이자 '평화전략' 발현 거점이다. 시민들의 일상문화와 경험세계를 매개로 평화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집단적 소통과 상호작용, 공통의 경험과 기억 공간 창출이 중요해졌다.

도시들의 평화 네트워크는 유럽의 도시결연 역사로부터 많은 자극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독일 도시와 마을들은 이미 1950년대 초부터 프랑스의 도시와 마을과 다양한 네트워크와 결연 제도를 발전시켰다. 정부간 협정 전에 도시결연이 양국 간 화해와 교류의 질적 차원을 열었다. 아울러 냉전과 분단 시기 서독과 동독도 1980년대 후반 60여개에 달하는 도시결연을 발전시켰다. 이 두 역사 경험은 도시간 평화네트워크가 통일이나 지역통합의 이상주의 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만남과 실제적 요구에 조응하는 것이 유익함을 알렸다. 아울러 로컬을 지나치게 이상화할 수 없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평화를 내세운 도시 네트워크의 요인과 동력은 이질적이고 경합하거나 어긋날 수 있다. 다만, 평화도시의 전망과 내용을 실제로 갖춘다면 도시간 평화 네트워크는 '평화팔이' 경향을 극복하면서 '로컬 평화'의 새로운 차원을 열 수 있을 것이다.

Session 2-4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eace in East Asia

City Network for Peace

LEE Dong-ki

Kangwon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Director

International regulations or organizations established for peace are powerless or deceptive, and nation countries are furious or irresponsible, so there is a dire need for a 'bottom-up connection and exchange'. In the new 'global society' that enable global communication, 'the local' is capable of taking on a more leading role in creating peace. Peace network between cities does not supplement peace politic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nation countries, but is an independent agency and the starting point of 'peace strategy'.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to create a bottom-up collective communication and mutual interaction, and common experiences and memories, based on the citizens' everyday lives and experiences.

Peace network among cities can learn from and get motivated by the city partnerships in the European countries. Cities and towns in Germany have created diverse networks and partnerships with cities and towns in France from the early 1950s. Before government-level agreements took place, city-level partnerships opened up high quality exchange and discourse. Also, the East and the West Germany during the Cold War established approximately 60 city partnerships in the late 1980s.

These two historical cases show that peace network among cities is better with realistic and detailed meetings and listening to practical requests, rather than idealistic reunification or regional integration. Also, one must remember that the local cannot be over-idealized. Drivers and factors behind peaceful city network may be different, competitive and go wrong ways. However, if it actually is equipped with the future and details of peace city, the peace network among cities will overcome the tendency to 'oversell peace' and open a new chapter of 'local peace'.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특별 메시지 Special Message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 Pietro PAROLIN The Holy See, Secretary of State

파롤린 국무원장은 1955년 1월 17일 이탈리아 스키아본(Schiavon)에서 출생했다. 1980년 4월 27일 이탈리아 비첸차(Vicenza)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고, 1986년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the Pontifical Gregorian University)에서 교회법 학위를 받았다. 이후 교황청 외교관학교를 졸업하였고, 1986년 교황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주나이지리아 교황청 대표부 및 주멕시코 교황청 대표부 등 국제 관계 업무에 17년간 종사한 그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외교차관을 역임했다. 2009년 8월 주베네수엘라 교황대사와 명의교구 아콰펜덴테(Acquapendente) 대주교로 임명되었고, 2013년 8월 교황청 국무원장으로 임명되어 2014년 2월22일 추기경에 서임 됐다.

Born in Schiavon (Italy) on January 17, 1955. He received priestly ordination on April 27, 1980 in Vicenza, his diocese of origin, and, after a few years of pastoral ministry, he began his legal studies, which he concluded in 1986 with a degree in Canon Law at the Pontifical Gregorian University.

After his studies at the Pontifical Ecclesiastical Academy, he entered the diplomatic service of the Holy See in 1986 and was sent to the Pontifical Representations in Nigeria and Mexico. Subsequently, for seventeen years, he carried out his service at the Section for Relations with States of the Secretariat of State, later becoming Undersecretary (2002-2009).

In August 2009 he was appointed titular Archbishop of Acquapendente and Apostolic Nuncio in Venezuela and in August 2013 Secretary of State of His Holiness Pope Francis who also aggregated him to the College of Cardinals in the Consistory of February 22, 2014, assigning him the title of Saints Simone and Giuda Taddeo in Torre Angela.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위한 인권과 개발의 통합적 접근과 과제

Integrated Approach and Tasks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주관기관 통일연구원

Organized by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좌장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Moderator KIM Sooam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nior Research Fellow

발표 • 이성훈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특임연구원

Presenter • LEE Anselmo GAFC, Kyunghee University, Senior Research Fellow

•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 KIM Taek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원재천 한동대학교 국제법교수

• WON Jae-Chun Handong Global University,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nd Director

of International Law Center

토론 •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LEE Keumso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nior Research Fellow

•문타폰 비팃 태국, 쭐랄롱꼰대학교 교수

· MUNTARBHON Vitit Faculty of Law,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Professor

• 데이비드 메이즐리시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

 David MAIZLISH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Head of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3-1)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위한 인권과 개발의 통합적 접근과 과제

인권에 기초한 개발'은 발전권의 중요한 덕목이자 가치이다. 인권과 개발은 공통의 목적과 비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로 교차하며 상호 보완적이다.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생명공동체 형성을 위해 인권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수요에 기초한 원조는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시혜적 차원을 넘어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세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이 직면한 도전과 인권에 기초한 개발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개발과 인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이론적 정책적 과제를 도출한다.

Integrated Approach and Tasks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 'development based on human rights' is an important virtue and value for the right to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re mutually-complementary and overriding by nature given that they share common objectives and vision. Therefore, human rights improv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considered in an integrated manner to settle peace and establish a life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Assistance rooted in North Korea's demands should contribute to it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hould be able to comprehensively promote civil-political rights and economic·social·cultural rights going beyond the meaning of mere benefits. In that regard, the session discusses challenges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post-corona era and the direction for development based on human rights, thereby deriving theoretical and policy tasks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u> 좌장 Moderator</u>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IM Sooam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nior Research Fellow

김수암은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의 전공분야는 대북정책, 북한인권, 대북지원, 이산가족, 인도주의 사안 등이다. 그의 최근 업적은 북한주민의 정보 접근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원 (2020, 공저),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통일연구원 (2020, 공저), 사회문화 교류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2018, 공저),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 북민 인식조사 통일연구원 (2016, 공저) 등이 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0년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Dr. Kim Soo-Am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Humanitarianism and Cooperation Research Division in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Dr. Kim's major research areas include North Korea policy,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id to North Korea, separated families and humanitarian issues. His recently published articles include Research on Information Access of North Korean People (Co-authored, KINU, 2016, in Korean); Triangle of Peace-Human Rights-Development: Theoretical Review and Analysis Framework (Co-authored, KINU, 2020, in Korean); Plans to Strengthen Sociocultural Interactions and Human Interactions (Co-authored, KINU, 2018, in Korean); and Survey on North Korean Defectors about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Co-authored, KINU, 2016, in Korean). Dr. Kim receiv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was also a president for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North Korean Studies

발표자 Presenter



이성훈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특임연구원

LEE Anselmo

GAFC, Kyunghee University, Senior Research Fellow

현재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연구원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성공회대학교 대학원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 NGO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국내와 국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인권, 민주주의, 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해왔고 최근에는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을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 연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인권분야에서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2018-2010)과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2010-2018)를 역임했고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으로 대외협력위원회를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가톨릭대학교 사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공공외교학회(KAPD)와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KASD) 이사를 맡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스위스 제네바 국제가톨릭지식인문화운동(ICMICA) 사무총장(1997-2004) 그리고 방콕의 아시아 인권단체 연합체(포럼아시아) 사무총장(2005-2008)을 역임했다. 그리고 세계시민단체인 CIVICUS 국제이사(2011-2016)로 활동했고 2013년 아시아발전연대(ADA)와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AND) 설립을 주도했고 올해부터 지속가능발전 아시아시민사회파트너십 (APSD) 대표간사 역할을 맡고 있다.

LEE Anselmo is currently Adjunct Research Fellow at the Global Academy for Future Civilizations (GAFC), Kyunghee University in South Korea. He is also serving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s a non-standing director of the board and the Asia Civil Society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PSD) as a regional coordinato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civil society movement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in the fields of human rights, democracy,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or more than 30 years. He has recently engaged with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the Korea peace process.

He is teaching global governance, international NGOs and SDGs at the Master Degree Program of Sungkonghoe University. He studied sociology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B.A.) and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A.).

He was a co-founder of the Asia Development Alliance (ADA) and Asia Democracy Network (ADN) created in 2013 as a regional network of CSOs engaged in SDGs and democracy.

He had been working for the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as Executive Director from 2010 to 2018 after serving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as Director General in charge of Human Rights Policy and Education (2008-2010). Previously he worked at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as Executive Director (2005 – 2008) based in Bangkok.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위한 인권과 개발의 통합적 접근과 과제

Integrated Approach and Tasks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인권으로서의 개발과 한반도 평화"

이성훈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특임연구원

본고는 지금까지 유엔 중심의 인권과 개발 담론과 의제 발전 과정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용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인권으로서의 개발'은 유엔의 핵심 가치인 인권과 개발의 연계 및 통합을 의미한다. 유엔 창립 당시 시민정치적 권리를 의미했던 인권과 경제발전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욕구 충족을 의미했던 발전(개발)은 각자 독자적으로 진화해왔다. 이러한 두 담론과 의제는 1986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발전(개발)권 선언 (Right to Development)을 통해 '인권으로서의 개발'로 정식화 되었다. 발전권 선언은 발전을 인권으로 천명하면서 민족자결권과 주민 참여의 권리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발전권 선언의 전문은 발전권 실현을 위한 국제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제7조는 구체적으로 군비축소를 통한 인간발전 재원 확보를 강조하였다. 발전권 선언은 이후 UNDP의 1990년 인간발전보고서 그리고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성장 과정에 인권을 연계 및 적용하려는 노력에 영향을 주었다. 최근 개발에 대한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으로 체계화 및 정착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인권과 개발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초기의 '인권을 존중하는 개발'에서 최근 '인권을 통한 개발'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인권과 개발의 통합에 평화를 연계하는 노력이 부각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발전권은 2015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의 기본 원칙이자 규범에 반영되었다.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금융기구는 인권기반접근과 갈등인지적 (conflict-sensitive)접근을 채택하였고 최근 인도주의-개발-평화(HDP) 넥서스 접근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인권과 평화 및 발전권의 내용이 담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번 목표에 기반한 SDGs 접근 또한 강조되고 있다.

21세기 한반도 평화는 국가안보 중심의 '소극적 평화'가 아닌 '적극적 평화'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인권과 개발이 통합된 발권권과 평화권의 틀로 해석되고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SDGs를 평화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 반영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위한 인권과 개발의 통합적 접근과 과제

Integrated Approach and Tasks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evelopment as Human Right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LEE Anselmo

GAFC, Kyunghee University, Senior Research Fellow

This paper examines historical process and current state of the international discourse o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nd its implic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a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Development as Human Rights' refers to a linkage and integration of human rights (UN's core value) and development. Human rights, which meant civil, political rights at the time of the UN foundation, and the development, which indicated the fulfillment of economic and social needs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have evolved independently. Such discourses and agenda have been formalized into the 'development as human rights' via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adopted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86.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stressed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and participation by declaring development as human rights.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Article 7 underscores the need for securing resources for human development via disarmament measures.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has impacted the UNDP's Human Development Report (HDR) of 1990 and the efforts in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o link human rights with the eradication of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heir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This has been systemized and formalized into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the development. Such attempts to integrate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have evolved from the initial 'development with human rights' to the recent 'development through human rights.'

Recently efforts to link peace to the integration of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have been highlighted. As well-known, the right to development was reflected in the basic principles and norms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nown as the SDGs adopted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15.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World Bank have also adopted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and conflict-sensitive approach and humanitarianism-development-peace (HDP) nexus was one of the concrete examples. SDG 16+ approach has also been emphasized as a way to integrate human rights, peace, and the right to developm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f the 21st century has been recognized not as 'negative peace' rooted in national security but as a matter of 'positive peace.' The Korean Peace Process, therefore, should be interpreted and dealt with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the right to peace. In particular, there should be more efforts to develop the policy framework that integrates SDGs in terms of peace and applies it in the process of inter-Korean cooperation and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발표자 Presenter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KIM Taek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김태균은 2012년부터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역임해 왔으며, 서울대학교 이전에는 와세다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조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사와 국제학 석사를 받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석사와 사회정책학 박사를, 그리고 존스홉킨스대학 고등국제학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국제협력단 민간 비상임이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UNESCO 컨설턴트, UNRISD 협력연구원,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풀브라이트 연구원, 튀빙겐대학교와 파리4대학 방문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개발, 국제정치사회학, 평화학, 글로벌 남반구 연구, 글로벌 거버넌스 등이며, 다양한 연구논문과 단행본을 출판하여 왔다.

Kim Taekyoon is professor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G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Prior to SNU, he was assistant professor of Ewha Womans University and Waseda University. He received a B.A. in Sociology and a M.A. in International Studies from SNU, a M.Phil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 D.Phil in Social Policy from the University of Oxford, and a Ph.D.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 He is currently working for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s an Executive Director, and has been appointed as a Board Member of the National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t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Policy Committee at the Ministry of Justice, etc. He also worked for UNESCO as a consultant, the UNRISD as collaborative researcher,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as Fulbright fellow, and Tübingen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Paris IV as visiting professors. His main research areas include internat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political sociology, peace studies, global South studies, and global governance. He has published various scholarly journal articles and books.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위한 인권과 개발의 통합적 접근과 과제

Integrated Approach and Tasks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SDG) 목표 이행 및 인권과의 관계

김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2021년 6월 약속하였듯이 북한 정부는 유엔고위급 정치포럼(UN High Level Political Forum, UNHLPF)에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를 제출하였다. 북한의 VNR은 새로운 지침 하에 지속 가능한 목표를 이행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유엔 SDG를 북한의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에 맞춘 국가 목표로 전환을 돕는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VNR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에 VNR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인권에 대한 관점을 SDG이행 논의에 가져옴으로써 SDG를 어떻게 북한의 인권에 연결 지을 수 있을지를 제안할 것이다.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위한 인권과 개발의 통합적 접근과 과제

Integrated Approach and Tasks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its Relation to Human Rights

KIM Taeky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s promis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ubmitted its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to the UN High Level Political Forum (UNHLPF) in June 2021. DPRK's VNR contains various efforts to implement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under the new guideline which translates SDGs into DPRK's national goals that are adapted to its national contexts and policy priorities. This paper sets out to investigate not only DPRK's VNR and its implications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By bringing human rights perspectives into the discussion of SDG implementation, the paper will propose how to connect SDGs with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North Korea.

발표자 Presenter



원재천 한동대학교 국제법교수

WON Jae-Chun

Handong Global University,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nd Director of International Law Center

원 교수는 대한민국 국방부 국제법무관실에서 국제법무관으로 법조 생활을 시작했다. 미국 브루클린 로스쿨(Brooklyn Law School)에서 법학을 마친 뒤 미국 뉴욕 킹스카운티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검찰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원 교수는 2001년 미국 J.D. 스타일의 법학전문대학원인 한동국제법학전문대학원에 창립 어소시에이트 딘으로 입사했다. 2009년 학계를 떠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인권교육, 국제인권문제 담당 국장으로 재직했다.

원 교수는 2013년 한동평화화해연구소(HIPR) 창립이사가 돼 현재 한동국제법률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원 교수는 이사로 한국국제법학회 지부 발간물인 '한국국제법 연감'의 편집장이다. 이탈리아 산레모 국제인도법연구소 정회원이며 대한적십자사 국제인도법 자문위원도 맡고 있다.

면허: 미국 뉴저지 주(州)의 변호사 입학

회원: 국제검사협회(IAP)

Professor Won began his legal career as an international law officer at the Office of General Counsel,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completing law studies at Brooklyn Law School (USA), he entered public prosecution service at the Kings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New York, U.S.A. as an Assistant District Attorney.

In 2001, Professor Won joined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an American J.D. style graduate law school, as a founding Associate Dean. In 2009, he took a leave from academia to serv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s Director-General (DG) in charge of Human Rights Policy, Human Rights Educa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Affairs.

In 2013, Professor Won became a founding Director of the Handong Institut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HIPR) and currently serves as Director of the Handong International Law Centre.

Professor Won is a board member and the editor of the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a publication of the Korea Branch of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He is a full member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itarian Law of Sanremo, Italy, and serves as a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dvisory Board Member of the Korea Red Cross.

License: Bar Admission in the State of New Year and State of New Jersey, U.S.A.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IAP)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위한 인권과 개발의 통합적 접근과 과제

Integrated Approach and Tasks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UN SDG 관점에서의 북한 장애인 권리 및 개발

원재천 한동대학교 국제법교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장애인 권리 옹호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장애인 권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이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과는 달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는 각기 다른 목표 영역에서 장애인 권리를 통합하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통한 노력에 동력을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이는 SDG 이행 안내 원칙인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에 의해 강화되었다.

인권 향상을 위한 장애인 권리에 대한 개선된 인식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2016년 12월 CRPD를 비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발표는 SDG관점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북한 법에 명시된 장애인 권리와 관련 SDG와의 연결고리를 예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가족생활권리, 이동의 자유권, 교육의 권리라는 3가지 주요 이슈를 다룬다. 본 제출지는 주요 질의사항, 질문지,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본고는 북한 정부로 하여근 CRPD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파리 원칙(Paris Principle)에 의거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자원, 인력을 갖고 "독립적인 장애인 권리 국가 기관"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본고는 장애인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육에 대한 접근은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북한도 이에 맞게 적극적으로 다른 종류의 장애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특수교육반을 맡을 역량을 갖춘 특수교사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 북한 내 장애에 대한 더욱 공식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국가 및 모든 관련 기관들의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국제 협력은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완전히 이용하고 이행함으로써 취약한 계층, 특히 북한 장애인들의 삶에 꾸준한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위한 인권과 개발의 통합적 접근과 과제

Integrated Approach and Tasks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isability Rights and Development in DPRK in context of UN SDG

WON Jae-Chun

Handong Global University,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nd Director of International Law Center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olds a special meaning to advocacy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like the previou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hich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2030 Agenda incorporates the rights of disabled people across different goals, giving a new momentum to work towards improving human rights for those with disabilities. Furthermore, it would be reinforced by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which serves as a guiding principle for implementation of SDGs.

In light of the increasing recognition of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t is noteworthy that North Korea ratified the CRPD in December 2016. Against this backdrop, this presentation is intended to demonstrate the links between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tipulated in the DPRK law and the relevant SDGs to shed new light on the opportunities to protect and improve human rights of North Korea from a SDG perspective.

This report will address three major issues. They are the right to family life, to freedom of movement, and the right to education. This submission includes key inquiries, questions, and recommendations. In particular, this submission encourages the government of the DPRK to continue striving to implement the CRPD an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disability rights national institution" with a clear legal base, resources, and personnel in accordance with the Paris Principle.

The submission emphasizes the need for a National Action Plan for promo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ess to education should be granted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Accordingly, the DPRK should actively increase the number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who are equipped to offer special education classes that meet the needs of the different types of disabilities. There should be more official data on disabilities in the DPRK.

In conclusion, by fully utilizing and implementing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pen and comprehens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the State and all relevant institutions will bring steady improvement to the lives of vulnerable people group, in particula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DPRK.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LEE Keumsoon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nior Research Fellow

현재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주요 연구분야는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 남북간 인도주의 사안이다. 이전에는 통일부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장, 통일교육원장, 북한인권기록센터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Dr. Lee Keumsoon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Humanitarianism and Cooperation Research Division, KINU. She has worked on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humanitarian affairs. Previously, she served as the chairperson of National Committee for the Compensation of the Victims of North Korean Abduction (2007-2009), President of National Unification Education (2015-2017), and President of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Records (2018-2020), Ministry of Unification. Dr. Lee was educat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Marquette University, and Purdue University, where she received her Ph.D. in Political Science in 1993.



문타폰 비팃 태국, 쭐랄롱꼰대학교 교수

MUNTARBHON Vitit

Faculty of Law,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Professor

문타폰 비팃 교수는 2021년 3월 캄보디아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으로 위촉됐다. 비팃 교수는 유엔 인권보훈을 위해 일한 경험이 있는 태국 법학 교수다. 그는 전 유엔 아동매매특별보고관, 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 특별보고관, 전 유엔 폭력 및 성치별 방지 전문가, 전 유엔 사무총장 등 다양한 직책에서 유엔을 도왔다. 코트디부아르의 조사 위원회와 전 유엔 회원국은 시리아 아랍공화국 조사 위원회를 임명했다.

비팃 교수는 방콕 쭐랄롱꼰대학교의 법학부 명예교수이다. 옥스퍼드대(M.A., B.C.L.(옥슨))와 리브레 드 브룩셀스(Libre de Bruxelles)를 졸업했다. 또한 런던 미들 템플의 배리스터이기도 하다. 몇 년 동안 비팃 교수는 아세안 인권 메커니즘을 위한 워킹 그룹의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국제법, 인권, 국제 인도주의 법, 그리고 법과 개발에 대해 널리 출판했다. 그는 2004년 유네스코 인권교육 상을 포함한 많은 상을 받았다. 그는 2018년에 기사 작위를 받았다.

Professor Muntarbhorn Vitit was appointed as the Special Rapporteur about human rights in Cambodia in March 2021. Professor Vitit is a Thai law Professor with longstanding experience working pro bono for the UN on human rights. He has helped the UN in a variety of positions, including as former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former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Democratic People Republic of Korea, former UN Independent Expert on 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former Chairperson of the UN appointed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Ivory Coast, and former member of the UN appointed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Syrian Arab Republic.

Professor Vitit is a Professor Emeritus at the Faculty of Law, Chulalongkorn University, Bangkok. He is a graduate of Oxford University (M.A., B.C.L. (Oxon.)) and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Licence Spéciale en Droit Européen (Brux.)). He is also a Barrister at Law (the Middle Temple, London). For several years, Professor Vitit Co-Chaired the Working Group for an ASEAN Human Rights Mechanism. He has published widely on International Law,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Law and Development. He is the recipient of several awards, including the 2004 UNESCO Human Rights Education Prize. He was bestowed a Knighthood (KBE) in 2018.

His academic publications include work on the intersec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criminal law of Genocide, and the Law of Occupation. Prior to finishing his studies, Mr. Maizlish was a professional musician in New York City.



데이비드 메이즐리시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대표

David MAIZLISH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Head of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공인 중개인 협회 데이비드 마이클 매이즐리시(David Michael Maizlish) 법학박사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주한공관장이다. 뉴욕 주검사이자 전문 조정관이며 전문분야는 국제인도법이다. 뉴욕 대학에서 2002년 법학박사를 취득했으며 1995년 코넬 대학교와 1988년 딥 스프링스 대학에서 역사 기록학 문학사를 취득했다. 매이즐리시 박사는 2002년부터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법무부 근무, 코트디부아르, 차드, 콩고, 케냐 등의 현장업무 수행, 서태평양 부대의 국제적십자위원회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제네바 국제적십자위원회 본부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했고 인도아태지역 내 15명의 군사 및 안보 전문가를 위한 기술 관리자 및 지역 조정관을 역임했다.

매이즐리시 박사의 학술 저서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접점, 대량학살 관련 형사법, 점령법을 주로 다룬다. 학위 이수 이전 매이즐리시 박사는 뉴욕 시에서 전문 뮤지션으로 활동했다.

David Michael Maizlish, JD, ACIArb, is the Head of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He is a licensed mediator and attorney called to the bar in New York specialising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e received his JD from New York University in 2002, having graduated with a B.A. in Historiography from Cornell University (1995) and Deep Springs College (1988). Mr. Maizlish has worked for the ICRC since 2002, including positions in the Legal Division, field assignments to Ivory Coast, Chad, Republic of Congo, and Kenya and as the ICRC's Delegate to Armed Forces for the Western Pacific. He worked at ICRC headquarters in Geneva from 2009-2018 including work as technical supervisor and Regional Coordinator for fifteen military and police specialists across the Indo-Asia-Pacific.

His academic publications include work on the intersec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criminal law of Genocide, and the Law of Occupation. Prior to finishing his studies, Mr. Maizlish was a professional musician in New York City.

바이오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to Respond to Bio Security Threats in the Korean Peninsula

주관기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Organized by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and Peace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좌장 김범수 서울대학교 교수

Moderator KIM Bumsoo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발표 • 신상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SHIN Sang-Do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rofessor

• 최강석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 CHOI Kang-Seuk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Professor

토론 •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료원 교수

• John LINTON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Professor

• 김상배 서울대학교 교수

· KIM Sang Ba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3-2)

바이오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한반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기존의 전통 안보 논의는 군사적 분야에 초점을 맞춰 적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영토,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의 문제를 주로 다룬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전통 안보 패러다임으로는 새롭게 부상하는 바이오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의 경우 전통 안보 패러다임에서처럼 적과 우방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또한 바이러스의 위협은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위협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전면 중단하지 않는 이상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위협이 순식간에 타국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바이러스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주변국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반도 내에서 멧돼지나 철새 등을 통해 전파되는 가축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협력 체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바이오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남북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전통 안보 중심의 한국 사회 안보 담론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to Respond to Bio Security Threats in the Korean Peninsula

To respond effectively to bio security threats such as COVID-19, avian influenza, African swine fever, etc., cooperation is required among neighboring countries. In particular, South and North Koreas should closely cooperate to respond effectively to bio security threats which can spread rapidly across national borders. Taking this point into account, this session purposes to examine how to build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to respond to bio security threats in the Korean peninsula.

<u> 좌장 Moderator</u>



김범수 서울대학교 교수 **KIM Bumsoo**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김범수 교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시와 석사를 마친 후 미국 시키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10년부터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과 자유전공학부 캠퍼스아시아 사업단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위원회 위원, 자유전공학부 교무부학부장과 학생부학부장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정치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으며,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 한국정치사상학회 총무이사, 거버넌스 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외에 대한민국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구조개혁 컨설팅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정의론, 인권 론, 정체성의 정치, 민족주의, 다문화주의 등 현대정치이론의 주요 이슈를 다루고 있다.

Kim Bumsoo is a professor of the College of Libe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 vice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t SNU, he also served as an associate dean of academic affairs, and an associate dean of student affairs of the College of Liberal Studies. In academia, he currently serves as a secretary general for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d was an executive secretar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for Governance Research and a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n Society for Political Thought. In the public sector, he currently serves as a committee member of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Committee for Overseas Compatriots and was a consultant member of the Consulting Committee for Restructuring of Universit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He taught at the Jackso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as the Y.T. Shim Endowed Visiting Professor and was a foreign research scholar at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Tokyo. His main academic research areas include justice, human rights, identity politics, nationalism, multiculturalism, and many other issues of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His articles appear in many academic peer-reviewed journals such as Journal of Korean Studies, Ethnic and Racial Studies,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and so forth. He received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Chicago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발표자 Presenter



신상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SHIN Sang-Do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Professor

신상도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에서 학사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응급의학교실의 교수 및 대학원 휴먼시스템의학과의 교수로 재직중이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및 전임의를 수련한 후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로 재직중이고 2019년 이후 병원 기획조정실장을 담당하고 있다. 신상도 교수는 응급의학 분야의 임상 연구, 재난의학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글로벌의학 분야에서 국제의료협력 분야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특히 한반도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 한반도 재난의료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보건안보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아시아 응급의료학회 초대 회장 (2009—2012), 아시아태평양 외상연구컨소시엄 의장 (2015—현재)을 담당하여 왔으며 세계보건기구 응급의료 역량강화회의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00여편의 국제 학술지 (SCI 급)와 90여편의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했다.

Shin Sang Do is a professor at the College of Medicin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ospital at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and Department of Human Systems Medicine. He studied medicine at College of Medicine and master course at the School of Public Health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hD course on epidemiology at Gangwon National University. He is currently the chief of the planning and budget offic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His main research topics are issues on disaster medicine, global health as well as clinical emergency medicine. He studied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 development, collaboration strategy for disaster medical response, and the health security system in Korean peninsula. He was a founding chair of Asian Association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s (2009-2012), Chair of Pan-Asian Trauma Outcome Study Clinical Research Network (2015-current) and has worked as a steering committee member of Emergency Care System Development unde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e published more than 200 peer-reviewed articles in international journals and more than 90 papers in domestic journals.

바이오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to Respond to Bio Security Threats i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보건안보 체계 구축

신상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중요성

안보는 통상적으로 군사적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국민, 영토, 주권 등을 포함함. 그러나 최근 황사나 대기 오염 등 환경 위험의 확대, 방사능 노출이나 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난, 신종 전염병 출현 등 대규모 재난은 비군사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시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국제연합은 이미 1994년 인간개발 보고서에서 이러한 위협을 보건 안보 (Health Security) 영역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적 혹은 범지구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주요 내용

1. 보건안보 구상

보건안보 위협은 생물학적 원인과 관련된 바이오안보의 영역과 비생물학적 원인 (물리적 화학적 환경적 기후 등)에 의한 분야로 구분될 수 있음. 보건안보 구상은 점증하는 보건안보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 범지구적 협력 구상임.

2. 보건안보 주요 내용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보건 안보는 크게 자연적 (Natural) 요인과 인위적 (Artificial)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음. 자연적 요인에는 신종 감염병 유행 등이 포함되고 인위적 요인에는 테러나 생물학 전쟁 등 정치적 군사적 인위적 요인이 포함됨. 보건안보의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 단계. 즉 재난의 단계에 따라 해당 내용이 구성됨.예방 단계. 대비 단계. 대응 단계. 회복 단계 등 재난대응체계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세부 내용은 방역 분야와 의료 분야로 구분될 수 있음

3. 보건안보체계 구축 방안

보건안보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치 군사적 위협 요인을 제외한 자연적 생물학적 요인에만 한정하여 예방, 대비, 대응, 회복 등 전 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예방은 고위험 자연적 요인을 규명하고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대비는 전담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비축 및 교육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대응은 인지 (detection), 상황관리 (incident command). 안전 확보 (safety), 위험요인 평가 (assessment), 환자 분류 및 치료 (Triage and Treatment), 환자 후송 및 배치 (evacuation), 회복 지원 (recovery)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회복 단계는 정신심리지원, 재활, 복귀 등을 포함함, 보건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협력을 선언적 수준에서 제도적 법률적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이 필요함. 한반도 보건안보 구축을 위한 특별법 등 한시적 특수 목적 법령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이 법령에는 한반도 보건안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의, 법령의 대상, 국가 및 지자체 역할, 국제 협력의 근거, 남북한 협력의 근거, 한반도 보건안보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근거, 소요 재원을 위한 기금 등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결론

한반도 보건안보 체계 구축은 정치적 군사적 안보에 못지않게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위협의 원인. 결과. 특성. 단계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한반도 보건안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함.

바이오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to Respond to Bio Security Threats in the Korean Peninsula

Building a Health Security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SHIN Sang-Do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Visiting Research Fellow

Significance

Security normally refers to all domains for en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response to military crises, including people, territories, and sovereignty. However, recent large-scale disasters such as expanded environmental risks including yellow dust or air pollution, radiation exposure or accidents,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the emergence of new infectious diseases are non-military factors that also constitute a constant threat disabl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 United Nations has already defined this threat as a health security domain in its 1994 Human Development Report, emphasizing the need for regional or global cooperation to address the challenge.

Main Ideas

1.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Health security threats can be categorized into biosecurity threats caused by biological factors and those caused by non-biological factors (physical, chemical, environmental, climate, etc.). The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is a global initiative for collaboration in response to such growing health security threats.

2. Details of the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Health security threats caused by biological factor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natural threats and artificial threats. Natural threats include outbreaks of new infectious diseases, while artificial threats include political, military and artificial factors such as terrorism and biological warfare. The main ideas behind health security are organized according to each stage of public health crisis response, that is, the different stages of respective disasters. The detailed requirements at each stage of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such as the prevention stage, preparation stage, response stage, and recovery stage, are classified into prevention and control domain and medical domain.

3. How to Build a Health Security System

Building a health security system requires establishing a system covering the entire process of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which is limited to natural and biological threats while excluding political and military threats. Prevention is about identifying and reducing high-risk natural factors; preparation is about securing dedicated personnel, facilities, and equipment while providing training and education; response is about detection, incident command, safety, assessment of risk factors, triage and treatment of patients, evacuation of patients, and recovery; and recovery is about mental and psychological support,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In order to build a health security system, it is necessary to escalate inter-Korean cooperation from a declarative level to an institutional and legal level.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emporary special purpose statutes, such as a Special Act for Building Health Security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law should provide definitions, subjects of the law, roles of states and local governments, ground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i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basis for

바이오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to Respond to Bio Security Threats in the Korean Peninsula

establishing mid- to long-term plans for building a health security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unding methods among others.

Conclusion

Building a health security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is becoming as important as achieving political and military security. It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he causes, consequences, characteristics, and stages of threats. To this end, a special law must be legislated in order to overcom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발표자 Presenter



최강석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CHOI Kang-Seuk**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Professor

최강석 교수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학사와 수의학 석사를 마친 후 충북대학교에서 수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질병진단센터장을 맡아 봉사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장을 역임하였고, 세계동물보건기구 지정 전문가(닭 뉴캣슬병)로 가축 질병에 대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현재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위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전문가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강석 교수는 조류인플루엔자, 동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초국경 동물감염병의 국제적 확산 활동과 함께 국제 협력, 질병 역학, 진단법 및 백신 개발 연구에 집중하여 왔다. 주요 저서 및 논문은 다음과 같다.

Choi Kang-Seuk is a professor of the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CVM) and a director of the Center for Animal Disease Diagnosi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He studied veterinary medicine and received his master's degree (Veterinary Microbiology) at the CVM, SNU course and got his Ph.D. (Veterinary Preventive Medicine) at CV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e served as a director of Foot-and-Mouth Disease Diagnosis Division at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APQA) and also a designated expert (Newcastle disease) of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He currently serves as an Expert Committee of Zoonosis at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and also a member of the Consulting Committee on Avian influenza vaccine at the APQA. He is interested in activities for internationally cooperative control of animal diseases. His main research fields include molecular epidemiological analysis and development of diagnostic methods and vaccines on transboundary infectious diseases such as avian influenza and animal coronavirus infections.

바이오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to Respond to Bio Security Threats i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감염병 원–헬스 대응협력 구축 방안

최강석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본 포럼의 목적에서 명확하게 드러내는 바와 같이 바이오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 전체가 협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가축 감염병으로부터의 안보는 전통적인 안보와 다르게 한반도 전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철새로부터 전파되는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철새에 감염되어 휴전선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북쪽의 농장을 중심으로 확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모기를 매개로 감염이 이루어지는 말라리아(삼일열원충)의 감염환자 또한 북한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진행중인 위협 뿐만 아니라. 변이로 인한 동물 바이러스의 인체감염 발생과 같은 가능성들로부터 한반도 전체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남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의방역정책을 수립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책에 따른 세부시행 방안 및 계획을 수립하여 각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수의, 방역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수의방역조직 및 체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매우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당 농업부문에서 수의방역정책을 수립하고 농업성 수의방역국에서 주관하여 세부시행 방안 및 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역(도, 군) 수의방역소에서 집행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방역조직 및 체계는 90년대 이후 경제난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형해화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가축의 질병예방과 치료를 개인농가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북한의 수의방역상황을 고려하면, 남한이 북한으로 수의방역 기술과 물자를 지원하고 북한은 이를 습득 및 활용하여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지원은 이전에 있었으나 지속되지 못했고. '협력' 보다는 '원조'에 가까울수록 북한은 이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따라서 지속적인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원칙'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번째, 서로 협력하여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는 이 행위가 '상호 호혜적' 이어야한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이득을 얻는다는 것을 양측이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번째, 가축질병 발생정보의 투명성(Transparency)을 서로 지켜야한다. 어느 한쪽에서 질병이 발생한 것은 다른 한쪽으로 피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한쪽의 예방을 위한 소중한 정보 및 도움이라는 것을 양측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위 두가지 원칙을 확고히 하고. 정치 및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고려하여 바이오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면 한반도의 모든 가축 및 인간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바이오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to Respond to Bio Security Threats in the Korean Peninsula

Measures to Build One-Health Response Cooperation for the **Infectious Disease on the Korean Peninsula**

CHOI Kang-Seuk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Professor

As can be seen from the objective of this Forum, the Korean peninsula's joint effort in order to respond to the biosecurity threats is significant and important. Unlike traditional security, security from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 such as the African Swine Flu (ASF) and the avian influenza, is threatening the whole Korean peninsula. Avian influenza that is spread by migratory birds is freely crossi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together with migratory birds. Confirmed cases of ASF are found in the farms in the North. Malaria (Plasmodium vivax) that spread through mosquitos are also claiming patients from the areas that neighbor North Korea. There are not only these ongoing threats, but also the potential threats, such as modified animal viruses impacting humans, that threaten the whole Korean peninsula. Therefore, it is critical to create inter-Korean cooperation to prevent and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South Korea's veterinary quarantine system is structed as follow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stablishes the veterinary quarantine policies,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establishes the detailed measures and plans based on the policy, and the animal hygienic labs of the metropolitan and the basic local governments execute the veterinary quarantine and preventive measures. The system is similar in North Korea as well. The Party's Agricultural Division establishes the veterinary quarantine policies, the Office of Veterinary Quarantin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leads the creation of detailed measures and plans, which is then enforced by each regional (province, districts) veterinary preventive stations. However, the preventive organization and system is highly likely to have become somewhat meaningless due to the economic crisis in the 90s. Also, North Korea emphasizes 'self-rehabilitation' passing the responsibility of disease prevention and treatment to the individual farms.

Considering North Korea's veterinary prevention conditions, one might think that the solution is for South Korea to provide veterinary prevention technology and supplies to the North, and the North to learn and utilize these to prevent and treat the livestock diseases. However, supports of these kinds did happen previously, but did not last. Also, North Korea has the tendency to reject support that tend to be 'aid' rather than 'cooperation'.

As such, we need to set 'principles' required to build sustainable cooperation governance. First, the act of putting joint efforts to prevent animal diseases must be 'mutually beneficial'. It is important for both parties to recognize that it is not one party unilaterally helping the other party, but that the both parties mutually help each other and gain mutual benefits. Second, both parties should maintain the transparency of animal disease information. Both parties should understand that a disease outbreak in one party does not mean that they are damaging the other party, but rather,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and help in preventing the disease for the other party.

Firmly grounding the above 2 principles and creating the inter-Korea cooperation governance to respond to biosecurity threats in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needs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healthy and prosperous lives of all livestock and human on the Korean peninsula.



인요하 연세대학교 의료원 교수 **John LINTON**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Professor

인요한 박사는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이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국제건강관리센터 소장이다. 로이스기독교재단과 천리포수목원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의학공학과 겸임교수인 그는 2003년 고려대학교 생리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John LINTON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at the College of Medicine and the director of Yonsei University Severance Hospital International Health Care Center. He also serves as the director of Lois Christian Rehabilitation Foundation and the Cheonripo Arboretum. He is also a concurrent professor of Graduate School of Medical Science & Engineering,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KAIST) He completed his Ph.D. in Physiology at Korea University in 2003.



김상배 서울대학교 교수 KIM Sang Ba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김상배 교수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이다. 서울대 정치학 학사(1989년)와 서울대 정치학 석사(1991년)를 취득했다. 그는 2000년 인디애나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KIM Sang Bae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holds a Bachelor of Political Science (1989)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n M.A. (1991) in Political Scienc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completed his Ph.D. in Political Science at Indiana University in 2000.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대북외교 재개를 위한 진단과 처방-평양주재 대사들과의 대화

Diagnosis and prescription for the resumption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Conversation with Ambassadors to North Korea

주관기관 통일부

Organized by Ministry of Unification

좌장 김지영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Moderator KIM Ji Young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Professor

패널 • 콜린 크룩스 주북 영국대사

Panelist • Colin CROOKS British Ambassador to DPRK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즈 E∪대표부 남북겸임대사
 Maria CASTILLO-FERNANDEZ EU Ambassador in Korea

• **토마스 쉐퍼** 평양주재 독일 대사관 전 평양주재 독일 대사(~2018)

• Thomas SCHAEFER German Foreign Office (until 2018), Ambassador (Ret.)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3-3)

▋ 대북외교 재개를 위한 진단과 처방-평양주재 대사들과의 대화

북한은 올해 제8차 당대회 및 당 정치국 확대회의 등을 통해 당분간 대내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대남□대미 차원에서는 강온 양면의 메시지로 어느 정도 선택의 여지를 열어놓고, 대화 여지를 시사하고 있으나, 대화를 위한 대화는 '무의미',하다면서, 대화에 필요한 '명분'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와 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 소통 및 조율을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전현직 주북 대사들의 경험와 노하우를 청취하고, 대사들과 함께 김정은 시대 북한체제의 변화상을 지속적으로 조망해 보면서, 현 대북외교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대북외교 재개를 위한 처방을 논의하고자 함,

Diagnosis and prescription for the resumption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Conversation with Ambassadors to North Korea**

North Korea has focused its capacity on domestic issues for some time through its 8th Party Congress and Enlarged Meeting of Political Bureau this year, opening a room for option through a message of both toughness and moderateness in terms of South Korea and the U.S., implying room for conversation. It is, however, saying that 'talk for the sake of talk' is 'pointless,' demanding 'a cause' for dialogue. Against this backdrop, it has become ever more important for countries with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to actively communicate and medi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dialogue and diplomacy for permanent peace to take root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regard, the session aims to share the experience and knowhows of the present and former Ambassadors to North Korea, shine a spotlight on th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regime in the era of Kim Jong-un, diagnose the current problems of diplomacy toward North Korea, and discuss solutions for resumption diplomacy toward North Korea.

좌장 Moderator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KIM Ji Young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Professor

김지영 교수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인하대학교에서 중국어중국학과 학사를 취득하고, 영국 워릭(Warwick)대학에서 국제정치경제학 석사,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는 중국과 남북한 간의 외교이며, 연구방법은 담론분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논문은 China's aggressive periphery diplomacy and South Korean perspective 《The Pacific Review》 (2018), 중국외교담론의 한국적 재해석 《아태연구》(2018), 김정은 시기 북한 정보기술발전의 정치경제적 고찰≪아태연구≫(2018) 등이 있다. 미중 사이버 패권경쟁의 담론과 실제-화웨이 5G 사태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2019).

Kim Ji Young is working as a professor at the National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e received a doctor degree in political science from Warwick University in the UK. He specialized in inter-stat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wo Koreas in terms of foreign policy, which are based on discourse analysis. His recent publications are China's aggressive periphery diplomacy and South Korean perspective The Pacific Review (2018), Korean reconstruction of Chinese diplomatic discourse Asia-Pacific Study (2018),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Kim Jong-un Period Asia-Pacific Study (2018) etc. Discourse and Practice of Cyber-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 With the Case of Huawei 5 G Journal of National Defense Studies

패널 Panelist



콜린 크룩스 주북 영국대사 Colin CROOKS British Ambassador to DPRK

콜린 제임스 크룩스는 2018년 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영국대사가 되었다. 임명에 앞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베이징 주재 장관 보좌관이었다.크룩스는 1992년 중남미 부서의 임원으로 FCO에 입사했다. 그의 이전 외교 인사로는 자카르타 공관장(2011~2015), 평양담당 차관(2008), 워싱턴 1등 서기관(2002~2006), 서울 1등 서기관(1995~99) 등이 있다.

Colin James Crooks LVO became Her Majesty's Ambassador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December 2018. Prior to this appointment, he was the Minister Counsellor in Beijing from 2015 to 2018.

Crooks joined FCO in 1992 as a Desk Officer in the Latin America Department. Some of his previous diplomatic appointments include Deputy Head of Mission to Jakarta (2011 to 2015), Chargé d'Affaires, Pyongyang (2008), First Secretary in Washington (2002 to 2006) and First Secretary in Seoul (1995 to 1999).

패널 Panelist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즈

EU대표부 남북겸임대사

Maria CASTILLO-FERNANDEZ

EU Ambassador in Korea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지명자는 스페인국적의 유럽 외교관/관리로서 2016-2020년 주말레이시아 EU 대사를 지냈다. 이에 앞서 2012년 9월부터 말레이시아 부임 전까지는 유럽대외관계청(EEAS)에서 EU와 인도, 네팔, 부탄 및 방글라데시, 그리고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과의 전반적인 관계 관리 및 조율을 총괄하는 부문의 국장을 역임했다. 2008년에서 2012년 9월까지는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관할하는 EU 대표사무소의 수장으로 홍콩에서 활동했다. 2005년 9월에서 2008년까지는 주한 EU 대표부에서 EU와 남북간 정치관계 및 경제협력 사안을 책임지는 공관 차석을 지냈다. 한국에 부임하기 전,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집행위원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전반을 담당했다.

Maria Castillo-Fernandez, the European Ambassador to Korea, was a Spanish-born European diplomat/manager who served as European Ambassador to Malaysia from 2016 to 2020. Prior to his appointment in Malaysia, she served as director of the European Union External Action Service(EEAS), in charge of overall relationship management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EU, India, Nepal, Bhutan, Bangladesh, and the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SAARC). From 2008 to September 2012, she served in Hong Kong as the head of 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Hong Kong and Macau. From September 2005 to 2008, she served as deputy secretary of state at 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for political relations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EU and inter-Korean relations. Prior to her inauguration in South Korea, he was responsible for the overall relations between the European Commissio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rom 2000 to 2005.

패널 Panelist



토마스 쉐퍼 평양주재 독일 대사관 전 평양주재 독일 대사(~2018)

Thomas SCHAEFER German Foreign Office (until 2018), Ambassador (Ret.)

토마스 쉐퍼 대사는 1981년에서 2018년까지 독일 외무부에서 활동했다. 동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여러 발령지에서 활약하며 외교 경력을 쌓았으며, 2007~2010년에는 북한 주재 독일 대사를 지냈다. 이후 과테말라 주재 독일 대사를 거치고 다시 2013년에 평양으로 돌아가 두 번째 북한 주재 독일 대사를 역임한 후, 2018년 은퇴했다. 최근 저서 "From Kim Jong II to Kim Jong Un: How the Hardliners Prevailed. On the Political History of North Korea"(2007-2020)를 발표했다. 1985년 킬 대학교에서 독일 역사학 박사를 받았다.

Ambassador Thomas Schäfer served in the German Foreign Office from 1981 until 2018. His diplomatic career took him to multiple postings in East Asia and Latin America before he was appointed as Ambassador to North Korea from 2007 to 2010. After a subsequent tour as Germany's Ambassador to Guatemala, Amb. Schäfer returned to Pyongyang in 2013 to serve as Ambassador there for the second time prior to his retirement in 2018. He has just published the book "From Kim Jong II to Kim Jong Un: How the Hardliners Prevailed. On the Political History of North Korea (2007-2020). He received his PhD in German History from the University of Kiel in 1985.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기후변화와 한반도 물 재해, 그리고 남북협력

Diagnosis and prescription for the resumption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Conversation with Ambassadors to North Korea

주관기관 한국수자원공사

Discussant

Organized by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좌장 남궁은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Moderator NAMKUNG Eu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발표 • **토마스 쉐퍼** 평양주재 독일 대사관 전 평양주재 독일 대사(~2018) Presenter

• Thomas SCHAEFER German Foreign Office (until 2018), Ambassador (Ret.)

• 김경훈 한국수자원공사 부장

• KIM Kyoung Hun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K-Water), General Manager

• 이창희 명지대학교 교수

· LEE Chang-Hee Myongji University, Professor

• 김태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토론

> • KIM Tae Kyun Korean Council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KCRC), **General Secretary**

• 김영오 서울대학교 교수

· KIM Young-Oh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휄릭스 글렝크 한스자이델재단 수석연구원

• KFelix GLENK Hans Seidel Foundation Korea, DPR Korea Project Manager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세션소개 Session Description (S3-4)

▮ 기후변화와 한반도 물 재해. 그리고 남북협력

대북제재 및 남북관계 경색기가 장기화하는 지금, 비전통안보인 기후변화 및 물 재해(태풍, 폭우, 홍수, 가뭄 등)에 관한 협력의 긴급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올해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홍수피해예방을 핵심과제로 제시하였고,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재해·재난 등 남북한 주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부터 협력하자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하천관리 등의 환경협력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세션을 통해 북한의 물 재해 현황을 진단하고 남북 물환경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Inter-Korean cooperation beyond climate change and water disasters in the Korean peninsula

Importance of cooperation on the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water disasters(typhoon, heavy rain, flood, drought, etc.)

is dramatically increasing, under the circumstance of prolong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North Korea released the flood prevention as a major task at the 8th Party Congress this year.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cooperation on the climate change would be strengthened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Through the working plan of 2021, Korean government also suggested the fundamental directions to cooperate on the urgent issues which threatened lives and safety of South and North Korean people and announced the plan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such as river management.

In this session, therefore, we would like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water disasters in North Korea and discuss the further direc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on water issue.

<u> 좌장 Moderator</u>



남궁은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NAMKUNG Eu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남궁은 교수는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환경공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Procter & Gamble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환경 총괄매니저를 역임한 후 귀국하여, 환경부 상하수도국장과 환경부 수처리선진화사업단 단장을 지냈다. 그후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정교수를 거쳐 현재는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의 연구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다. 민관학연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분야의 최고 석학들이 참여하는 한국환경한림원 회장과 한국전과정평가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공학한림원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수처리 및 수질관리 등 물 분야 최고 석학으로 국가 물 관리 발전에 대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과 조선일보 환경기술 대상을 수상했고 미국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의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상했다. 10여권의 물 관련 저서를 발간하여 후학 양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물 분야 국제협력의 위상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Dr. Namkung Eun is currently a research professor in the Institute of Construction & Environmental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Dr. Namkung is an expert in environmental science and engineering including water quality management, water supply & wastewater treatment, and environmental biotechnology. He received his MS and Ph.D. degrees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from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Illinois, USA, and his BS degree in Civil Engineer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His past career includes Director General of Water Supply and Sewerage Works 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OE) in Seoul, Korea and Regional Manager of Procter & Gamble (P&G) Asia Pacific in Kobe, Japan.

He was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in Korea. He also has led the National R&D program (Eco-STAR Project) in Korea for advanced water treatment technology development.

Dr. Namkung served as the president of Korea Academy of Environmental Science (KAES) and also is a full member of the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of Korea (NAEK). He was awarded a Public Service Medal (Dongbaek-jang) for his outstanding public service in the area of water policy and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in Korea.

발표자 Presenter



토마스 쉐퍼 평양주재 독일 대사관 전 평양주재 독일 대사(~2018)

Thomas SCHAEFER

German Foreign Office (until 2018), Ambassador (Ret.)

토마스 쉐퍼 대사는 1981년에서 2018년까지 독일 외무부에서 활동했다. 동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여러 발령지에서 활약하며 외교 경력을 쌓았으며, 2007~2010년에는 북한 주재 독일 대사를 지냈다. 이후 과테말라 주재 독일 대사를 거치고 다시 2013년에 평양으로 돌아가 두 번째 북한 주재 독일 대사를 역임한 후, 2018년 은퇴했다. 최근 저서 "From Kim Jong II to Kim Jong Un: How the Hardliners Prevailed. On the Political History of North Korea"(2007-2020)를 발표했다. 1985년 킬 대학교에서 독일 역사학 박사를 받았다.

Ambassador Thomas Schäfer served in the German Foreign Office from 1981 until 2018. His diplomatic career took him to multiple postings in East Asia and Latin America before he was appointed as Ambassador to North Korea from 2007 to 2010. After a subsequent tour as Germany's Ambassador to Guatemala, Amb. Schäfer returned to Pyongyang in 2013 to serve as Ambassador there for the second time prior to his retirement in 2018. He has just published the book "From Kim Jong II to Kim Jong Un: How the Hardliners Prevailed. On the Political History of North Korea (2007-2020). He received his PhD in German History from the University of Kiel in 1985.

기후변화와 한반도 물 재해, 그리고 남북협력

Diagnosis and prescription for the resumption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Conversation with Ambassadors to North Korea

외교와 물, 위생, 보건증진: 대북지원의 어려움에 대하여

토마스 쉐퍼

평양주재 독일 대사관 전 평양주재 독일 대사(~2018)

2021년 독일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북한과 수교했다.

독일은 공식적인 정치적 대화 뿐 아니라 농업, 임업, 환경 분야 인도적 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독일 및 국제 파트너가 조직한 북한에서의 많은 국제프로젝트의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북한의 지도부는 외국과의 그 어떤 협력도 정권안정의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북한의 편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북한은 곤경에 처해 있으며, 어느 시점에서 북한은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북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압력은 유지되어야 하고, 대화와 협상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도적 지원도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북한과의 신뢰를 얻고 체제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보다 좋은 방법은 농업, 물, 위생, 보건 분야에서 인간의 기본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집중하는 것은 한국에 필요한 과업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와 한반도 물 재해, 그리고 남북협력

Diagnosis and prescription for the resumption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Conversation with Ambassadors to North Korea

Diplomacy and Water, Sanitation, Hygiene: About the Difficulties to help North Korea

Thomas SCHAEFER

German Foreign Office (until 2018), Ambassador (Ret.)

Germany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2001 at the reques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Germany has tried to build trust with North Korea not only through open political dialogue, but also in a variety of other ways, such as humanitarian aid projects in agriculture, forestry, and the environment. But, the impact of many international projects in North Korea – be they organized by Germany or other international partners - remains limited. Large parts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view any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as a latent threat to the stability of the regime.

Time is not on Pyongyang's side. Economically, North Korea is at an impasse. At some point, North Korea will realize that it is on the wrong track. Until then, political, and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should be maintained, supplemented by a willingness to talk and negotiate. If there is a need for humanitarian aid, it should be provided.

For South Korea, a more promising way to gain trust and showcase the advantages of its system would probably be to offer technical assistance in satisfying the basic needs of the population in the areas of agriculture,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Concentrating on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of the North Korean society would be a noble task for South Korea.

발표자 Presenter



김경훈 한국수자원공사 부장 **KIM Kyoung Hun**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K-Water), General Manager

김경훈 부장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사업기획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996년 입사 후 한강물관리처, 물관리협력추진단, 미래전략실, 기획조정실 등에서 근무하며 남북 공유하천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진강 군남홍수조절지댐 건설, 물관리일원화 등에 참여했다. 현재는 한국수자원공사 남북협력사업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의 종합적 이용·개발, 광역상수도 건설·관리, 위탁·운영, 신재생에너지 설치·운영,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개발, 해외사업, 남북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유일의 물 전문 공공기관이다.

KIM Kyoung Hun is Head of Project Planning at K-water. After entering K-water in 1996, he served on Hangang River Water Resource Management Office, Water Resource Management Cooperation Team, Future Strategy Division, and Planning and Coordination Division among others and was involved in projects including integration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construction of Gunnam Flood Control Dam in Imjin River for preventing flood damages along shared rivers in North and South Korea. Currently, he is in charge of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and climate change actions at K-water. K-water is Korea's only public institution specialized in water resources. It is responsible for comprehensive utilization,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s, installation, management, consignment, operation of metropolitan waterworks, installation, operation of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and special regions, international projects, and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among others.

기후변화와 한반도 물 재해, 그리고 남북협력

Diagnosis and prescription for the resumption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Conversation with Ambassadors to North Korea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남북협력 방안

김경훈 한국수자원공사 부장

임진강은 한반도의 남북을 대표적인 공유하천이다.

임진강은 전체 유역의 약 2/3가 북측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하류지역(남측)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북측은 임진강 상류에 9개의 크고 작은 댐을 건설하여 수력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상류의 물을 예성강으로 도수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상시 남측으로 흐르는 물이 거의 없어, 임진강 하류부 남측지역은 심한 물 부족과 수질 악화를 겪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기간 북측 댐의 무단방류로 남측지역에 인적·물적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야영중이던 남측 주민 6명이 사망하고, 1억 3천만원의 어구피해를 입었으며, 2021년 군남홍수조절지 수위가 최고로 올라, 문산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거의 매년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북측에서 댐방류를 사전에 통보만 했어도 미리 막을 수 있는 재난들이었다.

본 발표에서는 남북한이 임진강 수해를 공동으로 방지하고, 하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단계별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남북간 합의된 북측댐 방류통보 및 실무협의회를 재개하고, 중장기적으로 물-에너지 교환 등 남북 상생의 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와 한반도 물 재해, 그리고 남북협력

Diagnosis and prescription for the resumption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Conversation with Ambassadors to North Korea

Inter-Korean Cooperation for the Prevention of Flood Damage in Imjin River

KIM Kyoung Hun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K-Water), General Manager

The Imjin River is the representative shared rive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pproximately 2/3 of the Imjin River is located in North Korea, consequently it is causing many problems in the downstream area (South Korea).

North Korea built nine dams upstream of the Imjin River to generate electricity through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and this water is being transferred to the Yeseong River to be used for agricultural purposes. For this reason, there is almost no water flowing to South Korea, and the southern region of the downstream is experiencing severe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and ecological environment.

The biggest problem is that flood damage frequently occurs in the southern regions due to the unauthorized discharge without prior notice from North Korea during the monsoon season or localized heavy rain. In 2009, 6 South Koreans were killed while camping, and the fishing gear was damaged in the value of 130 million Korean won.

Thus, this presentation explores the stepwise cooperation to jointly prevent flood damage on the Imjin River and use the river jointly.

The agreement of the Imjin River flood prevention program and working committee should be resumed. The inter-Korean cooperation also should promote water-energy exchange in the mid- to long-term.

발표자 Presenter



이창희 명지대학교 교수 **LEE Chang-Hee** Myongji University, Professor

이창희 교수는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학사 및 석사를 그리고 1995년 (미) College of William & Mar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 후 1997년까지 (미)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연구원으로 오대호 연구를, 이후 2006년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수질관리정책 연구를 담당했다. 이후부터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에 근무하면서 공공수역 물관리 및 정책 관련 연구를 지속하여 60여편 이상의 국내외 논문 및 50권 이상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제18대(2019~2020) (사)한국물환경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정책분과위원장),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 및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Professor LEE Chang-Hee earned his bachelor's and Master's Degree in Oceanography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h.D. in College of William & Mary (U.S.) in 1995. After earning his degree, he was a researcher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U.S.) until 1997 where his research focus was Great Lakes. Then, he worked a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until 2006 where he was responsible for water quality control policies. He continued his research on water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ies in public basins at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Energy Engineering in Myongji University, where he published more than 60 articles in Korea and abroad as well as more than 50 research reports. He served as the 18th (2019~2020) President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and currently is a member of th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Chair of Policy Sub-committee) under the President, Saemangeum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National Water Resource Management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기후변화와 한반도 물 재해, 그리고 남북협력

Diagnosis and prescription for the resumption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Conversation with Ambassadors to North Korea

북한 물환경 현황 및 협력 방향

이창희 명지대학교 교수

물 관리는 북한의 환경문제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물관리는 물재해, 물이용 및 물환경 등의 세 부문으로 나뉘는데 북한에서도 전통적인 물재해 및 물이용 부문과 더불어 최근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었던 물환경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오염원이 밀집된 대도시 및 공업지역 중심으로 처리시설의 미비 및 노후화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이 크게 악화되어 먹는 물을 포함한 국민건강 및 위생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 2017년 UNICEF 자료에 의하면 가정 내로 공급되는 음용수의 경우 농촌은 54.1%, 도시는 35.4%에 이르는 인구가 대장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물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적인 구조적 원인의 해결을 위한 거시적 접근과 처리시설 미비와 같은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미시적 접근의 병행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선은 민관합동의 (가칭)남북한 환경포럼 운영을 통해 남북한 물환경 협력사업 및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가칭)한반도 물정보센터를 설립하여 부족한 북한의 물환경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등의 향후 남북 물환경 협력을 위한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인도적 지원사업 등 비정치적 호혜 사업 등의 추진이 그나마 가능성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기후변화와 한반도 물 재해, 그리고 남북협력

Diagnosis and prescription for the resumption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Conversation with Ambassadors to North Korea

North Korea's Water environment Status and **Cooperation Direction**

LEE Chang-Hee Myongji University, Professor

Water manage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nvironmental issues in North Korea.

In general, water management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 water disasters, water use and water environment. Recently, North Korea is putting the focus back on these three issues. This is because the deteriorated water quality had a serious impact on the public health and hygiene particularly in drinking water.

According to UNICEF data in 2017, 54.1% of rural areas and 35.4% of urban populations were affected by Escherichia coli in their household drinking water.

In order to solve the water environment problem in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combine a macro approach to solve structural political and economic causes and a micro approach to solve direct problems such as insufficient treatment facilities.

In this situation, it would be practical to develop inter-Korean water cooperation projects and preparing a detailed implementation road map through operations of the 'Inter-Korean Environmental Forum', jointly established by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establishment of 'Korean Peninsula Water Information Center' is necessary to fill information gaps on the water environment and to back up the future inter-Korean water projects. In addition, the promotion of non-political and mutually beneficial projects such as humanitarian aid projects can be seen as a viable and realistic alternative.

토론자 Discussant



김태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KIM Tae Kyun

Korean Council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KCRC), General Secretary

김태균 사무처장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KCRC) 사무처장 겸 안중근 평화재단 이사, (사)겨레의 숲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파트너인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북측 민화협)와 서울, 평양, 금강산 등에서 만나 사회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민족화해협력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남북 산림협력, 인도적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부대변인,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무특보 등을 역임한바 있다.

KIM Tae Kyun i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KCRC), member of the board for the Peace Foundation of Ahn Jung-Geun, and Secretary General of Forest of the People. He has initiated various activities for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with North Korea by meeting with his North Korean counterparty, the National Reconciliation Council (NRC), in Seoul, Pyongyang, and Mt. Geumgang. Thereby contributing to th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f the two Koreas. He has also been engaged in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projects. He served as vice chair of the policy committee and deputy spokesperson for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special advisor to presidential candidate Moon Jae-In.

토론자 Discussant



김영오 서울대학교 교수 KIM Young-Oh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김영오 교수는 1996년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수자원시스템 분야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나사 (NASA) 연구소 중 하나인 Global Hydrology and Climate Center의 박사후연구원을 거쳤다. 1999년 서울대학교를 부임한 이래 6명의 박사와 39명의 석사 학위 학생을 배출하였고, 2020년 '수문학' 교과서를 공저하여 대한민국 수문학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90여편의 국내외 Journal에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국토해양부 '기후변화에 의한 수문영향분석과 전망 연구단'의 단장을 2012부터 3년간 맡아 수자원 분야 기후변화 연구를 선도했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2018), 한국수자원학회 학술상(2018), 대한토목학회 학술상(2018), 서울대학교 신양공학 학술상(2015) 등을 수상했다. 서울대학교 법인추진단 부단장(2011)과 학생부처장(2012-2014)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학부장, 시민단체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대학에서 '수문학', '수자원공학', '통계수문학', '수자원시스템공학', '재해와 리스크관리'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기후변화 적응 의사결정', '확률 예측', '가뭄 및 홍수 분석 및 관리' 등이다.

Professor KIM Young-Oh received his Ph.D. in Water Resource System in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U.S. and worked as a postdoctoral fellow at Global Hydrology and Climate Center, one of the research institutes at NASA. Since he began to teach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99, he has produced 6 doctors and 39 masters. In 2020, he co-authored 'Hydrology' textbook, contributing to the education of hydrology in Korea. He also published more than 90 articles in Korean and international journals and served as the head of Climate Change Assessment & Projection for Hydrology in Korea und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three years since 2012, leading climate change research in the context of water resources. His work was recognized by the Prime Minister's Award (2018), Research Excellence Award by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2018), Research Excellence Award by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018), and Sinyang Engineering Research Award by SNU (2015) among others. He served as the Vice President of SNU Incorporation Task Force (2011) and Vice President of Student Affairs (2012-2014). Currently, he serves as the Dean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Departm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Executive Representative for a civic organization 'National Coalition for Realization of Sound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y,' and Academic Vice President for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In the university, he teaches 'Hydrology,' 'Water Resource Engineering,' 'Statistical Hydrology', 'Water Resource System Engineering', 'Disaster and Risk Management', among others, and his research focus includes 'decision-making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probability prediction', and 'drought and flood analysis and management.'

토론자 Discussant



휄릭스 글렝크한스자이델재단 수석연구원

Felix GLENK

Hans Seidel Foundation Korea, DPR Korea Project Manager

휄릭스 조나단 글렝크는 2014년부터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HSF)에서 대북사업단 단장을 맡아 서울에서 활동해왔다. 환경보존 및 협력을 위한 HSF 재단의 대북사업을 위해 북한을 자주 방문한다. 2014년 9월부터는 HSF 코리아가 EU의 재정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인 "건강한 숲을 이용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 - 북한의 지속가능한 삼림관리를 위한 교육센터 설립"에 참여해왔다. 2015년 10월부터는 국제환경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행된 "습지의 보존 및 현명한 이용" 사업을 추진 하기도 했다. 위 두 개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 및 역내 다른 지역의 학자 및 과학자들 간 교류 증진을 위한 북한과 동아시아 내 활동이 스무 개 이상 탄생했다. 휄릭스 글렝크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누가 북한에 적응하는가? 인도주의적 원조의 정치학"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Felix Jonathan Glenk has been working with the Hanns Seidel Foundation Korea (HSF) since 2014 as the Project Manager for the North Korea project of HSF based in Seoul. He frequently travels to North Korea to implement projects by HSF Korea, focusing on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cooperation.

From September 2014 he wa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a project by HSF Korea and funded by the European Union with the title "Improvement of rural living conditions through healthy forests – establishment of a training for sustainable forestry in DPRK". From October 2015, he also initiated a project on the "Conservation and Wise Use of Wetlands', implemented in close consultation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rganizations. Both projects resulted in more than 20 different activities in North Korea, and in East Asia, with a goal to increase the exchange between academics and scientists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Mr Felix Glenk received a Master's degre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wrote his Master Thesis about "Who adjusts to North Korea? The Politics of Humanitarian Aid"



2021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